(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59–860 . 1982년 6월 25일(금) & 26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June 25 & 26, 1982

JUN 25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TORONTO, CANADA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국 장 : 송 광 호

국무총리에 김상협 고대총장

재무·법무·동자부장관도 교체

"장여인스캔들 조사 마무리 따른 조처"

(서울24일=연합)전두환 대통령은 야당의 집요한 개각 요구에 굴복, 24일 유창순국무총리이하 재무, 법무, 동자부장관을 교체, 새총리에 김상협 고대총장을 임명하는등 개각을 단행했다. 황성필 청와대 대변인은 나웅배 재무장관 후임에 강경식차관, 정치근 법무장관 후임에 배명인 사법연수원장을, 이선기 동자부장관 후임에 서상철건설부차관을 임명했 다고 발표했다.

황대변인은 장여인 사채사건 조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 갔으므로 총리와 3명의 장관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지난 5월21일 장여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각료 22명중 11명을 교체했었다. 이때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재무장관을 비롯, 대부분의 경제각료들은 사건처리를 위해 유임됐었고, 당시 사건수사를 맡아 미지근한 발표를 했던 정치근 검찰총장은 오히려 법무장관으로 승진, 내외 국민들로부터 큰 의혹을 샀다.

야당의원들은 유총리, 김준성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재무, 법무장관의 해임을 강경하게 요구했었다. 이같은 요구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있은 3개 정당 당수들과 전두환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전해졌다.

무역인협회장이던 유창순씨는 지난 1월3일 총리에 임명됐다.

신임 김총리는 국회의 형식적 동의를 얻을 때까지 총리서리로 남아 있는다.

"여야를 초월한 분"

고대교우회장 담

토론토 고려대교우회장으로 김총리의 제자인 서준경씨(맥스밀크·수퍼바이저: 정외과 62년졸업)는 총리 임명소식을 듣고 "반가운 소식이다. 김교수에게서 중국정치사등을 배웠다. 그분이야말로 여·야를 초월, 애국 애족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이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신임 김상협 국무총리

신임각료 4명

총리(서리) **김상협**(고대총장)
재무장관 **강경식**(재무차관)
법무장관 **배명인**(사법연수원장)
동자부장관 **서상철**(건설차관)

()안은 전직

달러가치

US$1 = CAN 78

22일 종장에서 76.86센트까지 떨어졌던 캐나다달러의 대미환율이 23일 하룻만에 78센트로 뛰었다.

외환시장전문가들은 이것이 캐나다달러하락추세가 끝난것은 아니고 다시 76센트이하로 반락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국일보
533-2361

〈신임각료 프로필〉

●. 김상협 총리서리

일본 최고의 명문 동경제국대학 출신인 김총리(62)는 고려대 정치학교수로 반평생을 지낸 학계의 거목이며 행동파지성인이다. 1920년 전북부안 출생. 고대 설립자이며 부통령을 지낸 인촌 김성수선생의 조카이다. 모택동사상 전문가인 김총리는 고대총장으로 있다 74년 학생데모를 못 막았다고 박정희대통령정부에 의해 강제로 총장직에서 쫓겨났었다. 77년부터 다시 고대총장직을 맡아온 김총리는 정계에 잠시 발을 디딘 일이 두번 있다. 김총리는 5.16 군사혁명 후인 62년 문교장관을지냈고, 박대통령 피살후인 80년 계엄령하에서 당시 국회대신으로 설립된 국가보위입법위원을 지냈다. 자녀는 4명.

●. 강경식 재무장관

재무부및 경제기획원서 잔뼈가 굵은 직업공무원. 경북 태생으로 46세, 서울법대 출신.

●. 배명인 법무장관

50세의 배장관은 검사출신으로 81년 이후 검찰차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 경남 태생으로 서울법대졸.

●. 서상철 동자부장관

47세, 고려대 경제학교수. 충남태생의 서장관은 미국하바드대학서도 수학했으며 한때 세계은행(World Bank)의 이사를 지낸 경제통이다.

정부 수정예산안 발표예정

불황대책등 경제긴급조치 예상

(오타와)알란·매케른재무장관은 22일 연방하원에서 28일밤에 수정예산안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예산안은 1)투자를 촉진하는 세금정책 실시(기업세 감면) 2)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사업체에 대한 차별대우를 어느정도 완화 3)직업창출을 위한 재정지원및 4)정부기관 공무원 임금통제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81년 11월 예산안은 민간저축및 기업투자를 억제하는 세제개혁을 포함한 긴축통화정책으로 고금리와 달러가치하락의 원흉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트루도 정부는 고금리정책으로 물가상승을 억제하려고 했으나 실패, 물가상승율은 미국의 7%의 거의 2배가 되는 12%이다. 또한 내셔날리즘의 성격을 띤 국가에너지종합계획(National Energy Program)에 의한 외국기업의 차별대우및 국유화등으로 외국인의 국내투자억제및 외국자본의 대량유출을 초래, 캐나다달러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는 주원인이 됐다. 80년에 발표된 국가에너지종합계획은 대부분 경제전문가로부터 현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매케른의 발표는 많은 업계, 특히 경제침체로 가장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사업가들로부터 대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여러 경제분석가는 세계적인 불황, 미국의 고금리 및 늘어만 가는 캐나다정부 재정적자로 이번에 발표될 예산안의 효과에 의문을 품는다.

몇몇 재정전문가들은 매케른 신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정부재정지출 억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처도 취해야 한다고 본다.

연방정부 금년 재정적자는 작년 11월에 예측했던 $105억의 거의 2배나 증가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으며 적자재정의 주 원인은 석유가격의 하락과 경기침체로 인한 석유수입세및 기업소득세 수입의 급격한 감소 때문이다. 81년의 재정적자는 $22억이었다.

반면 현정부 긴축통화정책이나 재정적자 억제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시사한 매케른재무장관은 "현재 캐나다가 당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다만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세계적 불황의 회오리에 말려들고 있는것 뿐이다."고 변명했다.

제1야당인 보수당의 조·클락당수는 신예산안 소식을 듣고 신예산안은 작년 11월예산의 투자억제조세정책 철폐와 직업창출장려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윌리암·데이비스 온타리오주수상은 "겉보기로는 새 예산안이 나온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지난번 예산은 투자가들을 위축시키는 것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외에 알버타재무장관 루이스·힌드맨등 여러 경제전문가들은 신예산안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국가에너지종합의 재검토, 직업창출및 공무원임금 통제를 포함, 정부재정지출 삭감등을 특히 고려해 줄 것을 바랐다.

전대통령 신뢰하락

장여인 사건으로

(뉴욕)연세대 사회과학대 안병준 교수는 『장영자사건으로 전두환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하고 『그러나 전대통령이 군의 지지를 받는 한 심각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교수는 문화재단 「아시아사회」의 주재로 뉴욕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는데 이 토론회에는 서울대의 김경동교수와 하바드대의 칼·모스코위츠및 리처드·스나이더 전 주한미대사등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남북한관계를 토론키 위해 이뤄졌으나 참석자들이 한국의 금융부정사건을 캐묻자 안교수는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대해 스나이더씨는 『남북한 관계를 논의키 위해 참석한 사람에게 금융부정사건을 물어 부담을 주는것은 공정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미국과 소련및 중공과 일본등 4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남북한이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확대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6.25 기념만찬회

오타와서 참전용사등 참석

(오타와=[illegible]지국장)6.25 32주년 기념만찬회가 18일 오타와 퍼·시즌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이규현대사, 백승웅무관등 한국대사관 요원과 캐나다국방성, 외무성관리들및 캐나다군 참전용사대표, 오타와주재 각국무관등 500여명이 기념식을 갖고 만찬을 나눴다.

이어 19일 캐나다군장교회관에서는 캐나다군 6.25 참전용사들이(회장 로이드·프러머) 전대통령의 캐나다방문을 환영하는 서한을 채택하고 한국동란의 얘기로 밤을 지새웠다.

전두환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들은 "우리는 각하의 캐나다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귀하의 방문이 한·가양국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WORLD CUP 1982 월드컵 전적

◆21일 :	오스트리아 2	알제리아 1
	프랑스 4	쿠웨이트 1
	온두라스 1	북아일랜드 1
◆22일 :	폴란드 5	페루 1
	벨기에 1	항가리 1
	소련 2	스콧틀랜드 2
23일 :	브라질 4	뉴질랜드 0
	아르헨티나 2	엘살바돌 0
	이탈리아 1	카메룬 1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오늘의 예금금리 (6월 23일부터)

종별	기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89일	15%	14.5%
	90～179일	15.75%	15.5%
	180～365일	16%	15.25%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더 드립니다.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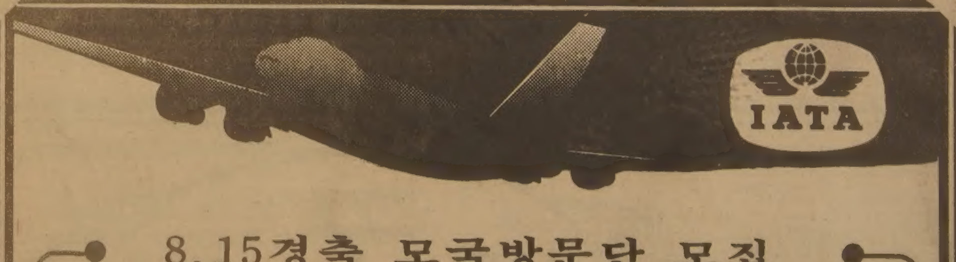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8.15경축 모국방문단 모집
출발및 귀환 자유 (8.15 경축식 참석및 관광)
등록마감: 7월 15일까지
○ 서울단체 매일출발
○ 방문초청 특별요금
이제는 친구및 3촌 이상 친척까지 초청의 문호 개방.
단: 항공료와 체재비 부담조건.
○ 국내, 국제항공표 일체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 · 2156
R) 492–7525 김 창범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제3터미날 공사 확정

87년 완공예정, 토론토공항 혼잡 줄일수 있어

악화일로에 있는 토론토 국제공항의 혼잡을 덜기 위해 연방정부는 23일 제3터미날 신설을 승인했다. 제3터미날은 5년후인 87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연방정부의 장·룩·페팬(Jean Luc Pepin) 교통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공항시설 확장계획의 내역을 보면

○.$3억의 비용을 들여 12~16개의 승객탑승구(Passenger gate)를 갖춘 새터미날을 에어·캐나다의 신설격납고 바로 동쪽과 제1터미날 서쪽에 건립한다.

○.공항 서쪽끝에 $2백만을 투입, 내년까지 수화물 처리시설을 확장한다.

○.제1터미날 바로 서쪽에 있는 항공기정비건물과 서비스를 개선, 최신 항공자재를 갖춘다. 여기에 약 $6백만의 경비가 소요되며 84년까지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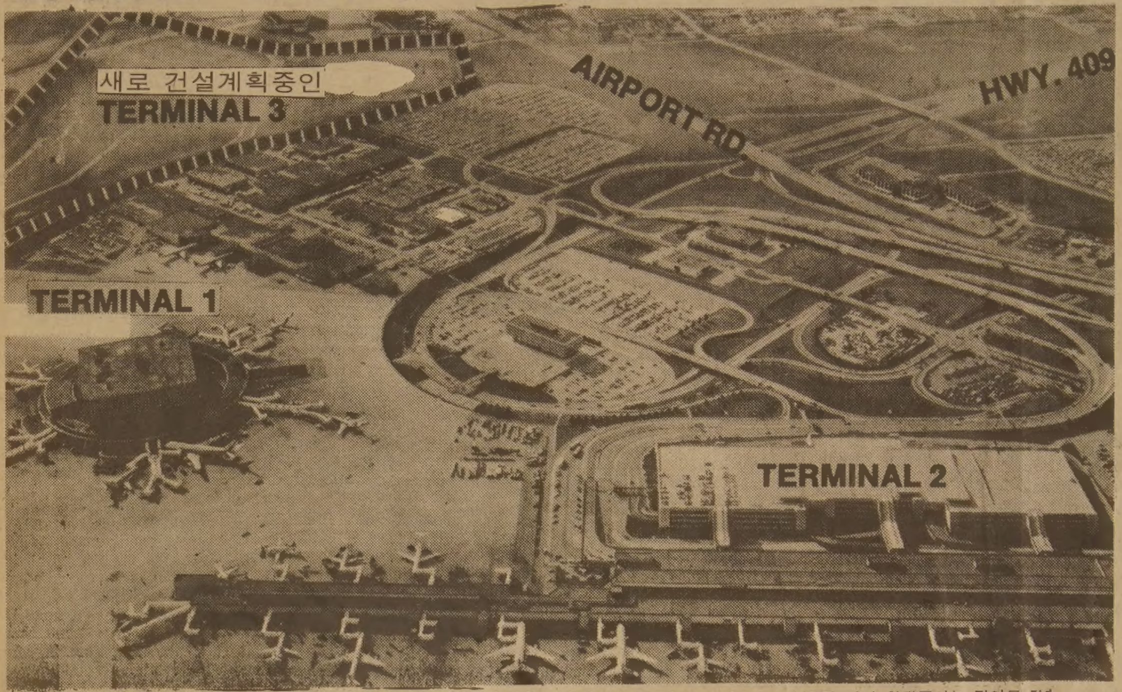
이밖에 수화물처리지역의 유도로를 비롯, 새 터미날을 위한 주차장과 도로 신설도 이 계획에 포함됐다.

토론토 공항의 대이브·맥카리 전무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제3터미날은 연 6백만명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장래에 더 확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남은 일은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타내는 것이라고 말한 맥카리씨는 금년말경 연방정부 내각과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맥카리씨는 제3터미날의 가장 빠른 완공시기는 87~88년경이 될 것이며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해 토론토공항의 혼잡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간 1천5백만명의 승객을 소화하는 공항은 86년까지 1천950만, 90년까지는 2천4백만명을 처리할 계획이다.



◆연방정부 교통부장관 장·룩·페팬에 의해 승인, 건립될 토론토 국제공항 제3터미날. $3억가 소요될 이번 확장공사는 적어도 5년후에나 완공 되며 연6만명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다.

굽타군 살해범 체포

같은 인도인 종교는 달라

지난 2월 스카보로 공장지역 눈두덕에서 교사체로 발견된 라예쉬굽타(8)군의 살해용의자로 23일밤 스카보로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범행동기등 자세한 살해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급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사라브지드·카우르·미나스양은 스카보로 모넬코트에 사는 은행직원이며 인도출생으로 현재 남편과 별거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굽타가정은 미나스를 알고 있었으나 오고가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라예쉬 굽타.

라예쉬는 지난 2월3일 점심을 먹고 집에서 3블럭 떨어진 학교로 돌아가다 실종, 그날 오후 집에서 10km 떨어진 공장지대에서 발견됐다.

지난 4월까지 아무 단서도 잡지 못했던 경찰은 최근 현상금을 5만달러로 올린후 수많은 제보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살인혐의자의 남편인 구트미트·미나스(32)씨는 1년8개월전에 중매로 결혼했으나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나스씨는 경찰로부터 그의 아내가 굽타가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때 매우 놀랐다며 굽타가정은 히두교, 자기들은 시이크교도라고 말했다.

〈식 자 안 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 가격저렴
★ 빠른 서비스
한국일보사
☎:(416)533-2361

월수입 298달러

한국근로자 수입올라

(서울24일=연합)작년도 한국근로자들의 월평균 수입은 미화 244달러(원화 180,837원, 캐나다화 298달러)로 80년도 보다 20%가 인상됐다.

24일 노동청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도에 평균임금보다 적게 받은 근로자는 전근로자의 63%였다.

산업별로는 제조부문 종사자가 가장 적게 받아 월평균 153,214원(미화 207달러), 건설부문자는 272,610원(미화 368달러), 서비스 분야자는 가장 많은 273,404원(미화 369달러)였다. 북미서는 건설분야 근로자가 임금이 가장 높다.

작년도 물가 상승율은 23.3%였기 때문에 이 통계에 의하면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감소된 셈이다.

영어교육 열올려

올림픽등 대비

(서울24일=연합)86년 아시안·게임및 88올림픽에 대비, 주경기장등을 관할하는 강동경찰서는 영어회화교육에 들어갔다.

22일 시작된 2개월간의 코스는 경찰관들에게 외국관광객을 도울 수 있는 기초영어를 가르친다.

500명의 경찰관들은 주4일, 아침 1시간씩 강의를 받는다.

강사진에는 2명의 미국인이 포함됐다.

무용발표회를 끝내고 (1)

—실의에 빠졌을때 「민족상」이 북돋아

김 용 순

지난 12일 토론토에서 제3회 무용발표회를 가진 김용순씨는 외롭고 고된 무용인의 길과 후진 양성의 어려움, 한인사회에 대한 제언등을 수필형식으로 엮었다. (편집자주)

◇김용순씨

만나는 분마다 "그「한오백년」은 직접 창작하신 것입니까? 정말 걸작이었읍니다. 꽃마루가 찡하게 울려 주었읍니다."

과연 그 많은 찬사의 말씀들을 내가 혼자서 들어도 되는 걸까? 너무도 과분한 것이 아닌가? 자문하여 본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 자신 인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장과 감사와 반성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토록 냉정해보이던 한인교포사회가 참으로 인정있는 곳임을 깨닫고, 이민 6년만에 참으로 뜨겁게 동포애를 느껴본 기회이기도 했다.

3회발표회동안 어떤 작품이고 가리지않고, 도와준 오재윤·김정숙, 임신중에도 불구하고 출연해준 Anna Muller(매소진), 음악을 맡아주신 박광우·황훈씨.

"미세스·킴, 끝까지 해보이소. 이 김평이가 같이 있는 한 포스터하고 티켓하고, 팜플렛은 걱정말고 맡기소…" 그리고 항상 무대뒤에서,

"아이쿠! 목소리 좀 예쁘게 내봐. 글쎄 조금만 가만히 기다려봐. 다음번엔 이런 짓 한번 해보면 어때? 재료도 인력도 아무것도 없이 해보려니 힘들구만. 가만있어. 연구해 보자. 불 더 켜줘요. 조명이 약해요. 아니 그렇게 말구요. 저런, 저렇게도 주문이 많지?"하시면서도 화 한번 안내시고, 당신일만 묵묵히 해주신 장기철씨.

사례가 있을 수 없다. 내 사정알고 당신들이 사랑하시는 일이라시며, 오히려 위로를 해주신다. 또 학생들도 그렇다. 가끔 시키지도 않은 신통한짓들로 날 울게 만든다.

"선생님 아파 보이니까 조용히 우리끼리 연습하자" 며 자기들끼리 작은 소리로,

"하나·둘·셋··."

추운날이나 눈·비오는 날 가리지 않고 학교 끝나기 무섭게 요크빌에서, 미시사가에서, 마캄에서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것도 마다않고 나와주는 학생들의 정성.

"김선생 부담이 너무 크니 우리가 모여서 조금이라도 힘을 덜어주자"시며 모여주신학부형님들. 특히 서준경후원이사장님과 이기천·유영갑·김병권·이병권·Mr Del,후원해 주신 각단체와 개인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한오백년」은 무용을 하면서, 아니 결혼을 하고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남에게 보이지 못하고 감추어야만했던 내 자신이 느끼는 비애의 한장이었다. 어린 조셉과 아빠와 내가 겪어야 했던 지난 몇달간의 고통 속에서 작품을 구상하고, 연습을 하면서도 절로 서러움에 겨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다.

아침7시30분이면 세탁소를 열어야 한다. 두어시간 지나면 내 자신의 공부와 연습을 위해 째즈클라스에 가기위해 10시에 집을떠나 돌아오면 1시. 다시 가게에 들러 일하다 3시반이 되면 아이를 가르치러 나간다.

학생들이 바쁘고, 이 캐나다란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에 사는 은혜(?)로 학생따라 한주에, 3일은 Emett Apt로, 3일은 한인회관으로 나가 연습시키고 집에 도착하면 저녁8시30분, 9시. 정신보다 육체가 고달파서 늘어져 있다가는 잠들어 버리고, 애가 아파서 약을 주어야 한다면서도 눈이 떠지질 않아 조금만 조금만 하다보면 아침이 돼버리고, 미안해 하고…

어느날인가, 조셉이 감기로 너무 아파서 소위 말하는 탁아소에도 가지 못하던날 아침, 세탁소에서 일을 하다보니 11시가 넘지 않았는가!

"배고프겠구나"하면서 허둥지둥 뛰어 올라와 보니, 그 어린것이 생소시지를 꺼내서 얌전히 접시에 내놓고 먹다가는 야단맞을까 봐 겁에 질린 얼굴로 "나 손 안다쳤어.

배고파서 내가 꺼냈어··."

아이를 끌어안고서 "엄마가 발표회만 끝나면, 끝나면…"

"앞으로 또 발표회만 한다고 입을 놀리기만 했다간 가만 안둘 줄 알어! 당장 집어치우고, 집에서 집안일이나 잘봐! 이번이 마지막이야. 여편네라는게 어린 자식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남편한테 따뜻한 밥한끼 안해주고, 「라면이나 햄버거 사다 잡숴요?」, 춤이 뭐가 그렇게 좋아? 가족들 보기에 민망해. 집안꼴 좀 봐." 라며 소리 지르는 아빠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다.

사업이라는 건 생전 처음에다가 전혀 모르던 세탁소가 할일은 너무도 많았고, 일하는것도 손에 익지 않으니 사람을 써야 하고, 그러니 자연 지출은많고, 그저 날아오는게 청구서뿐이니 짜증스러울 수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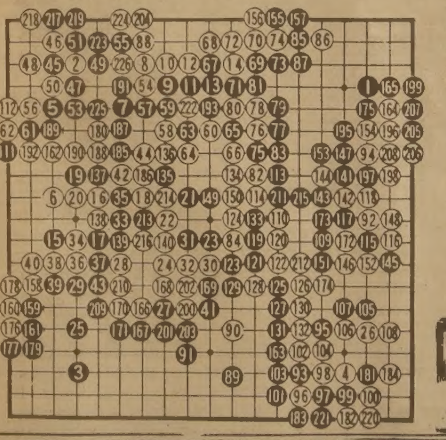
계속

조치훈9단 1승2패

흑지 실수 만회못해

本因坊도전 7번승부 제3국총보(1~227)

흑 本因坊 趙治勳 9단
백 도전자 小林光一 9단



(도꾜)지난 17일 열린 조치훈 "홍인보(본인방)"와 도전자 고바야시 9단의 제37기 "홍인보" 7번승부 제3국에서 조홍인보는 흑돌을 쥐고 초반 「흑21」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맹공격을 퍼부었으나 고바야시의 끈질긴 대응을 막지 못했다.

이날밤 9시51분 조9단이 1분, 고바야시 9단은 2분을 남기고 227수만에 계가결과, 조9단이 반면 1집을 남겼으나 덤에 걸려 결국 4집반을 지고 말아 1승2패의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제2국 기사는 〈토론토 한국일보〉 6월10일자 1면)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월드컵축구 TV중계표

(CBC-TV)

●25일(금)= 서독:오스트리아(정오), 스페인:북아일랜드, 영국:쿠웨이트
◆2차 예선전-6월28,29일 7월1,2,4,5일
◆준결승전-7월8일 정오, 3p.m.
◆패자결승전-7월10일 2p.m.
◆결승전-7월11일 2p.m.

CBC-TV 채널 3,5,12 또는 채널 25(불어방송)에서 중계함.

※CBC-TV 영어방송은 예정된 월드컵축구 2차 예선전 실황방영에 4게임을 더 추가한다. 6월 26일, 30일, 7월 3일, 6일 정오에 방영될 4게임은 그 전날 저녁 불어방송에서 방영한 것을 재방영하는 것이다. 위의 4일동안은 생방영이 없다.

※방영시간 변경
7월 8일 2차예선결승전 - 하오 3시에서 하오 2시30분으로
7월10일 패자결승전 - 하오 2시에서 하오 1시30분으로
7월11일 결승전 - 하오 2시에서 하오 1시30분으로

〈 자랑스런 어린이〉

수학성적 97.3% 스카보로서 1위

◆이건우군

지난달 스카보로교육구청이 구역내 전체 학교 8학년생들에게 일제히 실시한 수학시험에서 교포자녀 이건우군이 97.3%의 성적으로 1등을 차지했다.

이군은 12년전 이민 온 이종소씨의 장남으로 부친과는 달리 캐나다에 온지 3년밖에 안됐으나 수학 외에 과학·미술등 여러 과목에 걸쳐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 장래희망은 발명가이다.

교 민 동 정

◆차영신=토스만담배회사 세일즈맨으로 근무중인 차씨는 지난달 로스만회사부설 소매경영연구소(The Retail Services Institute)의 3일간에 걸친 세일즈맨교육 과정을 마쳤다. 제1기 졸업생인 차씨는 회사와 고객 양자를 위해 더욱 잘 서비스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소매경영연구소의 피터·테사(Peter Tesar)소장은 차씨가 우수한 세일즈맨이라고 칭찬했다.

로스만회사의 세일즈맨은 토론토에 55명, 전국에 265명이 있다.

◆차영신씨가 피터·테사 소장(좌)로부터 세일즈맨 교육 수료증을 받고 있다.

매혹의 저음가수
배 성 : 앵콜쇼
기간 : 7월2일부터
매주 금, 토, 일 저녁
히트곡 : 사나이부르스 기적소리만
망향, 향수 무정한 여인등 20여곡

거 구 장
매혹적인 저음의 노래로 지난봄"거구장" 고객 여러분을 흐뭇한 정서에 젖게 해드린 인기가수 배성이 여러분앞에 다시등장! 앵콜쇼로 모시오니,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 평일 오전11시~새벽2시
일요일 오전11시~새벽1시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파티 예약환영
5 BETHRIDGE RD.
742-1618

한국프로야구서 28승

OB팀 전기리그 우승

(대전23일=연합)O.B.의 곰(베어스)이 금년 처음 창설된 한국프로야구 전기리그 패권을 잡았다.

4게임을 남겨놓은 O.B.베어스(동양맥주 소속)는 22일 롯데·자이안트를 5:2로 물리치고 28승8패를 기록, 나머지 게임에 관계없이 전기리그우승이 확정됐다.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본격적 프로야구리그를 창설한 한국은 지난 3월27일부터 6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82년도 시리즈를 시작했다.(멕시코등 중남미에도 야구리그가 있으나 정식 프로는 아니다.)

전국의 10개 도시를 돌면서 진행되는 모두 240게임중 120게임이 오는 6월말로 끝난다. 한국프로야구리그는 전·후기로 구분, 각팀 40게임씩 1년 내내 80게임을 가진다.

7월부터는 후기리그가 속개, 후기리그우승팀과 전기우승자 OB베어스가 코리안시리즈를 벌인다.

OB우승의 원동력은 미국 및 일본 프로야구 출신 선수감독들의 활약이다. 미국 프로 밀워키의 마이너리그에서 2년간 활약하던 박철순투수는 전기리그에서 18승2패를 올려 이 상태로 가면 금년도 30승은 무난하다.

프로야구의 20승투수는 특급투수로 통한다. 또 일본프로한신팀 투수출신 김영덕감독이 이끄는 코취진도 유백만, 김성근등 맹장으로 구성됐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레건대통령 저격범 무죄

정신병을 이유로, 힝크리 2세

(워싱턴)미 레건대통령 저격범 존·W·힝클리 2세(27)가 정신이상을 이유로 무죄평결을 받았다.

7명의 여성과 5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워싱턴D.C.연방법원배심원은 21일밤 저격사전과 관련된 13건의 힝클리범죄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라는 결정을 내렸다.

▲존·힝클리 2세

힝클리는 작년 3월30일 워싱턴·힐튼호텔 밖에서 레건대통령과 다른 3명을 권총으로 쏘아 부상을 입히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왔었다.

연방법원판사 배링턴·파커가 배심원의 무죄평결문을 큰 소리로 읽는동안 힝클리는 피고인석에서 선채로 두번이나 눈물을 손으로 닦았다.

파커판사는 평결문을 낭독하기전 이를 훑어보고 화난듯한 표정을 지었으며 법이 규정한대로 배심원전원이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렸는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 일일히 질문을 던졌다.

11명의 흑인들과 1명의 백인등 12명의 배심원은 판사의 질문에 모두 힝클리는 정신이상을 이유로 무죄라고 대답을 했다.

힝클리에 대한 8주간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배심원들은 14명의 정신병치료전문가들과 힝클리를 그 전부터 아는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장시간의 증언을 듣느라고 지루한 나머지 꾸벅꾸벅 졸거나 의자를 앞뒤로 흔들며 잠을 쫓았다.

힝클리의 총탄에 맞아 부상을 입은 레건대통령과 다른 피해자들은 대변인을 통하거나 혹은 직접 배심원의 무죄평결에 할 말이 없다고 논평을 회피했다.

힝클리 부모는 변호사와 정신병치료전문의를 동원하는등 변호비로 50만달러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을 총으로 쏘고도 정신이상을 이유로 무죄평결을 받은 사람은 1백47년만에 힝클리가 처음이다.

지난 1835년 미국 제7대 대통령 앤드류·잭슨을 총으로 쏜 리처드·로렌스가 정신이상을 이유로 힝클리처럼 무죄평결을 받았었다.

힝클리는 정부가 운영하는 워싱턴D.C.의 세인트·엘리자베드 정신병원에 수감된후 8월말께 정신이상여부를 가리는재판을 받을수 있게 된다.

장수비결 세가지

영양있는 아침식사
알맞는 음주와 성생활

장수를 누리기위해서는 영양가있는 아침식사, 적당한 음주와 성생활이 필수3대요소라고 차기유엔사무총장 윌리엄·케리간이 말했다.

다음 총회가 열릴 비엔나에서 인터뷰를 가진 케리간은 비엔나가 세계에서 가장 노인인구가 많은 도시로 노인문제에 관한국제적관심을 끌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케리간에 의하면 나이드는 것은 아무도 막을수없지만 일상생활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항상 좋은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 살수 있다는것.

우선 매일마다의 아침식사를 잘해야한다.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하루동안의 신진대사가 원할하게 이루어진다.

둘째 술을 전혀 안마시는 것보다는 적당량의 알콜을 섭취하는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된다.

마지막으로 성생활은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의 필수요건이라고.

서기2025년의 예상평균수명은 70세이고 노인숫자가 계속증가, 유럽은 전체인구 4명중 1명, 남미와 아프리카는 각각 10명, 15명마다 1명이 60세이상 노인이 될것이라고 UN은 추산했다.

또한 케리간은 영양식발달과 질병퇴치로 노년기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며 각국 정부들은 정년퇴직연한을 75세로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통상개념인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산다는 사실은 불변 산업국가에서는 노년여성수가 남자보다 25~50%가 많다고한다.

결국 미래의 세계는 노인들의 세계가 될것이라는것이 세계인구통계에 의해 입증되고있다.

40년후에는 신생아에 비해 할아버지 할머니의 숫자가 2배에 달할것이며 세계각국은 노인층증가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문제점들이 계속 대두될것이다.

UN보고서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국민건강이 크게 향상되고, 높은 인구증가율로 2025년의 예상 60세이상인구 10억중 8억명이 이들 국가에 있게될것이라고 예견했다.

따라서 케리간은 아시아에만도 4억명의 노년층이 거주 사회적으로 이들을 흡수할 체제가 시급히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균수명연장으로 늘어난 노년층을 의자에 앉아서 쉬라고만 하는것은 마치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조금도 다를바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적합한 일거리 확보와 노인연금확대등이 각국정부에 의해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케리간은 말했다.

金聖鍾 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4>

어떤 情事 ⑭

그녀가 잠들자 사나이는 수첩을 꺼내…

「그는 도대체가 지칠줄을 모르는 사나이 같았다. 그리고 기교 또한 뛰어났다.

문자는 몇번씩이나 자지러진 끝에 마침내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이제 그만…이제 그만…」

하고 중얼거렸다.

"화합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 자체만을 놓고 볼때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남녀의 화합처럼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런데 관습과 도덕이라는 것이 있어 그 아름다움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인간의 욕망은 진화하지 않고 원시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럽히려는 인간의 노력은 부단히 계속되고 있다. 이 모순과 위선을 당신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녀는 어둠 속에서 남편을 향해 물었다. 남편 한기수는 말없이 노려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그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너는 남편과 자식이 있는 유부녀의 몸으로 외간 남자와 간음했다! 그것은 죄악이다! 너는 죄값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 그녀는 대답한다. "네, 좋아요. 변명하지는 않겠어요. 값을 받으라면 받겠어요. 그러나 저는 저의 행동을 죄악시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죄악이 아니라 욕망에 충실한 한 여자의 정직한 반항이었을 뿐이에요. 비웃지 마세요. 흥, 간음이라고요? 위선자들은 묘한 말도 만들어 놓았군요. 당신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마음속으로 나마 외간 남자들과 간음하고 있는지 모르실거예요. 그들은 마음 속이 아닌 실제로 간음하고 싶어하고 있어요. 그러나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차마 간음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얼마나 용기 있는 여자인가요. 마음속의 간음은 죄가 아닌가요? 당신, 저를 돌로 치시겠어요?"

그녀는 얼핏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다. 사나이는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창가에 우뚝 서있는 모습이 흡사 조각 같았다. 미동도 하지 않고 바다를 응시하고 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름다운 몸이다. 저 육체를 완전히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을까.

그녀는 너무 힘이 빠져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었다.

「이름이 뭐예요?」

그녀는 침대 속에 얼굴을 박은 채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말해줘요.」

「모세라고 해요.」

「모세? 성경에 나오는 모세?」

「아뇨. 털모(毛)에 세상세(世)자를 써요.」

「묘한 이름이네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따서 지은 이름 아니예요?」

「그런 전 잘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어서 자요.」

「당신은?」

「난 잠이 오지 않아요.」

「몇살이에요?」

「서른즘 됐을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어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나이도 모르세요?」

「확실하지 않아요.」

「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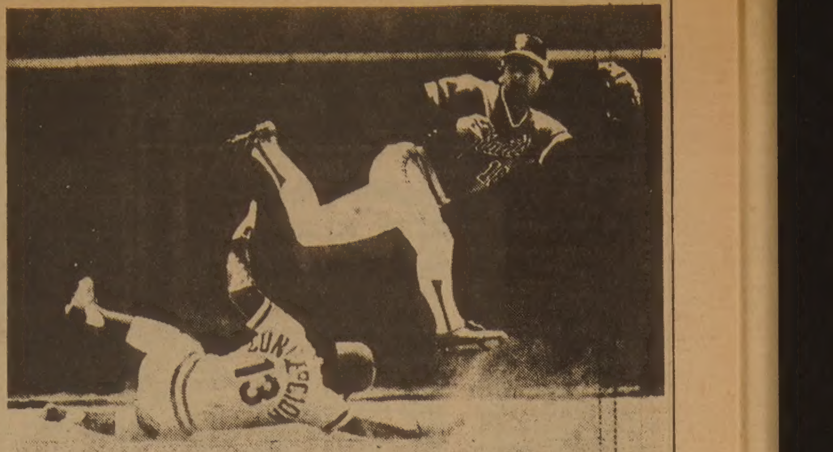
그 다음 부터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몇번 더 묻다가 잠이 들었다.

여자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듣고 그는 가만히 움직였다. 탁자 위에 놓여있는 핸드백을 들고 욕실로 들어가 불을 켰다. 핸드백을 열었다. 신분증을 꺼내 눈에 익을 때까지 들여다 보았다. 도로 집어넣은 다음 수첩을 꺼냈다.

朴 男 그림

美프로야구 입장객 年6천만명

레귤러시즌 4월~10월 온美國이 熱狂



기계처럼 시달린 市民위안 홈런등 극적인 妙技속출로

야구의 본고장 미국에서는 레귤러시즌이 시작되는 4월초부터 월드 시리즈가 끝나는 10월하순까지 7개월동안은 온통「야구열광」으로 들뜬다.

작년 한해동안 야구장을 드나든 팬만도 무려 6천만명(야구 커미셔너 사무국통계)이 된다. 여기에 TV나 라디오를 통해 프로야구를 관전한 인구를 합치면 미국민 대부분이 야구경기를 지켜본 것으로 추산된다. 그열기를 가히 짐작할수있다. 미국에 프로야구단이 창설된것은 1869년으로 현재의 신시내티·레즈의 전신인 신시내티·레드·스토킹즈가 효시이다. 그뒤 시카고 컵스등이 생겨나 미국독립 1백주년이 되는 1876년에 지금의 내셔널 리그가 먼저 결성됐고 그후 1901년에 아메리칸 리그가 창설되어 1903년 양측 챔피언이 겨룰하는 월드 시리즈의 전통이 세워지게 됐다.

현재 미국의 프로야구팀은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구분돼있는데 마이너리그팀은 모두 1백10개팀이 있으며 3개조로나뉘어 경기를 벌인다.

마이너 리그의 경기방식은 트리플A 더블A 싱글A등 실력차로 구분된 3개조로 편성, 각기조대항리그전을 펴고있다.

1년에 마이너리그선수중에는 우수한 선수10명정도가 메이저리그에 발탁된다. 그만큼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와의 실력차는 크다하겠다.

메이저리그는 내셔널리그 12개팀 아메리칸리그 14개팀등 모두 26개팀으로 편성돼있다.

한팀의 소속 리그에서의 총 게임은 모두 1백62게임이 되는셈이다.

9월하순 정규리그전이 끝나면 10월초부터 각 지구우승팀 즉 내셔널리그의 동부지역 우승팀과 서부지역우승팀이 5전3선승제의 플레이오프로 내셔널리그 챔피언을 뽑고 아메리칸리그도 같은 방식에 의해 챔피언을 결정한다.

이들 챔피언들이 자웅을 겨루는 결전을 월드시리즈라고 일컫는다.

미국프로야구가 이처럼 미국시민을 열광케하는 원인에 대해 로스엔젤스·다저스의 구단주 오맬리씨는 『기계적인 생활속에 시달리는 미국시민을 충분히흥분시켜주는 극적인 묘기가 속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50개주로 형성된 미국의 지형에 연관된 주대항지역감정이 이에 합세하기 때문인것같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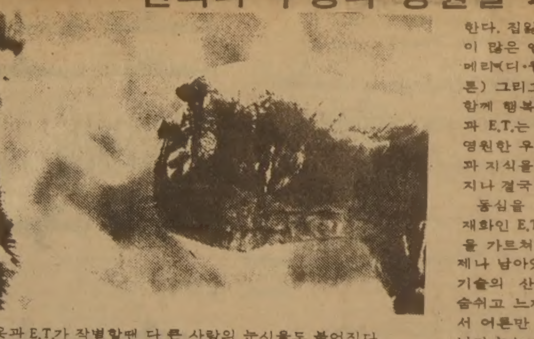
5, 6만명의 관중을 수용할수있는 대형야구장을 비롯, 영화배우를 능가하는 스타선수들이 배출하는묘기. 거기에다 TV화면을 통해 관중을 동원하는 상술이 합세하여 미국시민들을 흥분시켜놓고만다.

81년도 월드시리즈의 챔피언을 차지한 로스엔젤스·다저스팀의 연간수입이 3천5백만달러에 이르는것을 비롯, 연봉 2백만달러이상의 선수들이 4~5명이 되는가하면 연봉 1백만달러 선수들은 무려 20여명이 되는것만 보아도 미국의 프로야구가 어느정도 기업성을 띤것인가를 알게 짐작할수있다.

미국 프로야구선수들은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이 많은 구단에 자유로이 옮겨다니는 경우가 많다. 작년도에 뉴욕·양키즈의 4번타자로 홈런왕 칭호를 받았던 레지·잭슨(34)은 올해에는 연봉 60만달러를 받기로하고 캘리포녀·엔젤스로 이적했다.

새 映画　외계인

신뢰와 우정과 영원을 가르쳐주고…


▲엘리옷과 E.T.가 작별할땐 다른 사람의 눈시울도 붉어진다.

꿈이 현실화 됐을때 경악하고 꿈과 현실이 한데 어우러져 들려주는 평화로운 얘기에 가슴마저 젖는다. 꿈을 파는 마술사 스티븐·스필버그가 베푸는 동심의 잔치「E.T」는 우리를 깊이 취하게 만든다.

스필버그의 별밤이 떠오르며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어느 한적한 교외의 숲속에서 작은 키에 큰 눈을 갖고 주름투성이인 E.T.들이 열심히 식물채집을 한다. 이때 꿈꾸길 잊은 어른들이 달려들고 이에 놀란 우주선은 홀로 떨어진 E.T.의 비명소리를 남기고 도주한다. 집잃은 E.T.가 찾아간 곳은 유난히 꿈이 많은 엘리옷(헨리·토마스)의 집. 어머니 메리(디·윌리스)와 형 마이클(로버트·맥너튼) 그리고 여동생 거티(드류·배리모어)와 함께 행복하나 꿈을 꾸기에 외로운 엘리옷과 E.T.는 오래전 헤어졌던 벗이 재회하듯 영원한 우정을 맺게된다. 좋은 믿음과 사랑과 지식을 나누며 아깝도록 즐거운 때를 가지나 결국 꿈은 떠나는것.

동심을 가진 자에게만 찾아오는 꿈의 현재화인 E.T.는 우리에게 신뢰와 우정과 영원을 가르쳐주고 떠나면서「나는 네 안에 언제나 남아있다」고 깨우쳐 준다. E.T.는 비록 기술의 산물이지만 작품에서 엘리옷처럼 숨쉬고 느끼고 만지고 말하며 괴로워하면서 어른만 되어버린 모든 사람에게 한까지 남겨 놓는다.

그가 푸어스에 취할때 함께 웃고 그가 인간 세상에 오염되 병들었을때 함께 고통하고 그의 부활에 탄성과 박수를 보내며 또 그가 무지개를 그리고 떠날때 눈시울이 붉어지는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동심의 편린이라도 남아서 일까. 엘리옷의「함께 있자」는 부탁에「집에 가고 싶다」는 대답은 꿈과 현실이 함께 있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나 꿈은 어린이에게만와 홀연 떠나지만「현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스필버그는 정력을 쏟아 감동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리틀 야구=

82년7월3일(토)
코로네이션·파
70년1월1일이후 출생 자녀.
교회팀, 한글학교팀, 지역팀들 출전함.
연락처 : 한국일보사
전 화 : 533-2361

교민친선축구대회

주장회의

7월3일 오후8시
체육회 사무실(미도파백화점 2층)

금번 축구협회에서는 하기와 같이 교민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가하시어대회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1982년 7월10일 오전 9시
◉장 소: Centenial Park
◉참가비: 청소년($50) OB 30세이상($70)
◉신청마감: 1982년 7월3일
◉연 락 처: 총무-권성웅 (752-6023)
경기-박원모 (424-2439,922-2127)
◉시 상: 청소년 1, 2, 3, 참가상
OB팀 1, 2, 3, 참가상

※본 협회는 5월29일부터 매주 토요일 하오4시 토론토 서니부룩·파 구장에서 축구규칙, 기술등을 무료로지도함. 팀또는 개인, 남녀노소 불문.(연락처: 신강용 251-6578)

후원 : 한인회 체육회
캐나다축구협회

DOMINION SMALLWA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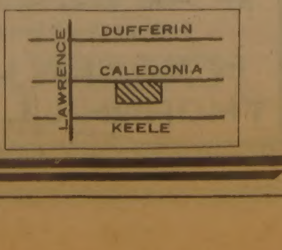
Cash & Carry 에 한함

June 28 - July 10

		SPECIAL
Y & S Twizzlers	60x10¢	$ 2.75 per box
Buy a Case (12)		2.65 per box
Y & S Twizzlers	24x40	6.39
Vicks Prepack	6x20x40	29.55
Tootsie Pop Top	50x10	2.40
Sweet Tarts	48x10	3.16
Giant Tarts	36x10	2.37
Dare Peg Top Candy	12x1.39	9.80
Allen's Big Foot	100x.5	2.89
Allen's Ribbons	48x10	2.89
Allen's Laces	60x.5	1.79
Taveners Tin Candy	1x1.95	1.19
Life Saver Bubble Yum (orange only)	18x30	3.09

약간명의 세일즈 맨을 모집합니다.
(가게를 경영해 보신 분은 더욱 환영함)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제8회
정기총회에관한 공고

경희동문에서는 제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가족동반 많은 동문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7월10일 저녁 8시
★장 소: Choi's Restaurant
(Kennedy + Eglinton E.)
★참 석: 경희동문 전원 부부동반
★비 용: 동문회에서 제공

◉연락처: 532-2377 Mrs. 최
924-5155 Mr. 박
278-9700 Mr. 이

경희동문회장 이정호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수 론〉

인류종말이냐, 군비 축소냐②

강 신 봉(한인연합회 이사장)

미·소 핵무기의 비교

◇강신봉

미·소 양국은 원자탄, 수소탄,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중성자탄이란 고도의 핵무기 생산에 주력을 쏟아 왔지만 실토 핵전쟁이 발발하였을 때에 승부를 따지는 것은 그 폭탄 자체의 위력보다도 그 핵탄두를 목표하는 지점에 얼마만큼 정확하고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실질적인 경쟁의 대상이 되고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핵탄두를 수송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에 겨누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어떤 미사일이 더 정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미·소 양국의 최신형 대륙간 탄도탄은 정확한 목표지점으로부터 약 200m 적중률을 가지고있다고 하니 거의 완벽한 미사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련이 배치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탄 SS19은 약 35분이면 워싱턴을 파괴시킬 수 있는 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 새로 개발하여 배치가 거의 완료된 SS20는 그보다 더 빠른 것으로 예상된다.

미사일에는 다소의 성능이 다른 핵탄두 여러개를 적재하는 다탄두 미사일이 있고, 단순한 파괴를 목적하는 대형 단일탄두 미사일이 있는데, 소련의 대륙간 탄도탄은 거의가 다탄두이며, 미국의 대륙간탄도탄 Minuteman II는 단일탄두이다.

핵무기는 운반기구의 적용 또는 배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1)잠수함~잠수함은 핵탄두의 운반및 공격에 있어서 안전 용이하고, 적의 기습을 받을 염려가 비교적 적으므로 미·소 양국은 근래에 와서 적극적인 핵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특히 소련은 잠수함의 숫자에 있어서 미국의 배를 능가하고 있으며, 대서양및 태평양에 무서운 세력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60여대의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약 600개 미사일을 적재하고 있고, 약 5000개의 핵무기를 다탄두로 장전하고 있다. 소련은 133대의 잠수함에 900여개의 핵탄두를 장전하고 있는데, 대서양에 있는 소련잠수함이 일시에 미국동부지구를 공격한다면 뉴욕이나 워싱턴등 대도시는 12분이면 핵공격을 받게된다고 한다.

(2) 대륙간탄도탄(ICBM)~잠수함에 배치된 핵폭탄이 비교적 소형인데 비하여 대륙간 탄도탄의 미사일은 대형이고, 절대적인 파괴능력을 가졌다고 보겠다. 메가톤급의 핵무기를 운반하는 이 미사일은 한방이면 한 도시를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유럽이나 미본토에 배치한 미사일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450개의 단일탄두 minuteman II와 550개의 다탄두 minuteman III를 배치하고 있으며, 종전의 재래식 Titan ICBM 52개를 폐기시키는 반면 Cruise Missile을 개발하여 유럽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특수 미사일 MX 미사일 200개를 제작중에 있기도 하다.

소련은 북미와 유럽을 주로 겨냥하여 1,398개의 미사일을 본토에 배치하였는데, 이들은 약 5,500기의 핵탄두를 적재하고 있다. 소련은 308개의 다탄두 SS18, 300개의 다탄두 SS19, 그리고 150개의 단일탄두 SS17을 적소에 따라 배치하고 있는데, 근래에는 최신형 SS20을 280기나 개발하여 배치 완료하였다고 한다. 이는 5,500km의 사정거리로 유럽의 전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3) 장거리 폭격기~고성능 대륙간탄도탄의 개발로 인해 장거리폭격기에 의한 핵탄두 운반은 비교적 시대에 뒤진 감이 있다. 그렇지만 저공비행을 통해 상대방의 레이다망을 피하거나 지리적으로 특수한 지역을 정확히 파괴시키는데는 장거리폭격기가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미·소 양국은 종전의 폭격기를 계속 핵탄두로 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B-52 장거리폭격기 34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련은 156대를 유지하고 있다.

핵무기의 전반적 추세로 보아 잠수함과 대륙간 탄도탄은 소련이 훨씬 우세하며, 장거리 폭격기는 미국이 우세한 편이다. 전체적인 대비로 보아 핵탄두의 숫자는 미국이 많으나 그 용량으로는 소련이 미국의 2배에 해당된다. 시간적으로 반시간이면 상대방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입장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근래에 미국은 Cruise Missile및 MX Missile과 BI 폭격기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차 세계적인 핵무기 반대운동에 봉착하여 물러서자니 핵무기 열세에 몰리게 되고, 나아가자니 핵전쟁 도발자의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계속)

미·소 전략무기 비교

미국

—잠수함발사 탄도탄(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600기—5,000개의 핵탄두(warhead)를 장치, 37척의 핵미사일 잠수함에 실려있다. 1척에 24기의 트리덴트 미사일(Trident Missile)을 보유한 오하이오 클래스 잠수함 8척을 건조중.
—미닛맨 II 대륙간탄도탄(Minuteman II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450기—각각 1개의 탄두 보유.
—미닛맨 III 대륙간탄도탄(Minuteman III ICBM) 550기—각각 3개의 다핵탄두 미사일(MIRV) 보유.
—타이탄 단1탄두 대륙간탄도탄(언제든지 행동가능케 정비) 52기—곧 철거예정.
—B—52 장거리 폭격기 348대
—MX이동미사일 200기—주문중.

소련

잠수함발사 탄도탄 950기—1,900개의 핵탄두가 있으며 133척의 잠수함에 장치.
—대륙간탄도탄(ICBM) 1,398기—6,500개의 탄두보유,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1기에 8~10개의 다핵탄두 미사일(MIRV)을 보유한 SS18 중미사일 308기 : 6개 탄두를 보유한 SS19 미사일 : 4개탄두를 보유한 SS17 미사일 150기(1개 미사일이 여러개의 목표물을 동시 공격함)
장거리 폭격기 156대

◀독자의 광장▶

태극기 바람에 날리고

손 승 웅 (스카보로=토론토 거주)

토요일 아침이면 우리집 두아이들은 다른 어느때 보다도 일찍 일어난다. 덕분에 모처럼 밀린 아침단잠을 번번이 놓치고 만다. 이상할 정도로 우리집 남매는 일주일에 한번 가는 토요일한글학교를 무척 좋아한다. 오늘 아침에도 예외없이 일찍 일어나더니 한국동요부르기를 잊지않았다.

나는 주말이라는 푸근한 마음에 전날 밤에 늦게까지 T.V.앞에서 서성였던 탓인지, 닷새동안의 피로가 긴장의 해소와 함께 내려놓인 탓인지 귀는 시끄러워도 도저히 눈을 뜰수가 없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레코드판이 제자리 걸음하듯 다음 귀절을 계속하질 못하고, 연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만을 복창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침대에서 가벼운 책임같은 것을 느꼈다. 발음도 고쳐주고, 다음 귀절을 가르쳐줄 뜻으로 아이들 곁에 앉았다. 몇번을 아이들과 같이 부르고, 또 따라 부르는데 갑자기 딸애가 "아빠, 왜 아이들이 손을 이렇게 해요?"하면서 자기손을 가슴에 얹는 시늉을 했다. 나는 이 어린 6살짜리 딸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야 좋을지 잠시 망설였다. 다음 질문을 예상하며 간단하게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는 거란다"했더니, "경례가 뭐예요?"

"인사하는 것이란다."

"왜 국기를 보고 인사를 해요?"

나는 답해주고 이해시키는데 우리말과 영어를 동원해야만 했다. 애는 알아들은 표정을 하더니 유치원 1년짜리 남동생을 불러놓고 부동자세로 O'Canada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화창한 초여름 기운을 자아내는 햇빛이 북향 아파트창에 잔광이 되어 스며들어 왔다. 아이들이 부르는 O'Canada 노래소리가 금년에는 유난스레 늦게 찾아온 초여름 아침공기를 타고 스며나가는것 같았다. 소파에 깊숙이 앉아서 O'Canada보다는 친근감이 짙고 부르기 편한 애국가를 휘파람으로 날려보며 잠시동안 갖가지 크고 작은 근심도 잊어본 아침이었다.

얘기의 샘

홧술(酒)

얌전한 사람으로 알려진 투그란씨가 웬일인지 요즘 홧술을 마시게 됐다.

오늘밤도 연속 술을 퍼마시고 있는 투그란씨에게 바텐더가 근심스런 얼굴로 물었다.

『사장님, 그렇게 모시면 몸에 해롭습니다. 무슨걱정이 생겼읍니까?』

『여편네때문이야! 그년이 바람을 피우고있어! 그래서 난 권총을 사가지고 여편네에게 물이 됐지. 놈팽이는 누구냐? 연놈을 몽땅 쏴죽이겠다고 말야. 그랬더니 여편네가 뭐라구 했는지아나?』

『글쎄요. 정면으로 대드셨나요?』

『그래, 맞았어』

투그란씨는 분해서 눈물이 핑돌면서 말을 이었다.

『그거 6연발 권총이죠. 그걸론 안될거야요. 차라리 머신 건(自動銃)을 준비하는게 나올거야요』

얘기의 샘

거적과 이불

옛날 중국의 어느선비가 하도 가난하여 이부자리를 마련할 수 없어 온가족이 거적을 뒤집어쓰고 자야만했다.

언제나 예절은 정치하여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남들앞에서 『우리는 거적을 덮고잔다』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화가나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면서

『너, 이제부턴 남들이 물으면 이불을 덮고잔다고 말해야한다. 알겠느냐?』

라며 다짐을 받았다.

그런데 어느날 손님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손님을 맞으러 나가는데 수염에 거적지푸라기가 붙어있는걸 보고 아들이 뒤에서 주의를 시켰다.

『아버지, 수염에 이불이 붙었어요.』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중앙동창회

야유회및 야구시합

일 시 : 1982년6월26일(토)오전9시
장 소 : Centennial Park

연락처 : 김명정(652-0370)
참 조 : 불갈비정식및 음료수는 동창회에서 준비함.

첫게임 : 중앙 : 경기상고
중앙 : 휘문

중앙, 중앙, 이기자!

동창회장 윤택순

Family Products Distribu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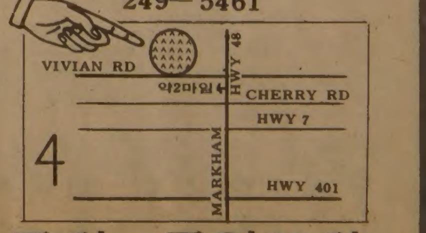
저희는 각소매 스토어, 식당, 각회사들에게 Family Products(예 : 화장지, 비누, Garbage bag등등)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도매상(Cash & Carry)보다 대개 가격이 낮으며 원하시는 즉시 배달해드릴수 있읍니다.

새품목 소개 MASTER SHAMPOO
★오셔서 보시고 Pick-Up하시거나 무료배달 합니다.
★무료배달시는 주문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품목 : Paper Towels, Facial Tissues, Bathroom Tissues, Detergent, Gerbage Bags, Soop, Diapers, ETC…
87 GREEN LANE UNIT 10
THORNHILL 889-9757, 366-7093

여름가족 수양회

강 사 : 한진관 목사(뉴욕퀸즈한인교회 담임)
기 간 : 1982년7월7일(저녁 7시~7월11일아침)
장 소 : PINE ORCHARD CAMP
연락처 : 961-8361, 249-5461



주최 : 중앙교회

한국일보
우리의 理想은 健全한 新聞

旅券발급 地方官署에 위임

내년부터 釜山·大邱·全·南北등 8개市道 실시

정부는 旅券발급업무를 83년부터 단계적으로 地方官署로 위임한다는 계획아래 1단계로 釜山및 大邱직할시, 江原 忠南北 全南北 濟州등 8개지역은 내년 1월1일부터 서울 仁川 京畿 慶南北등 나머지 5개지역은 84년 1월1일부터 地方廳(市廳 또는 道廳)으로 移讓키로했다.

외무부가 마련, 22일국무회의를거친 「旅券발급업무 地方委任案」에 의하면 외교관및 官用여권을 제외한 모든 일반여권의 발급과교부, 記載사항변경및 반납업무를 84년부터 지방관청으로 완전위임하며 위임후 외무부여권과는 외교관및 官用여권발급과 在外국민의 여권발급업무 및 여권발급에 관한 중앙統制기능업무만을 수행하기로 되어있다.

외무부는 또 여권발급의지방위임에따라 여권신청을 申請人의 주거관할 地方廳에서 접수하는것을 원칙으로하되 신청인의 편의에따라 외무부 또는 出시방청에서 신청할수 있도록 할방침이다.

이와함께 여권발급업무와 관련되는 중앙관계부처의 허가업무중▲문교부소관의 「留學認定」(國費유학생및 외국기관의 장학생제외)은 市道교육위원회로▲병무청의 「兵役미필자 해외여행허가」는지방병무청으로▲노동부의 「國外就業허가」(외국業體및 국내用役業體의 送出허가제외)는 지방사무소로 각각 위임토록 관계부처와 협의를끝냈다.

이 여권발급 지방위임안은 또▲보사부 소관의 「해외이주허가」는 각지방 이주알선법인체 支社에서 수속으로代行하며 이주허가후 여권발급은 지방청에서 맡도록했으나▲科技處 소관의 「기술연수생」의 경우는 국제기구및 외국정부와의 관련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적차원에서 효율적인 人力수급관리를위해 지방위임은 어려워 외무부에직접 신청토록했다.

외무부는 여권업무의 지방위임에따라 지방청에 電算터미널을 설치, 現외무부 여권과의 電算機와 연결운영하며 외무부의 호스트 컴퓨터는▲▲여권발급의 기록보존▲행정制裁대상자확인▲사실확인▲檢索및 관계부처와의 협조등 중앙통제기능을맡게된다.

외무부는 이와함께 신원조회의 電算化를 위해 치안본부와 협의중인데 치안본부는 오는 7월1일부터는 行政制裁대상자의 확인업무를 電算化하고 83년1월1일부터는 身元照會업무도 전산화할 예정으로 있으나 완전電算化가 불가능할때 신원조회를 현행제도대로 운영하되 처리기간을 단축키로했다.

즉 신원조회처리기간단축방안으로는▲신원조회를 의뢰할때 경찰遞送으로 신원진술서를 地方廳 市道警→치안본부로 의뢰하고▲결과回報의 경우 電算처리를통해 신원조사 回報를 치안본부→外務部→地方廳으로 보내기로했다.

치안본부는신원조회업무가 완전전산화된후에는 네거티브·시스템의 채용을 고려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방청에서의 여권업무 담당자들은 지방공무원으로 補하되 이들의 급여는 외무부예산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여권업무를 지방으로 위임하기에앞서 여권법과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 「여권 발급업무지방위임案」의 내용을삽입할계획이다.

漢江 「물의公園」으로 만든다

直江化계획 확정 9월着工

江邊에 산책·體育시설

88올림픽대비 江邊路 高速化도
서울 4개都心·18개 生活圈으로

자연상태의 漢江하상을 정리하고 저수로를파 직강화(直江化)하는 내용의 漢江종합개발사업이 오는9월 착공된다. 金聖培서울시장은 22일 기자들과만나 「80년대 市政계획」을 발표, 漢江개발과함께 하수처리장건설사업을 병행함으로써 漢江수질을 향상시켜 「맑은漢江 깨끗한 서울」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漢江개발사업은 하상의 요철곡부분을 정리하고 강변에 고수부지를 조성, 산책로및 체육·위락시설을 갖추는한편 한상 푸른물이 흐를수 있도록 「물의공원」을 만든다는것을 골자로 서울시는당초 江·南北양안에 고수부지를 조성하려던 계획을 江南에만 조성키로하는대신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병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현재의 단핵도심체제를 永登浦 永同 蠶室등 4대도심권을 조성, 다핵도시화하고 서울시내를 18개 생활권으로나눠 편익시설을 배치하는 도시기능의현대화등 시민생활적분야에 걸친 대책을 마련했다.

전구간에 걸친 기본설계·조사측량을 83년3월까지 마칠 계획인 漢江개발중 오는 9월 착공되는 구간은 전체 사업지역 36km(幸州대교~岩寺洞)의 7분의1에 약간 미달되는 5km로 제1한강교~盤浦대교~서울대교의 1·5km등으로 오는 85년까지 마칠 계획.

元曉대교~서울大橋는 폭 8백m 수심2·64m로 계획돼 있으나 제1한강교~盤浦대교는 유량이 보다 많아 0·75m만 굴착, 하폭을 7백m로 계획하고있다.

서울시는 漢江의 하폭을7백~8백m, 수심2·5m이상으로 저수로를정비하고 공원시설 81만평 조지 1백4만평등 모두 1백85만평의고수부지를 조성키로했다.

이와함께 제2한강교~千戶대교26km의 江南路를 현재의 16~18m에서 25m로 확장, 4차선 고속화함으로써 88올림픽에 대비, 도심 교통을 고속화하기로했다.

漢江개발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하상의 골재를매각해 충당할 계획으로 전체사업지구의 골재 9천㎥중 70%정도가 쓸수있는 것으로 판단, 1천6백억원의 사업비를 잠정계상하고 있다.

한편 漢江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지역하수개념을 도입, 하수처리장건설이 병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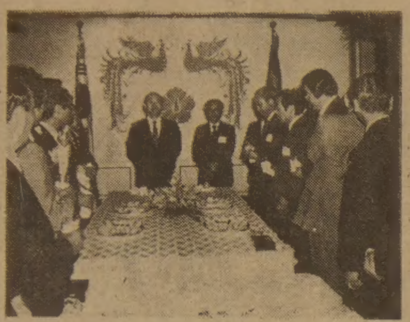
서울시는 2천년대까지의종합하수처리대책을 마련하고 淸溪 中浪 炭川등의 하수처리시설을 오는 86년까지 현재의 하루 90만톤에서 1백26만톤으로 늘리는 한편 炭川53km 淸溪·中浪川92km등 1백45km에 차집관거(遮集管渠)시설을 하기로했다. 사업비는 차관등 1천7백33억원을 계상하고있으며 올해기본계획수립에 10억을 투입하고 江南區逸院洞 16만평중 4만평에 이르는 炭川처리장부지를24억에미매입했다.

한편 漢江개발을위한 수리(水理)모형실험은 모두 4차로나뉘어 실시되는데 현재 20%의 진척률을 보이고있으며 84년3월까지 마무리될계획이다.

漢江개발이 생태계등에 미칠 영향등을 미리조사하기위한 이실험은 2억여원의예산으로 서울大 安守漢교수(수리학)팀이 맡아 사업지역전체를 평면으로 2백분의1、높이 1백분의1로 축소、요는 8월부터는 홍수위(洪水位)까지 물을 흘려보내는등 실험을통해 중·하류의 하상변화 고수부지에 미치는영향 및사행천(蛇行川)구조로된지역의변화등을검토하게된다.

서울시관계자는 이 실험이 진행중인 9월에 착공되는 구간은 이미 지난75년 건설부에서 모형실험한 일이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작업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日本의경우 요도강(淀川)하천 공원계획을 수립、72년부터 81년까지 10년동안 大阪~京都의 40km 폭7백m를 직강화하고 폭3백m의 저수로를 조성하는한편 2백47만평의 고수부지를 건설했는데 서울시의 漢江개발은 이계획을 많이 참조했다는것이다.



전국 商議會長團 全대통령이 접견

全斗煥 대통령은 22일하오 청와대에서 鄭壽昌대한상공회의소회장과 崔鍾賢水原상공회의소회장등 전국상공회의소신임회장단 48명을 접견하고 다과를 베풀며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金東輝상공부장관이 배석했다.

베이루트 總攻擊펼듯

이軍、레바논休戰깨고 砲擊재개

【예루살렘22日AP=聯】베긴 이스라엘 수상은 레바논사태의 현교착상태를 타개하기위해 조만간 베이루트공격명령을 내릴것같다고 예루살렘의 관측통들이 21일 예언했다.

●베긴수상은 앞서 지난20일 미국에서 이스라엘은 베이루트를 장악하거나 야세르·아라파트PLO의장 (팔레스타인해방기구)을 체포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바있다.

예루살렘의 관측통들은 베긴수상이 조만간 아마도 訪美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하는대로 베이루트소재 PLO게릴라들을 소탕하자는 샤론국방상의 건의를 받아들일것 같다고 전했다.

샤론국방상은20일 『시간은 PLO편에 있다. 그들은 군사및 외교적 지위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었다.

【베이루트21日AP=聯】이스라엘은 21일0시(현지시간)를 기해 서부 베이루트에 적절한 지상포화및 함포사격을 재개함으로써 지난18일부터 발효된 휴전을 사실상 와해시켰으며 이날 이스라엘의 포격으로 베이루트주재 소련대사관에 건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됐다.

레바논 언론과 군사소식통들은 이스라엘이 20일밤 21일 아침까지 거의 쉴사이 없이 서부 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 거점과 민간인 거주지역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한 팔레스타인병원과 민간인들의 아파트를 포함 다수의건물이 파괴되고 1백여명의 사상자가발생했다고 전했다.

한편 소련관영 타스통신은 이스라엘軍이 쏜 포탄이 대사관 바로 인근에서 폭발, 대사관의 일부 부속시설이 파괴됐다고 경고했다.

日에 새 經協代案제시

李外務、前田日大使에 協商 조속再開촉구

개발協力기금·商業借款증액등 強力요구

李範錫외무장관은 22일 마에다·도시까즈(前田利一)駐韓일본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韓日經協의 再開를 촉구하는 한편 한국측의 새로운對應案을 제시했다.

이날 상오 외무장관실에서 40분간 열린 요담에서 李장관은 『經協문제가 조속히 타결되는것이 양국의 우호관계와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후 『일본정부는 하루속히 經協문제에 관한한국측의입장에성실하고진지한자세로 응해주길 바란다』고말했고 마에다대사는 『한국측의 뜻을 즉각 본국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요담에 배석한 崔東鎭 亞洲국장은 『李장관이 經協문제를 조속하고 원만히타결하기 위해 이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한 새로운 구상을 마에다 대사에게 전달했다』면서 『장관이 바뀌었다고 原案의 내용이 크게 변할수는 없는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李장관이 제시한 새로운 代案의 내용은 즉각 밝혀지지 않았으나 한국측은 金利가낮고 차관조건이 좋은 ODA(정부개발협력기금)를 增額해줄것과 일본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는 상품차관의 폭을 크게 늘려줄것을 강력히 요구한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측은 작년4월 귀임한 스노베(須之部量三) 前駐韓대사를 통해 円차관 35억달러 상품차관 25억달러등 총60억달러를 ODA조건으로 공여해줄것을 요구했는데 일본측은 지난 4월야나기야(柳谷謙介)외무성심의관을 통해 ODA 15억달러와 JEXIM(일본수출입은행)융자등 포함 25억달러등 40억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한국측의 거부로 經協문제는 그간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李장관이 제시한 새로운 구상은 지금까지에 비해 보다 신축성있고 적극적인 내용이 담겨져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일본측에서도 최근들어 한국이 현실적인 代案을제시할경우 經協문제를 원만히 타결시키겠다는 자세가 되어있어 협상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또 『일본측이 제시한 ODA15억달러 JEXIM25억달러案은 실무자들이 사무선에서 산출한額數에 근거를두고 있기때문에 정치적타결의 여유는남아있다』면서 再開되는 『經協교섭이 원만히 진척될경우 7월중순이나 늦어도 8월초순에는 사쿠라우치(櫻內義雄)외상이 한국을 방문, 정치적 절충하게 될것으로 안다』고 전망했다.

◇李範錫외무장관(中央)이 韓日經協에 대한 새로운 對應策을 제시, 협의를 끝낸뒤 장관실을 나서는 마에다(前田) 日本대사를 지켜보고있다.

수하르토 10일 訪韓

印尼정부서 밝혀

【자카르타22日AP=聯】수하르토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는10월 한국을 비롯한 수개국을 방문한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22일 말했다.

이 소식통은 수하르토 대통령이 오는 10월7일 첫 방문국인 스페인으로 떠나며 11일 두번째 방문국인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히고 미국방문을마치고 귀국길에 한국과 일본을각각방문할 예정이나 방문날자는 아직 확정되지않았다고 말했다.

全斗煥대통령은 작년 5월 아세안(東南亞국가연합)회원국순방중 자카르타에서수하르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갖고 수하르토 대통령에게 한국을 방문해주도록 초청한바있다.

民主化개혁추진 機構구성

民韓、李·張사건眞相조사 特委도

民韓黨은 22일 黨務會議에서 時局수습방안과 관련、柳致松총재가 청와대 회담에서 제의한 선거제도개혁등 民主化방안을 추진하기위한 機構와 張여인사건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했다.

金珍培대변인은『이날회의에서는 민주화 개혁을 위한 기구와 李哲熙·張玲子부부사건진상조사 特委구성의 구체적인 방향은 總裁團에게 一任했다』고 밝히고 『민주화개혁을 위한 기구는 민주화개혁委 또는 선거법개정委등 어느쪽에 될지 未定이나 기구구성의 목표는 평화적정권교체를 위한 토대구축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이어 張여인사건 조사特委문제는 지난번 당무회의에서 국민당、議政同友會와 함께 野圈공동으로 구성하자는 …가있었으나 청와대회담뒤로 미루었던것」이라면서 野圈공동의 조사特委구성문제는 원내총무에게 위임됐다고 밝혔다.

이날회의는 또 유가引責改閣과 정치被規제자 解禁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조치를 기다려보기로 하는한편국회법과 언론기본법개정문제는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모았다고 金대변인이 전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社會漫評

南高 北低

地平線

영국의 전성기인 1838년부터 64년이나 왕위를누린 빅토리아여왕이 아직 왕위계승권자로 있었을때 격하기 이를데없는 가정교사가있었다.▼紅茶는 심장에나쁘니 마시지말고, 타임즈는 정부를 비판하는기사를 쓰니 읽지말라는것이 가정교사의 타이름이었다. 빅토리아여왕은 29살때 호화스런대관식을 끝내자 곧장 시종에게 홍차와 타임즈紙를 가져오도록명령했다. 하나 여왕은 그것을 눈앞에 가져왔는데도 차를 마시지도 타임즈를 읽지도 않았다。여왕은 자기가 정말 권력을가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싶었을 따름이었다는 것이다。영국왕실의 엄격함과 권력의 위대함을 말해줌이다.▼다이애너황태자비(20세)는 이 영국왕실의 왕위 계승서열2위인 3·2kg의 사내아기를 어제새벽 아버지인 찰즈 황태자(33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聖마리아병원에서 순산, 영국은 온통 축제분위기로 떠들썩해졌다.▼옥동자를 낳은 다이애너 황태자비의 인기는 세계적으로 굉장하다. 그가 입은 童話속의그림같은 웨딩드레스나 헤어스타일은 금방 유행했었다.▼한때는 배가불룩한 비키니차림의 사진 소동으로 시어머니인 엘리자베드여왕한테 꾸중을 듣고 사이가 서먹했다는 소문도 떠돌았지만 이제 손자를 보자 엘여왕은 기뻐했다고 외신은 전하고있다。다이애너비는 헨리7세의 16대 直孫이며 영국피가 90·6%로 재임즈1世이래 가장 진하다는것이 영국민들의자랑이기도하다。여태까지 영국황태자의 피의농도는 24·8%였다。영국왕실이 독일、그리스등과 통혼해온 때문이다。▼결혼직후 다이애너비는 왕실의 무거운분위기에 못이겨 괴로와한다는 소식도 곧잘 있었다。날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의정상에 있으면서도 귀찮게 따라붙는 下人이나 경호원에 싫증이나고 지루한 만찬회가 피곤해 못견디어한다는 보도였다。엘여왕이 각종행사에참석해서 하는 연설은 연간40회、열흘에 하루꼴이나 되고 1년에 5만여명을 접견, 이가운데 1만명과 악수를나누므로 하루평균30번 악수하는셈이다。왕실의 관습이란 편안하지만은 않은것을 알수있다.▼엘마전에 영국왕실 전속점성가를자칭하는 러셀·그란트는 이번 태어날 아기는 남자、세례명은 데이비드·조지、두번째 아기는 84년에、자녀는 모두 5~6명이라고 예언한바있는데 우선 일부는 적중한 셈이다。아들은 왕실의 계승자이가 탄생한것은 기쁜일이다。하나 세계적으로 쇠퇴일로에 있는 왕실의 진운을 어떻게 짊어지고 나갈는지는 시대가 흘러가봐야 알 일일것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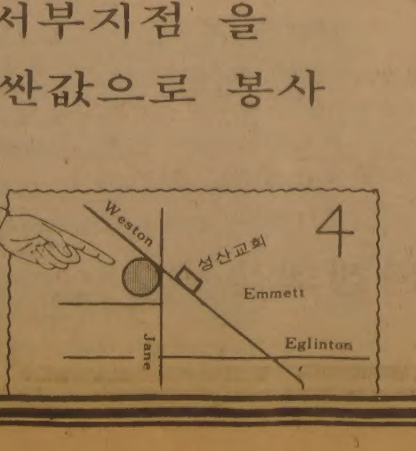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승시
215 Yonge St.
368 7961(B)
690-5217(R)

조 규 혁
종 합 보 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533-2361

인사말씀
7월1일 개업
녹음이 날로 생기를 더하는 약동의 계절, 교민 여러분의 다복을 축원합니다. 이번 저희들은 아래와 같이 "서울식품 서부지점 을 개설하여 친절을 다하고, 싱싱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싼값으로 봉사코자 하오니 많이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김영록 배
서울식품 서부지점 1391 WESTON RD.
☎: 243-9544



美、駐臺灣사무소 閉鎖說

홍콩紙보도 「第2上海성명」論議계기로

【홍콩21日=聯合】 미국은 자유중국주재 美대사관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해온 「駐臺灣미국사무소」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사무소자체를 완전 폐쇄할 계획을 하고있어 美·자유중국관계가 후퇴 또는 악화될 것이라는 풍문이 끈질기게 나돌고있다고 21일 홍콩의 영자신문 사우드·차이나·모닝·포스트紙가 보도했다.

이같은 풍문은 레이건대통령이 자유중국에대한 北京의 입장을 공개승인하고 北京과 워싱턴이「제2의 上海공동성명」의 조인을 논의할것이라는 일련의 보도들에 이어 나온것이라고 이신문은 설명했다.

◇레바논戰場의 美製자주포 이스라엘군 병사들이 21일도하에서 레바논市를 향해 美製 M110자주곡사포를 발사하는순간 귀를막고있다。이 자주포는 승무원13명, 최대사거리 17㎞이며 포탄의 중량은 907㎏。【레바논21日AP電送=聯合】

臺灣 즉각反應…蘇에 醫療陣파견
"필요하면 武器구입도"

레이건행정부의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자유중국이 지난49년 중공본토를 상실한 후 처음으로 18명이라는 대규모 심장병전문의들을 모스크바로 파견하게하는 반응을 즉각 불러왔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지난 72년 상해공동성명의 후속조치가될 상해공동성명 2호는 자유중국에대한 美·中共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해줄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자유중국은 가능한한 미국으로부터의 무기를 필요로하겠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단호』에서도 무기를 구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의사절단의 모스크바 파견은 『자유중국은 소련과 절교 상종하지않을것』이라고 되풀이해온 蔣經國총통의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심장하다.

캄聯政 調印
大統領에 시아누크

【콸라룸푸르22日AP聯合=特】 노로돔·시아누크, 키우·삼판, 손·산등 캄보디아의 3개 저항세력단체 주역들은 22일 콸라룸푸르에서 그들의 母國에서 18만 베트남軍을 몰아내기위한 사상최초의 공산주의자, 親西方우익, 王黨派의 聯政구성협정에 조인했다.

이날 말레이지아 하우스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탄·스리·가잘리 말레이지아外相을 비롯, 聯政 합의를 배후에서 강력히 지원한 아세안(ASEAN) 각국의 외무장관들이 참석, 조인광경을 지켜보았다.

이날 조인된 합의문서에 따라 노로돔·시아누크는 과거 크메르루쥬정권때의 명칭인 민주캄푸치아의 聯政 대통령직을 맡고 키우·삼판은 대외업무담당부통령을, 손·산은 수상직을 맡게된다.

한편 재정, 경제, 국방, 문화, 교육, 내무등을 담당할 聯政의 주요책임자들은 3개 政派를 대표하는 3명의 각료급 인사가 주재하는 4개조 정위원회에서 선출하게된다.

"對이라크戰爭 강행
호메이니、戰費보상등 관철때까지"

【런던21日外電=聯合】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호메이니옹은 21일 이라크의 이란점령군 철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모든 요구조건이 관철될때까지 이라크와의 전쟁을 계속할것이라고 선언했다고 테헤란방송이 보도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이 청취한 이 방송은 호메이니옹이 21개월간 끌어온 이라크군의 철수는 이란·이라크전쟁을 종식시키기위한 이란의 5개항조건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란측이 제시한 나머지 4개항의 요구조건은 ▲전쟁보상▲침략자처벌▲이라크망명반체제인사들의 귀국▲이란군 …

레이건狙擊犯「힝클리」에 無罪評決

◇워싱턴의 연방법원에서 21일열린 공판중 레이건美대통령 암살미수범으로 기소된 존·힝클리가 평결내용을 듣고있는 모습을 한화가가 스케치한것. 배심원은 그가 저격당시 정신이상이었다는 이유로 무죄평결을 내렸다. 【워싱턴21日AP電送=聯合】

美연방배심 "정신질환자"이유

父母、1급변호인·醫師동원 國民분노 식힌후 裁判유도

法院측費用 21억원, 석방은 50일후

존·힝클리재판은 그의무죄를 주장해온 변호인측의 승리로 끝났다. 레이건 美

었다。

이제 힝클리는 미국법에 따라 50일간 정신감정을받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은 평결에 도달하기까지 힘들 리를 사건당시 정신병자로

대통령저격범 존·W·힝클리의 사건을 심리해온 美연방배심원은 21일 힝클리가 자신의행위에대해 형법상의 책임을 질수없는「정신질환자」란 이유로 그에게 무죄판결을 내릴것이다。

사건발생 16개월, 재판 8주만에 내려진 이평결은 레이건 대통령의 목숨을 거의 빼앗을뻔했던 사건당시 만큼 미국사회에 충격을주

은후 그의 재판을 담당한 美연방지법 배링턴·파커 판사의 공판에 참석하게된다.

파커판사는 힝클리가 자신이나 사회에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판단이 설 경우 힝클리의 석방을 명할수 있다. 정신상태가 그때에도 위험해보이면 6개월을 더 연장해서 정신검사를 받는다.

그의 아버지 힝클리1세의 재력에 크게 의존하면서 재판정에 섰었다. 콜로라도에서 석유탐사회사를 경영하는 힝클리1세는 변호사사무소 윌리엄즈 앤드 코넬리社의 저명한 1급 변호사 4명을 고용해서 정신감정·항변서등을 제출함으로써 재판을지연시켰고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려 이성적인 재판이 되도록 유도했다.

지난4월27일 삼엄한 경비속에 재판이 시작되었고 재판이 진행되는동안 증인석에 선 미국일류의 정신과 의사및 심리학자들은 그들의 쟁쟁한 명성으로 국민들을 놀라게하기에 충분했다.

이 마라톤재판에 법원측에서 쓴비용은 무려 3백만달러(21억원)。

일반국민들간에도 힝클리의 정신상태및 재판지연에 대한 사법제도의 비능률비판, 인권옹호론등 갖가지 논쟁이 비등했다.

대부분이 육체노동자 아니면 서기직을 갖고있는 흑인으로 구성된 남자 7명 여자 5명의 배심원들앞에서 로저·아델만검사는 힝클리가 유명인 청년이라고 논고를통해 주장했고 또힌클리는 그가 그것을 계산했든 안했든 실제로 『유명한 이름』이 되었다.

이로써 힝클리는 미국역사상 대통령을 저격했다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세번째 사나이가 된것이다.

70년전인 1912년 밀워키의 선거유세장에서 27대 대통령을 지낸 디어도·루스벨트에게 총격을 가한 한술집주인 존·슈랭크가 그한예이다.

다른 한명은 1835년 거행된 국회의사당의 장례식장에서 7대 대통령 앤드루·잭슨을 저격한 페인트공 리처드·로렌스이다.

참백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피고석에 서있던 힝클리는 무죄 평결이 낭독되는동안 눈을 두손으로 가렸다. 【朴來富기자】

蘇、첫「킬러衛星」실험 성공
發射3시간후 命中

소련은 속공형의 요격위성으로 바꿀수있는「킬러위성」의 첫번째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RKO뉴스가 오늘 보도했다.

미국 정보소식통들을 인용한 이보도에 따르면 소련은 코스모스 1379로 불리는 요격위성을 지난18일 소련의 티우라탐 우주기지에서 SS19 보조로키트에 실어 발사한지 거의정확히 3시간만에 이미 궤도를 돌고있던 목표위성 코스모스1375를 요격해서 전자적으로 「명중」시킴으로써 이번 테스트에 성공을 거두었다. 【뉴욕=UPI】

外信인덱스

시리아 蘇聯에촉구 戰略協力 체결하자

레바논에서 자국군철수압력을 받고있는 시리아정부는 소련에 대해 「전략협력」협정을 체결하자고 촉구한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베이루트=AP】

美 緩衝지대支持 레이건·베긴會談

레이건美대통령은 21일 레바논사태의 평화적 타결을 위해서는 레바논에 주둔중인 시리아군이 철수해야하며 이스라엘국경의 안전에 이바지할 완충지대가 설치되어야한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감명한 지지를 표명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訪美중인 베긴수상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또 레바논에서 폭력을 근절시키고 강력한 주권국가를 이룩해야할 필요성에 동감을 표시했다. 【워싱턴=UPI】

美、軍事우주사령부 창설

미국은 오는 9월1일부터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기지를 두는 새로운 군사우주사령부를 창설할 것이라고 21일 발표했다.

류·앨런 미공군참모총장은 이날 국방성기자회견에서 美공군이 앞으로 우주를 많이 이용하게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따라 공군성內 우주관련부서의 재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워싱턴=AP】

美國防次官후임 리드 前空軍長官

토머스·C·리드前美공군장관이 프랭크·칼루치국방차관의 후임에 내정된것으로 워싱턴·타임즈지가 21일 보도했다. 【워싱턴=UPI】

美·埃관계惡化조짐 5년만에 美비난

무바라크 대통령은 20일 미국의 한 방송과의 회견에서 레바논위기가 중동에서의 미국의 위신에 먹칠을 했으며 이집트와의 관계뿐만아니라 아랍국가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거의 5년만에 처음있는 이집트의 미국비난은 카말·하산·알리외상등 이집트의 고정책입안자들의 워싱턴방문에 뒤이어 나온것이다. 【카이로=UPI】

蘇에 新型超音速機 性能 B1機와비슷

소련은 최근 미국의 B1폭격기와 성능면에서 거의흡사한 새로운 신형 초음속 폭격기를 개발했다고 미국에서 발행되는 디펜스·위크지가 21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서방에의해 「블랙잭」이라는 암호명이 붙여진 이신형폭격기의 전장이 1백88피트, 날개의 폭이 1백39피트에달하며 최대 50만내지 56만파운드의 적재물을 실을수있는 대형항공기라고 말했다. 【워싱턴=UPI】

「癌의 노벨賞」82년受賞者 결정
美 코헨·스키퍼博士、英 버키터敎授
슬론-케터링賞

세계癌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슬론·케터링賞의 82년도 수상자가 지난15일 결정됐다.

美 제너럴모터스 癌연구재단이 뉴욕의 암전문병원 슬론·케터링 기초癌의학공헌자에게 주는 알프레드·슬론賞수상자로 스탠퍼드大교수 스탠리·코헨박사를, 치료분야 공헌자에게 주는 찰즈·케터링賞 수상자로 엘라배마州 서던연구소 명예회장 하워드·스키퍼박사를, 그리고 癌예방의학공헌자에게 수여하는 찰즈·모트賞수상자로 영국 토머스병원 癌연구원 데니스·버키트교수를 결정했다.

수상자는 각각 10만달러의 상금과 금메달을 받는다.

제너럴모터스 암연구재단 이사장이며 슬론·케터링癌병원의 肝암연구소장인 조셉·포트너씨(한국일보4월9일자 암시리즈3번 보도)가 본사에 직접 보낸서신에 의하면 슬론賞수상자인 코헨박사는 세포성장촉진인자(Epidermal Growth Factor)를 발견한 공로가인정돼 수상했다.

EGF는 피부, 세포배성장을 촉진하는 요소로 상처를 아물게하고 세포분열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암세포는 이EGF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것으로 주장되고있다.

스탠리·코헨은 유전자 核酸인 DNA를 박테리아를이용, 대량생산해내는 소위 Gene Splicing법을 개발해낸장본인이기도하다.

또한 케터링賞수상자 하워드·스키퍼박사는 약물치료의 세계적권위로 고체성암은 일반약물에 대한 반응이 느린것을 발견하고 약물의 집중투약, 특별히 조정된 시간제투약법등을 찾아내 암치료에 큰진전을 기록했다.

모트賞수상자 데니스·버키트는 버키트임파성암이라는 새로운 병을 찾아낸 암전문가로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의료사업을 해왔다. 버키트는 적어도 버키트임파성암의경우는 암이 바이러스와 직접 관련된다는 학설을정립했다.

◇祝賀받는 찰즈 찰즈英國황태자가 21일 英國왕위계승서열 2위인 첫아들을 갖게된후 군중들의 축하를받으며 런던의 聖마리아병원을 나서고있다. 【런던22日AP電送=聯合】

海外토픽

英다이애너妃 王子 順産
王位서열 2位 "가장순수한 血統"
몸무게3·2kg

○…다이애너 영국 황태자비(20)가 21일 하오9시3분(한국시간22일 상오5시3분) 영국 왕위계승서열 2위인 아들을 분만했다고 버킹검궁이 발표했다.

『웨일즈 태자비께서 이날 하오9시3분 런던의 국립聖마리아 병원에서 무게 3·2kg의 푸른눈의 사내아이를 출산하셨다』고 밝히고『母子모두 건강하다』고 덧붙였다.

이성명은 다이애너비가 약17시간동안의 진통끝에 아기를 낳았다면서 올해 33세의 아버지 찰즈 황태자가 분만을 지켜보았다고 밝혔다.

버킹검궁대변인은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이 찰즈 황태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분만소식을 듣고『대단히 기뻐하셨다』며 앤드루 왕자는 비공식적으로 이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29일 聖바오로성당에서 찰즈황태자와 결혼식을 올린 다이애너황태자비는 이날새벽부터 진통을 시작, 상오6시께 聖마리아병원에 입원했었다.

病院서 낳겠다 고집

○…세번째 손주를 본 엘리자베스 여왕은 당초 다이애너비가 버킹검궁에서 해산하기를 바랐으나 다이애너비의 고집, 결국 다이애너비의 뜻대로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난것. 다이애너가 입원해 있는 병실은 가로, 세로4m의 크기로 하루 입원비가 약16만원.

英國혈통이58·8%

○…21일 태어난 찰즈영국황태자부부의 첫아들은 왕위에 오를 경우 지난 1558~1603년까지 통치한 여왕 엘리자베스1세이래 가장 순수한 영국혈통의 군주가될것으로 보고있다.

영국 귀족등의 혈통을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선조가 1066년 왕위에 오른 정복자 윌리엄왕으로까지 거슬러올라가는 이 새왕자가 58·8%의 영국혈통과 4·69%의 미국혈통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1千여군중 환호성

○…다이애너비가 분만을 위해 입원한 사실이 알려지자 약1천여명의 군중들은 병원밖에 몰려들어 하루종일 안전분만을 기원했는데 이날 밤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환호성을 올리며 노래를 합창했으며 일부는 英國旗인 유니언잭을 흔들며『우리는 찰리(찰즈황태자의 애칭)를 원한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런던=綜合】

對아르헨經濟制裁 EEC 해제결정

歐共市(EEC) 10개국의 외상들은 20일 회의에서 對아르헨티나경제제재조치를 21일자로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레오·틴데만스 EEC각료이사회의장이 밝혔다. 【룩셈부르크=綜】

反越聯政지원 잘못 베트남、아세안비난

베트남은 20일 아세안(東南亞國家聯合)이 캄보디아의 3개 反베트남저항세력들의 聯政구성 계획을 지원하고있는 태도는『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경고하고 그러나 아세안 5개 회원국이 캄보디아문제에 『긍정적인태도』를 보일경우 캄보디아주둔 베트남軍을 일부 철수시킬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방콕=聯】

国際뉴스 ABC

「民主캄보디아聯政」출범 베트남은 어떻게 나올까
撤收대신 戰爭격화 가능성

—22일 콸라룸푸르에서는 캄보디아의 3대저항세력이 베트남의 지원을 받고있는 現 헹·삼린의 프놈펜 정권에 반대하는 연립정부구성협정을 정식 조인했읍니다。聯政의 당사자인 3대세력은 누구입니까?

▲지난 70년 론·놀의 쿠데타로 실각한 前캄보디아 국가주석이며 現캄보디아독립국가연합전선의 지도자인 시아누크公, 75년4월 론·놀정권을 몰아내고 집권한 폴·포트의 크메르·루지정권에서 수상을 지낸 키우·삼판, 그리고 시아누크정권에서 수상을 지냈으며 프랑스에서 망명했다가 돌아와 크메르인민해방전선(KPNLF)이라는 反헹·삼린 게릴라조직을 이끌고있는 손·산등 3인입니다.

—이들 3인의 정치적입장은?

▲시아누크가 中道王黨派, 손·산이 親美우익이고, 크메르·루지정권을 대변하는 키우·삼판이 좌익입니다.

크메르·루지정권은 공산베트남군에의해 권좌에서 밀려났지만 유엔은 아직 크메르·루지를 공식정부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聯政구성에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이들 3개저항단체들이 지난79년1월 프놈펜에 헹·삼린정권을 세운 베트남정권을 미워하는것 못지않게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같은 불신과 증오가 완전히 불식되었는지요?

▲그렇지않습니다。크메르인민해방전선지도자인 손·산은 시아누크의 캄보디아독립국가연합전선을 인정하지 않았기때문에 이들3인은 단체의 수뇌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聯政구성에 서명하고있는것입니다.

—聯政구성에 미국이 큰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中共은 아세안국가및 미국과 함께 聯政구성에 뒷받침을 했고 특히 크메르·루지를 설득시키는데 애를 써왔읍니다。

▲사실입니다。현 프놈펜의 헹·삼린정권은 공산베트남의 괴뢰정권이고, 공산베트남은 親蘇정권입니다。동남아시아에 소련세력이 커지는 것은 親美방 아세안(ASEAN)국가들은 물론 미국에도 큰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中共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中共역시 미국과 비슷합니다。동남아에서 소련세력이 강대해진것은 中共에도 위협이됩니다. 中共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베트남과 한차례 전쟁까지 치른적도 있읍니다。또한 中共은 공산베트남군에 의해 축출된 크메르·루지정부를 지원했읍니다。

—아세안국가들이 聯政출범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까닭은?

▲두가지 이유때문입니다。하나는 現헹·삼린의 공산캄푸치아정권이 오래지속하면 할수록 특히 유엔에서 민주캄푸치아정부의 입장이 약화될것을 염려하고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反共저항세력에 본격적인 원조를 제공하기위한 법적조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새 聯政은 망명정권입니까?

▲아닙니다。3명의 수뇌들은 22일 신정부출범을 선포한뒤 캄보디아내에 정식정부를 세우기위해 그들 게릴라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갈 것임을 밝히고 있읍니다。그러나 이聯政에서 대통령을 맡게된 시아누크는 유엔대표자격으로 뉴욕을 주된 정치무대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상에 의한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가능성이 聯政출범으로 높아질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전쟁으로 얻은 것을 협상으로 잃지않으려 할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에 내전이 격화될 소지만 커진게 아닙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일부 외교관들은 연합세력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베트남이 전쟁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전면 전쟁은 아니더라도 연합저항세력과 베트남군과의 게릴라전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外信部】

메아리
물의 公園

수도 서울의 젖줄인 한강을 언제나 푸른 물이 가득히 흐르는『물의 공원』으로 탈바꿈 시킬 방안이 22일 서울시당국에 의해 밝혀졌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행주대교로부터 암사동까지의 한강구간 하상의 골재와 오물부분을 처리하고 이곳에 언제나 7~8백m의 폭과 2·5m 이상의 수심을 유지토록하기 위한 저수로 조성사업을 벌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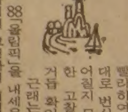
그런데 한강을 되살리려는 계획의 입안과 발표는 지금까지 여러차례 있었으나 역대시장가운데 누구 하나도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채 자리를 떠났다.

그러므로 이번만은 그런일 없이 죽어가는 한강을 영국의 템즈강이나 일본의 스미다강처럼 되살려 놓게 되었으면 하는것이 뭇 시민들의 큰 기대이다.

그러려면 미국이 1930년대 뉴딜 정책의 소산으로 착수하여 크게 성공한 테네시강의 종합개발계획처럼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기초조사가 선행돼야할 일이다.

오늘의 한강은 수질의 오염으로 죽음의 강이나 진배없다. 그마저도 강변은 아스팔트 포장의 고속도로로 변해서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니 시민들이 마음 놓고 접근할수조차 없다.

지난날의 시민정서는 오늘날 시민이 그강을 외면하고 강 또한 시민을 소외하는 괴리현상을 빚게 된것이다. 이는 따지고보면 그때 그때 목전의 편의에만 편승하는 행정단견과 안일주의의 소산인것 같다.



과연「물의 공원」을 가꾼다는 명분아래 펼쳐질 지각저수로공사가 수표면적을 줄이고 유속을 빨리하여 수중의 미생물이 제대로 번식 못하게함으로써 빚어질지 모를 생태계변화에 대한 고찰을 제대로 한것인지, 거듭 확인해 두고싶다.

근래는 언필칭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내세우기 일쑤다. 이번도 예외는아니며 그행사에 대비키위해 늦어도 오는85년말 까지는 한강종합정비사업을 완료한다는것이다. 이같은 사업은 그렇게 시한을 긋고 서두르는데서 착오라도 생기는일 없도록 해야한다.

인류가 살기전부터 있어왔고 우리겨레의 오랜 역사적 동반자로 흘러가는 한강은 기인 만큼 당대보다 미래의 후손들을 더생각하는데서 신중에 신중을 다하게끔 중지와 예지를 더 모았으면 하는 당부를 추가해두련다.

SAMKO SALES
(Closeout Specialists)

여러종류의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이런 회사의 남은 많은 상품을 인수하여 최저가격으로 소매상에게 팝니다. 특히 유명메이커 장난감과 선물용 제품·학용품·HOUSE WARES도 도매가격보다 훨씬싸게 공급합니다.
꼭한번 들러주십시오. 놀라실 것입니다.

여름 STORE HOURS : 월·화·수요일만 OPEN합니다.
(오전9시~오후4시30분)

※새장소로 옮긴후부터 (82년7월5일(월)) 여러분께 개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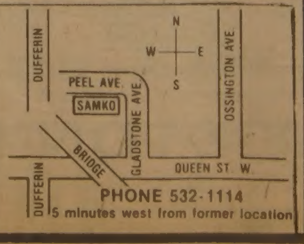
이 광고를 가져오면 멤버·카드를 드립니다. 또는 한국일보에 멤버카드를 요청하면 됩니다

CASH·CHARGEX·MASTER CHARGE
NO PERSONAL CHEQUES

<WHOLESALE ONLY>
(ADULTS ONLY) 어린이 절대 출입금지

1230 QUEEN ST. W. (Near 더프린)
☎ : 532—1114

OUR NEW ADDRESS IS 1230 QUEEN ST. WEST WITH STORE ENTRANCE ONE BLOCK NORTH AT 11 PEEL AVENUE



제1회 선교대회 안내

주 제 : 눈을들어 밭을보라.
강 사 : 김유식 선교사(대한예수교 장로회 파송, 주, 필리핀 선교사)
때 : 7월2일(금)~4일(일) 오후7시30분
곳 : 충현교회(240 Manor Rd. E. Tor.)
연락처 : 281—7772(교회 : 483—0695)

저희 교회에서는 필리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유식 선교사님을 모시고 복음확장을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슬라이드와말씀을 통해 보고 들을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읍니다. 많이 오셔서 선교일선에서 땀흘리시는 선교사님을 주안에서 격려해 주실뿐아니라 회어져 추수하게된 밭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키워나가는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토론토 충현교회 드림

프로野球붐 엉뚱한 副作用

어린이팬 도박助長

프로야구붐이 어린이들 사이에 엉뚱한 부작용을빚고있다。각 프로팀은 프로야구의 인기를 정착시키고 팬의 저변확대를 위해 어린이 상대 영구회원까지 모집했는데 일부 어린이회원들이 과열된나머지 자신들이 소속돼있는 야구팀의 승부를 걸고 학우들과 돈내기까지 하는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勝敗 알아맞히기 한번에 千원까지 오가

級友끼리…教育界선 "制動"論도

이에따라 문교부는 23일 전국 시·도교위 생활지도장학관회의를 긴급소집、국민학교 어린이들의 ▲야구붐에 따르는 안전교육과 ▲승부내기 도박등을 일소하는등의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지도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서울 汝矣島국민학교에 다니는 李모씨(45)의 아들(11)은 최근 용돈으로 받은 3천원을 「도박내기」에 몽땅 날리고 다시용돈을타갔는데 회원으로 있는 야구팀이『계속지는바람에 돈을 잃었다』고 부모에게 말했다는 것。

학부모 朴모씨(38·은행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들이 지난 20일 저녁늦게 들어와 울고있어 물어보자 야구내기에 용돈2천원을 몽땅 날렸다고 말하더라는것。

이같은 승부내기는 처음에는 적은 돈을 걸었으나 점점 성행하기시작、요즘에는 회원이아닌 어린이들까지도 가세했으며 돈의 액수도 한번에1천원까지도 오간다는것。

어린이들의 야구붐은 학교교육 현장에서도 큰문제。야구회원이 된 어린이와 경제적인 이유로 회원이 되지못한 어린이들 사이에 위화감이 생기게 되고 특정상품 마크가 새겨진 모자와 T셔츠등을 학교에 입고와 어린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상품이나 회사선전을 하고 있으며 유니폼이 같은 회원들끼리 집단을 형성、급우간에 여러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국민학교에서는 이같은 현상을막기위해 야구모자나 T셔츠등을 일체 입고나오지못하도록 금지하고있다。

이밖에도 경기가 벌어질때마다 야구장에 무더기로 몰려가거나 중계를보기위해 밤늦게까지 TV앞에 앉아있는 어린이가늘어나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고 시력이 나빠지기도한다。

또 특정야구단만을 계속해서 응원、어릴때부터 지역감정을 갖게되며 라이벌지역을 배척하는 심리적부작용도 낳고있다。

어린이 영구회원제는 일응 어린이들에게 소속감을 주어 스포츠 정신과 꿈을 키워주기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환영을 받고있고 미국、일본에서도 긍정적으로 키워 프로야구의정착화에크게기여、건전한 성인사회의 레크리에이션으로 뿌리를 내린것도사실이다。

그러나 한 교육전문가는 『특정 스포츠에 대한 과열붐은 오히려 어린이의 정서교육에 큰지장을 줄 소지가다분히 있다。더이상 부작용이 나기전에 과열된 야구붐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李鍾九기자】

◇病들위기…꿈나무들 과열된 어린이프로야구붐이 엉뚱하게 「승부 내기 도박」 까지 갔다。프로야구의 회원모집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스포츠정신」을 키워준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갖가지 부작용도 낳고있다。

이사짐위장 密輸

日 강제송환자와 짠 7명令狀

녹용등 億臺밀수

【부산】부산세관은 22일 1억2천만원상당의 전자제품등을 밀수입한 전아동무역회사 대표吳璋錫씨(50·부산南區廣安洞161)등 吳씨의 부인 朴守珍씨(47)와 밀수품통관업무를 맡았던 관우회부산지부직원 金在明씨(39·부산北區萬德洞1735)黃海局씨(42·부산鎭區田浦1洞395)·강제송환자 김원옥씨(50·제주北濟州郡朝天面朝天里2417)등 7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비디오23대、녹용1㎏、전자오르간 11대등 71종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세관에 따르면 아동무역회사대표인 吳씨는 78년7월 일본에 밀입국했다가 강제송환된 김원옥씨등 2명의 명의를 빌리는 조건으로 현금 1백만원등을 주고 지난4월 18일 이들의 이사짐을 가장、밀수품을 숨겨들여와 부산세관을 통관하려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吳씨부부는 밀수사실이 적발되자 일본으로 달아났다가 지난17일 金浦공항을통해 다시 입국하다 검거됐다。 【聯合】

아람회事件 항소심 最高6년징역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李定洛부장판사)는 22일 교사、대학생、경찰관등으로 구성된 소위 「아람회」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국가보안법상의 국가변란목적은 정부전복후 새정부수립을 구체적으로 구상함을 요한다』고 밝히고 피고인 6명 전원에 대해서는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에게 반공법、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등을 적용、최고 징역6년、자격정지 6년에서 최하 징역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3년까지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17일 「아람회」를 조직、현정권은 미국의 영향하에 민족통일을 외면하고 매판자본과 결탁、민중을 수탈억압하는 반민족적 파쇼정권이라며 외세를타도、축출하여 북괴의 고려연방제 통일노선에따라 활동해왔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 20일 충남도경에구속됐었다。

피고인별 선고형량은 다음과같다。

▲朴海斉(27·崇田大철학과4년)=징역6년·자격정지6년▲黃甫允植(33·大田공업고등기술학교교사)=〃4년〃4년▲丁亥淑(48·서울李天고교사)=〃3년〃3년▲金昌根(27·전天安경찰서순경)=〃1년6월〃1년6월▲李在權(26·전錦山새마을금고직원)=〃1년6월〃1년6월집행유예3년▲金顯七(27·전錦山지청고용원)=〃1년6월〃1년6월〃3년

學生百여명 옴번져 경북 安東工高에

【安東】경북安東市松峴洞소재 安東공고생중 1백20여명의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옴에 걸려 치료를 받고있다。

22일 학교측에 따르면 전교생 2천여명가운데 지난16일 이학교 이모군(16·1년)등 20여명이 겨드랑 손가락사이등 피부가 연한곳에 좁쌀크기의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가려움증으로 앓아왔는데 점차 다른학생에게도 번지기 시작、18일에는 1백20여명이 같은 증세를 보였다는것。 【聯合】

통상支給命令書를 僞造 農協서 5백82만원빼내 楊平

【城南】경기楊平경찰서는 발행한 액면5백82만원짜리 통상 지급명령서가 위조、농협에서 돈이 지불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楊平금고취급소인 농협 양평군지부에 따르면 이 위조통상 지급명령서는 지난 21일 상오11시께 일계표작성과정에서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는데 이 위조지급 명령서는 楊平군수관인과 양평군경리계장 정은섭씨의 고무인 및 실인이 선명하게 위조돼 「최성신」이란는 사람앞으로 이미 지난 19일 낮12시께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다。

LA總領事관저에 黑人권총강도 승용차強奪 도주

【로스앤젤레스支社】21일상오8시45분께(현지시간)朴民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저에 흑인 무장괴한이 침입 출근하려던 朴총영사에게 위협사격을 가한후승용차를 강탈도주했다。

朴총영사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않았다。

신고를 받은경찰은 로스앤젤레스 일원에 수사망을 펴고 신장 1m87㎝ 몸무게 90㎏ 나이25~30세의 흑인남자를 수배했다。

朴총영사는 이날 출근하기위해 관저의 북쪽 펜드라이브웨이를 통해 주차장에 세워놓은 승용차로 향할때 갑자기 차고옆문에 숨어있던 흑인괴한이 나타나 22구경소형권총으로 위협 『자동차열쇠를 내놓으라』면서 땅바닥을 향해 1발을 발사했다。

朴총영사가 자동차 열쇠를 내주며 총소리에 관저에있던 가족들이 밖으로나오자 범인은 급히 차를 강탈해 로스모로어路 남쪽길 월셔街 쪽으로 도주했다는 것이다。

住民 마늘판돈 5백만원 高速道순찰대가 찾아줘

버스에 놓고내려

【大田】21일 하오5시께 충남天原郡竝場面 경부고속도로 望鄕휴게소에서 서울발 浦項행 한진고속버스를 타고가던 김영수씨(61·경북 新珍郡西面)가 같은마을 40가구의 주민들이 농사지은 마늘을 서울 남대문시장에 내다 판 5백만원을 좌석에 놓고 내린후 차를 찾지못해 버스가 그대로 떠나버린것을고속도로순찰 제2지구대 소속 216호 순찰차가 30분후인 충북淸原郡南二面 경부고속도로 간이정거장에서 찾아냈다。 【聯合】

5行뉴스

◆揚水작업農民2명感電死

【全州】21일 상오 9시40분께 全州市松川洞1街송주학씨(60)가 마을앞논에서 논물을 대려고 양수기에 전선을 연결시키려다 감전돼숨졌다。

또 이날 하오2시께 金堤郡白山面石橋里 신석부락앞논에서 양수기로 물을대던 이기순여인(54·金堤郡聖德面大木里 탄하부락)도 취급부주의로 감전 목숨을 잃었다。 【聯合】

◆宅地조성중 爆發物에 중상

【議政府】22일낮12시께경기議政府市 議政府4洞 현인선씨(44)집 뒤편에서 택지조성작업중 종류미상의 폭발물이 터져 불도저운전사 최규문씨(26)가 중상을입고 불도저가 대파됐으며 인근 1백여m내의 10여가구가 창문등이 깨어졌다。 【聯合】

장마…7월中旬께나

週末 한차례 비、解渴엔 못미쳐

22일은 하지(夏至)。영호남을 비롯한 남부지방까지도 모내기시한이 다됐지만 앞으로3주이내에는 충분한 비가 내릴 전망이없어 가뭄피해는 전국적으로 심화될것 같다。

중앙기상대는 22일 서울·경기지방에 약간의 비가온뒤 26일과 27일에는 전국적으로 한차례 비가오겠으나 해갈에는 미치지못할것으로 보이며 당초 6월말~7월초로 예상됐던 장마전선도 오는7월중순께로 늦어질것같다고 예보했다。

이에따라 현재 영호남지방만 가뭄이 심각하지만 가뭄피해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계속해서 비가내리지 않는이유는 한반도주변의 기압골이 전혀 이동하지않아 일본 남쪽에 머물러있는 장마전선이 북상하지 않기때문인데 고기압권내에 든 우리나라는 맑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있다는것이다。

旱害대책비 18억원 支援

농수산부는 22일 18억원의 한해대책비를 가뭄정도에 따라 경북에8억、전남5억、전북과 경남에 각2억5천만원씩 긴급지원、간이용수원개발을통해 아직 모를 내지못한 6만6천정보에 이달말까지 모내기를 끝내도록 독려했다。

대책본부는 또 자금지원과 함께 각시도및 농진공 보유장비등을 총동원토록 아울러 지시하는 한편 고마력양수기 80대、송수호스76㎞、고성능착정기 4대를 경북金陵郡등 가뭄극심지역에 긴급배정토록했다。

농수산부집계에따르면 20일 현재 전국의 평균강수량은3백㎜로、평년3백88㎜에는 미치지못하지만 지난해동기 2백84㎜에비해서는 다소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모를내지못한 6만1천정보는 전체벼식부예상면적 1백21만정보의 5%。모를 넘긴 가뭄에시달리는 논 8천4백정보는 전체의 0.6%에 해당된다。

한편 농진청은 가뭄지역의 못자리가꾸기요령을 시달、물을계속댈수있는 못자리의 경우물을 모관이 축축할정도로만 대어주고 성장을 억제하기위해 웃거름을 주지말도록당부하고 물이없는 못자리는도랑에 볏짚 보리짚등을 덮어수분증발을 막고 비료기가없어 누렇게된 못자리는물비료를 약간씩 주도록했다。

金값 바닥 去來뜸해

돈쭝當 3만9천원、80년의 半값

금값이 계속 떨어져 수년래 최저시세로거래되고있다。

22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날현재 금값은 서울과 大邱에서 각각 3·75g 한돈쭝(순도99%)에 소매 3만9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소매값이 4만원이하로 떨어진 것은 4~5년만에처음있는 일인데 최고시세를 형성했던 지난80년 1월21일의 7만7천원에 비하면 절반가까운 3만8천원이나 떨어진 값이며 지난 연초의 5만원에 비해서도 1만1천원이나 내린 값이다。

이밖에 은(순도70%)도 蔚山에서 3·75g 한돈쭝에 지난주보다 2백원이 내려 1천3백원에 거래되고있고 백금(순도50%)은 3·75g 한돈쭝에 大邱와 全州에서 1천원씩 내려 3만4천원이었으나 거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울鍾路구鍾路2가 寶光堂의 吳錦煥씨(42)는 『그동안 금을 팔러오는 사람은 많은데 비해 금을 사러오는 사람은 적어 금값이 떨어졌다』고 밝히고 『최근 고금출회가 현저히 줄어들어 도매에서는 금값이 상승세이나 소매에서는 매기가 거의없어 가격이쉽게오르지않을것』으로내다봤다。★관련기사10면

通情여인만 숨져 동반자살하자속여

【永同】충북永同경찰서는22일 이배협씨(25·강원旌善郡舍北面古汗20里·광부)를 위계에의한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취업나간 강正구씨(34·전북茂朱郡茂朱邑)의 처 최선옥씨(32)와 불륜의 정을통해오던중 강씨가 오는 7월 귀국한다는 사실을알고 간통죄로 처벌받게될것을 두려워한나머지 최여인에게 동반자살을 하자고 속여 지난 19일하오5시께 충북永同郡深川面高塘里 금강유원지에서 이씨가 미리 준비한 극약을 넣은마이신캡슐을 10개씩 나누어가졌다는것。

먼저 최씨가 10개를 먹고 숨지자 이씨는 최여인이 자살한것으로 위장、충북沃川郡沃川邑 성모병원으로 옮겼는데 경찰은 이씨를 수상히 여겨 수사하던중 이같은 범죄사실을 자백받고 구속한것。 【聯合】

비밀課外 단속強化

富裕層·밀집아파트地域등에

정부는 여름방학과 입시철이 가까와옴에따라 비밀과외수업이 다시 고개를 들지못하도록 합동단속반을 편성、전국에걸쳐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사회정화위원회에서 내무 문교 치안본부등 관계기관연석회의를 열고 과외수업이 일부 재연될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25일부터 단속활동을 펴기로했으며、특히 부유층집단거주지역 아파트밀집지역등 과외용의지역에는 집중단속을 펴기로했다。

이밖에도 하숙 또는 친척을 가장한 입주과외와 예능계등록 교습소에서의 변태과외도 단속을 펴기로했다。

한편 사회정화위원회에 의하면 올들어 단속된 과외수업행위는 모두 4건으로 이와관련、과외교사5명 학생20명 학부모20명이 적발돼 4명이 면직됐으며 학사징계 5、입건 21、등록취소2、세무조사16건의 조치를 당했다。

여객기편 在日동포 寶石밀수 1명구속

【金海】22일 金海세관은 재일동포 김만규씨(61·상업)를 관세법위반혐의로구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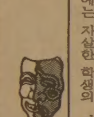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21일하오2시35분 일본오오사까에서 KAL기편으로 金海공항을통해 입국하면서 진주목걸이 1백13개와 진주반지 1개등 싯가6백만원상당을 허리에차거나 2중장치가된 가방속에 숨겨들여오다 세관검사대에서 적발된것이다。 【聯合】

아내죽자 悲觀 2년 2자녀와 同伴自殺

【馬山】21일 하오8시께 경남馬山市架浦洞귀산산중턱에서 김수진씨(34·馬山市大洞)와 장남민성군(6)장녀 민정양(5)등 한가족 3명이 극약을먹고 숨져있는것을 이곳을 지나던 김정현씨(30·馬山市架浦洞163)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聯合】

缺勤잦은「모범」

서울 東大門區廳서기 崔大天씨



서울東大門구청 시민홍서기 崔大天씨(35·사진·서울東大門區里門3洞256의154)는 틀림없는 모범공무원인데 「결근이 잦다」。

직업청소년을 위한 야학 常綠中(교장 朴學善·45)의 교무주임겸 사회교사인 그는 일로「불가피하게 결근을하게 되는사람」。

2주전에는 학생하나가 한밤에트럭을 몰고나가 택시승객 2명을 숨지게해 경찰서로 구치소로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1월에는 자살한 학생의 가족을 대신해 그가 다니던 공장에가서퇴직금을 받아주고 빈소와 영구차를 마련해주느라 사흘을 조퇴했다。80년여름엔 문신이 새겨져 있다는이유로 교육에 보내지는 중퇴학생을 위해 부산까지 「출장」갔다가 허탈속에 되돌아왔다。

76년 里門1洞서기로있을때 그는 동료3명과함께 동사무소2층에 학교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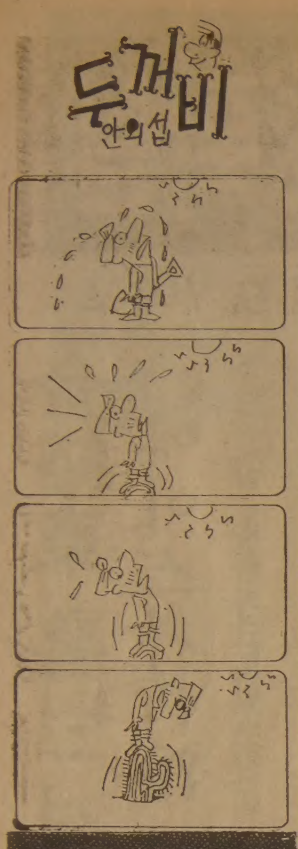
구청으로 전입(80년)하기까지 3개동사무소의 「사회담당아저씨」로서 영세민을 상대해왔기에 야학설립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했다。동사무소에는 여대생등 말이통할것같은 민원인을 중심으로 교사를 유치、지금은 학생 1백72명 교사 28명의 규모가됐다。검정고시합격자가 1백59명이며 재학생중엔40대주부도 있다。

夜學堂 뒤치다꺼리에 過勞 입원도

매섭게추운 겨울밤 자전거를타고 신입생모집광고를 붙이고 다니느라 손이 얼어붙은 그의별명은 「발바리」。80년1월에는과로로입원하기도했는데 감복한 주민들의협조로적십자회비등의 징수실적은 늘1백%였다。76년연말 남편이병사한 두아들의 어머니가 1천원을 서랍에 넣고 가자 다음날 돈을 더보태 아이들 내복을 사다주고 도망쳐 나왔다는 사람이기도하다。

박봉 17만여원중 5만원정도를 학교일에 쓴다。77년 모범공무원에 뽑혔고 지난2월에도 유공공무원으로 시장표창을 받았다。역설적으로 말해 야학은 없어지기위해 있는것이지만 학교는 성장을 거듭、지난해 微慶洞의 진영빌딩지하로 옮겼다。운수업을 하는 교장 朴씨등이 임대비 1천만원을 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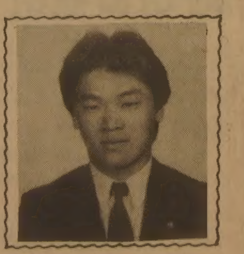
아직 미혼。애송이라는 「序詩」의 尹東柱처럼 순결한젊음으로 담배도 피우지 않으면서 레코드 5백장、책2천권과 함께 살고있다。 【任喆淳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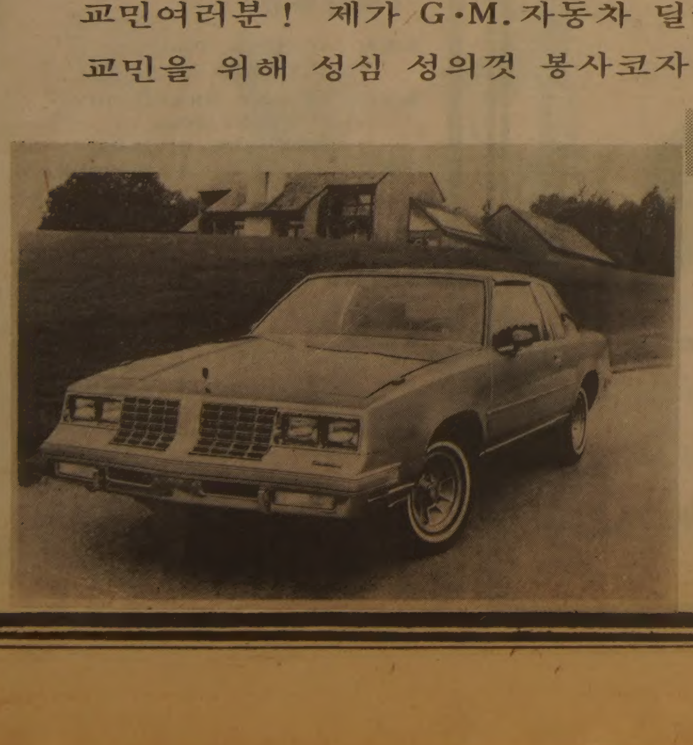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Chevrolet & Oldsmobile

교민여러분! 제가 G·M.자동차 딜러로서 일하게 된것에 인사 드립니다.
교민을 위해 성심 성의껏 봉사코자 하오니 1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손명철(마이클·손)배





LEASING— ALL MAKES

CHEVETTE	IMPALA	DELTA 88
CAVALIER	CAPRICE CLASSIC	98 REGENCY
CORVETTE	CORVETTE	TORONADO
CAMARO	FIRENZA	· 각종 VAN트럭.
MALIBU	OMEGA	· 중고차 취급
MONTE CARLO	CUTLASS CIERA	· LEASING.

HUMBERVIEW
3200 BLOOR ST. W.(로얄·욕 서쪽)
236—1011(B) 763—1155(R) 손 명 철 (마이클·손)

월드컵축구

오스트리아、알제리 잡았다 2-0

프랑스는 쿠웨이트 大破 4-1

【마드리드21日=聯合】 오스트리아는 22일 새벽(한국시간) 오비에도서 열린 제12회 월드컵 축구대회 1차리그 9일째 2조경기에서 후반 발터·샤크너(54분)와 한스·크랑클(65분)의 득점으로 이번대회 돌풍의 팀 알제리를 2-0으로 완파, 2연승으로 2차리그 진출이 확정되었다.

강호 서독을 2-1로 물리쳐 큰 파란을 일으켰던 알제리는 칠레와의 대전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경기서 승리하면 2차리그 진출가능성이 남아있다.

한편 4조의 프랑스는 쿠웨이트와의 경기서 4-1로 승리, 1승1패를 기록 했으며 쿠웨이트는 1무1패로 2차리그 진출이 사실상 좌절됐다.

프랑스는 전반30분 스트라이커인 강기니가 프리킥을 직접 득점에 연결, 선제골을 뽑고 미셀·플라티니가 골을 추가하여 전반서 2-0으로 리드를 잡았으며 후반서 2골을 추가했다.

5조 北아일랜드와 온두라스 경기는 1-1로 끝나 두팀모두 2무승부를 기록, 2차리그진출권을 놓고 혼전을 벌이고있다.

북아일랜드는 전반10분 게리·암스트롱의 득점으로 리드를 잡았으나 후반서 온두라스의 교체FW 에두알도·라잉에게 실점, 아깝게 1-1이 됐다.

◇제9일전적

▲2조 오스트리아 2 (0-0, 2-0) 0 알제리 (2승) (1승1패)

▲4조 프랑스 4 (2-0, 2-1) 1 쿠웨이트 (1승1패) (1무1패)

▲5조 북아일랜드 1 (1-0, 0-1) 1 온두라스 (2무) (2무)

월드컵通信

蘇주심 경찰이보호

◆…프랑스-쿠웨이트전에서는 이번대회최초의 난투극이 벌어지고 소련주심이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는 불상사가 발생. 경기종료 10분을 남겨놓고 프랑스의 알랭·기레스가 쿠웨이트 수비진을뚫고 4번째골을 기록하자 쿠웨이트선수들은 『휘슬소리를 듣고 플레이를 중단한 상태에서 골을 넣었다』고주장, 득점무효를 주심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주심이 번복할 기미를 보이지않자 임원석에있던 세이크파드 쿠웨이트축구협회장이 자리를박차고 나가 경기를 포기하겠다고 통고, 주심은 골무효를 선언했다.

그러자 미셸·히달고 프랑스감독도 발끈, 그라운드로 뛰어나가려다 경찰관에 제지당했다.

이항의로 8분간 경기가중단되는동안 양팀선수들은 주먹을 교환하는 난투극을 벌였다.

佛·쿠웨이트戰서 첫 亂鬪劇
경기포기위협에 골無效선언

경기가 속개된후에도 분위기는 험악, 고의적인 태클이 난무하는등 살벌했다.

경기가 끝난후 세이크파드 회장은 자신이 쿠웨이트선수들에게 경기를 포기하라고 신호를 보낸적이없으며 경기를 계속하라고 지시하기위해 그라운드에 나간것이라고 해명.

◆ 취재기자들은 일부관중들이 경기중 휘슬을 마구불어 혼란이일어났다고 지적했다.

蘇선수에도 보너스

◆…소련선수들은 뉴질랜드에 3-0으로 승리한후 1인당 2천루블(2천5백달러)의 보너스를 받았다. 다른나라선수들이 받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푼돈이지만 소련근로자 한달평균봉급의 10배가 된다는것.

소크라테스 안떠나

◆…브라질 주장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월드컵경기후 유럽축구에 진출할지 모른다는 소문을 일축.

그는 조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외국팀으로 떠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스페인·월드컵 펠레리포트

Sony Betamax SONY <6>

위대한 골은 누구나 感歎케 하는것

西獨루메니게 對칠레戰서 豫測불허의 電光石火슛

브라질·蘇、스페인·유고戰 判定의혹

월드컵에서 위대한 득점을 보는 것은 감사해야할 일이며 위대한 득점을 2~3개나 보는것은 엄청난 행운이다. 「위대한」골이란 잊을수 없는 골이란 뜻이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골.

브라질과 蘇聯의 경기에서 브라질 소크라테스가 터뜨린 천둥치듯 한 그런 골일 필요는 없다. 프랑스와의 대결에서 잉글랜드의 롭슨이 경기시작 27초만에 터뜨린 그런 빠른 골일 필요도 없다. 유고슬라비아와의 대전에서 스페인의 사우라의 결승골도 필요없다.

위대한 골은 발과 볼을 두뇌의 연장으로하여 득점,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런 골이다. 이런득점은 관중이나 TV를 보는사람들이나 적이나 동료나 할 것 없이 모든사람을 감탄케한다.

이런 골은 西獨-칠레의 대전 후반전 21분 西獨의 루메니게에의해 나왔다. 루메니게는 이미 2골을넣고 이순간을 맞고 있었다. 타이트한 페널티·에리어 밖에서 발리프가 그에게 낮게 패스를 보냈다.

이런 순간에 생각할 여유가 있다면 루메니게와 골문사이에있던 칠레 수비들은 루메니게가 볼을 정지시키거나 쏘거나 좀더좋은 위치를 잡기위해 앞으로 또는 옆으로 드리블 할 것등 여러가지를 자연스럽게 예측해 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지는듯한 짧은 순간에 루메니게는 볼이오른발에 닿자마자 때렸다. 슈팅은 강하지않았지만 타이밍이 잘 맞았다. 오른발을 뒤로 제끼지 않고 쏘았다고 할 정도로 오른발의 스윙이 보이지 않았다. 전광석화와 같은 슛이었다. 루메니게의 이런 득점은 축구교과서에도 없는 것이며 끊임없는 연습으로도 해낼수 없는 것이다. 나는 루메니게가 천재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른다. 그를 충분히 관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칭호를 부여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루메니게의 이골은 천재의 골이었다. 나는 브라질대표팀, 산토스팀, 미국 뉴욕·코스모스에서 기록한 1천2백1골속에 루메니게의 이골을 넣고싶은 그런 심정이다.

西獨은 스페인에 온 느린팀못지않게 부지런했다. 西獨팀은 『루메니게와 10명의 로보트들』로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현재의 西獨팀이 과거의 西獨팀과 다른것은 프란츠·베켄바우어를 다른 베켄바우어와 대치해놓지 못하고있다는 점이다. 「리베로」란 포지션에 새로운 의미를주며, 볼을 잡는 순간마다 의미를 창조하며, 차분한 지도력으로 팀을 안정시키는 카이저(황제=베켄바우어의 별칭)는 또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베켄바우어의 후계자들을 욕하는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베켄바우어가 아닌, 그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西獨은 과거에비해 광택이 덜하다.

스페인의 선수들과 팬들은 유고슬라비아를 꺾은후 열광했다.

스페인의 승리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첫골이된 페널티·킥이 옳은 것인가? 나는 유고의 반칙이 있었을 때 볼은 페널티·에리어 밖에 있었다고생각한다.

이번월드컵서는 말썽이 될만한 판정이 여러번 나왔다.

예를들어 나는 소련이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적어도 한번은 페널티킥을 얻었어야한다는 주장에 동조한다. 나는 브라질인이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다.

OB베어스 優勝확실

프로야구 前期리그 三星과 최종전서도 이겨

金裕東 홈런 결승점 3-2

에이스 朴哲淳 17連勝기록

OB、5게임 全敗의 이변없는한 우승

◇던질까 말까 여고부D조 松源女商과 誠信女高의 접전。松源 金日順(⑤·7번)의 점프슛을 誠信 具貞會(12번)가 막고있다。

金裕東의 결승 홈런한방으로 OB베어스가 끈질긴 三星라이온즈의 추격을 뿌리치고 프로야구 첫 시즌 우승트로피에 한손을 얹었다.

OB베어스는 22일 大田에서 벌어진 전기리그 三星과의 최종 8차전에서 7회말 6번 金裕東의 4호 좌월 솔로홈런으로 결승점을 올려 三星을 3-2로 누르고 27승8패를 기록, 전기리그 최고의 승률(0·771)로 최소한 공동 1위를 확보했다.

OB가 1승을 더올리거나, 三星이 1패를 더하면 OB는 전기시즌 단독우승을 차지, 코리안 시리즈 진출권을 아울러 갖게된다.

OB에이스 朴哲淳은 三星타선을 산발 5안타, 2실점으로 막아 경이적인 17연승으로 18승2패를 기록했다.

三星의 마지막타자를 플라이로잡아 승리가결정된 순간 朴哲淳은 金永德감독과 동료선수들을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7연승을 올리며 열화같은 종반추격전을 벌이던 三星은 朴의호투에 눌려 25승13패를 기록, OB에 다시3·5게임차로 떨어졌다.

OB가 남은 5게임서 전패하고 三星이 남은 2게임서 전승할경우에만 三星은 OB와 27승13패의 공동수위를 이루어 전기시즌 우승결정전(3차전)을 가질수있다.

해태타이거즈는 釜山에서 라이벌 롯데자이언츠를 11-2로 대파하고 16승19패를 기록, 4위권을 고수했다. 롯데는 12승24패로 최하위 三美슈퍼스타즈(9승25패)에 2게임차 앞서있다.

◇22일전적

◆대전

삼성	010	000	100	2
OB	200	000	10×	3

▲홈런=金裕東(7회·0)

◆부산

해태	341	001	002	11
롯데	000	101	000	2

▲홈런=金奉淵(1회·3전)、金準桓(9회이상해태)

◇OB종합승패표 <22일현재>

대전팀	승	패	잔여게임
삼성	5	3	0
MBC	5	3	0
해태	5	0	3
롯데	4	2	2
삼미	8	0	0
계	27	8	5

전기중간순위 (22일현재)

팀	승	패	승률
OB	27	8	·771
삼성	25	13	·658
MBC	18	18	·500
해태	16	19	·457
롯데	12	24	·333
삼미	9	25	·265

한국일보 533·2361

대회新 3개 봉황기 사격대회

봉황기쟁탈 제12회 전국사격대회 이틀째 경기가 22일 태릉종합사격장서 속개, 이날 3개의 대회신기록이 수립됐다.

남고단체 공기소총에서 淸州農高는 1천1백30점의 대회신기록(종전1천1백24점)을 세웠으며 동개인서 김선덕(부산체고)도 385점으로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여고단체 공기권총서 명도여상은 1천81점을 따고 대회신을 추가했다.

주간女性

第2局 第1譜 1~18 (각5시간·덤5집반)

白(名人) 曺薰鉉<1勝>
黑(挑戰者) 徐奉洙<1敗>

名人이 제1국을 [illegible]한뒤의 제2국은 5월31일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두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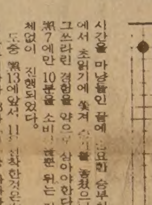
도전대국에서 첫국의 승패는 무엇보다 사기면에 영향이크다. 특히 5판승부는 승자가 그여세로 상대를 막판에 몰아넣기 쉬운데 반하여 패자는 뒤로 기를 모으려는 부담감을 벗기어렵다.

그러나 다만 이들의경우는 그같은 일이 하도 많아서 언제나 [illegible] 최선을 다하고있다.

黑차례가된 도전자는 예상했던대로 [illegible] 名人과 비슷한 [illegible] 경쾌한 출발이다. [illegible] 시간을 마냥들인 끝에 [illegible] 승부처에서 초읽기에 쫓겨 [illegible]를 놓쳤으니 그쓰라린 경험을 약으로 삼아야한다.

黑7에만 10분을 소비해 뒤는 지체없이 진행되었다.

도중 黑13에 와서 11분 장고한것은 [illegible] 白18에 대해 黑19로 [illegible]



막판이냐 原點이냐

제13기 名人战 挑战5番棋

第2局 第2譜 18~25 (각5시간·덤5집반)

白(名人) 曺薰鉉<1勝>
黑(挑戰者) 徐奉洙<1敗>

이날도 제1국때처럼 새벽부터 상당량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 名人戰과 비. 어쩐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은 도전자가 꼭9분전(제1국때는 9분을 지각했다)에 입실하고 정각10시에 名人이 시간을 간신히 대듯이하며 나타났다. 두사람이 다 신사복에 노타이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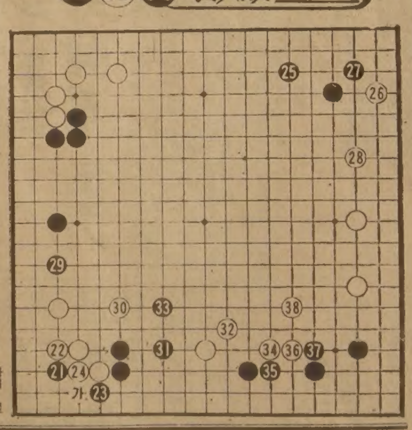
기록계 朴相燉초단이 시계를 재확인하자 이내 대국이 개시되었다. 언제나 그렇듯 이들은 벌써무아지경이다.

白18까지로된 좌반측은 제4기 일본棋聖戰도전제4국과 똑같은 모습이지만 결코 의도적은 아닌가 싶다. 그리고 黑19. 이수로 우변을 「가」의곳까지 벌릴겨다가설줄 알았는데 도전자는 적극적으로 白18을 위협、白20때 좌하귀에 黑21로 뛰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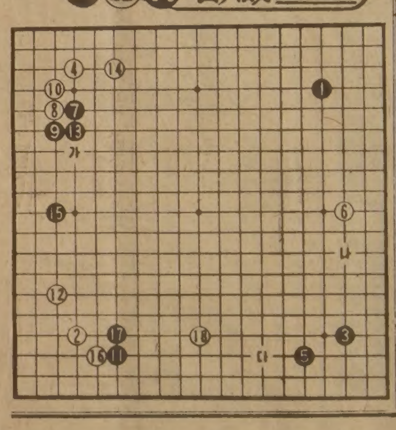
이때가 상오10시40분. 불과 28수에 하오1시까지 걸렸던 제1국에비하면 진도가 굉장히 빠르다.

白22 노타임. 名人은 국후에 『이수는 참고도의 白2이하로 저항할까 생각했지만 黑7로 8에 선착하고 白7 치중때 黑「A」이하 「E」의 반격을 당하기 싫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黑23까지는 黑의뜻대로 된셈이라고 한다. 여기서 黑25의 뜻은? 【一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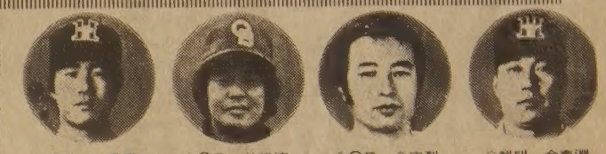
피차 빠른 속도로



제13기 名人战 挑战5番棋



참고도면 白4로 실전白의「다」에육박하고 黑「A」에는 白「B」로 싸우게 될것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것인지。【一凡】



◇해태 金勇男 ◇OB 朴哲淳 ◇OB 金宇烈 ◇해태 金奉淵

프로야구 올스타戰 1일부터

팬투표로 東西양팀의 베스트10 뽑아

金奉淵야수·홈런王 金宇烈 최다득표

프로야구 최고의 인기스타들이 벌이는 한여름의球宴 82년시즌 올스타 게임이 7월1일(釜山)、3일(光州)、4일(서울)、3차에 걸쳐 펼쳐진다.

한국 야구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6개구장 입장객을 비롯한 야구팬 인기투표로 올스타 게임에 스타팅 멤버로 출전할 東西양군의 베스트10(지명타자 포함)을 선정、발표했다.

총 5만5천2백27표의 포지션별 인기투표에서 최다득표의 인기는 西軍으로 편성된 해태 타이거즈의 1루수 金奉淵(3만3천5백48표)이 차지. OB베어스의 지명타자인 홈런王 金宇烈은 3만2천4백79표로 東軍의 최고득표자가 되었다.

인기투표로 결정된 東軍의 투수는 OB의 최다승투수 朴哲淳、포수는 三星라이온즈의 李萬洙. 1루수 申慶植(OB) 2루수 裵大雄(三星) 3루수 金用熙(롯데) 유격수 吳大錫(三星) 좌익수 張泰洙(三星) 중견수 鄭丘旺(三星) 우익수 尹東均(OB) 지명타자 金宇烈(OB)。

각팀별 분포로는 OB 4명、三星 5명으로 대부분이며 롯데는 1명。

西軍 스타팅 멤버는 투수 金勇男(해태) 포수 柳承安(MBC) 1루수 金奉淵(해태) 2루수 李光殷(MBC) 3루수 金仁植(MBC) 유격수 鄭永基(MBC) 좌익수 李鍾道(MBC) 중견수 金宇根(해태) 우익수 金準桓(해태) 지명타자 白仁天(MBC)。

팀별로 MBC 6명、해태 4명이며 三美선수는 한명도 끼지 못했다.

OB、三星、롯데의 3개팀선수들을 망라한 東軍의 지휘권은 선두팀 OB의 金永德감독이 맡게되며 MBC、해태、三美로 편성된 西軍사령탑은 MBC의 白仁天감독이 맡게된다.

양군감독은 각각 코치2명、베스트10을 제외한 잔여선수 15명씩을 지명、팀을 구성하게 된다.

7월1일 釜山 1차전서는 西軍이、3일 光州 2차전서는 東軍이、4일 서울 최종전(야간경기)서는 西軍이 선공팀이 된다.

야구스타들의 잔치인 이번 올스타게임에는 승리팀에 1백50만원、패전팀에 50만원씩 3차전을통해 총 6백만원의 게임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경기마다 수훈、승리투수、우수선수、타격、감투、미기、홈런、승리감독등 8개 개인상이 수여되며 3차전성적을 토대로 최우수선수(미스터·올스타)가 선정된다.【方錫皓기자】

◇兩軍베스트10

東軍		西軍
金永德	감독	白仁天
朴哲淳	투수	金勇男
李萬洙	포수	柳承安
申慶植	1루수	金奉淵
裵大雄	2루수	李光殷
金用熙	3루수	金仁植
吳大錫	유격수	鄭永基
張泰洙	좌익수	李鍾道
鄭丘旺	중견수	金宇根
尹東均	우익수	金準桓
金宇烈	지명타자	白仁天

톰·왓슨 優勝 US오픈골프
準優勝니클라우스

【페블비치(캘리포니아州)=聯合】톰·왓슨은 21일 82년도 US오픈의 마지막날경기에서 魔의 17번홀을행운으로 넘겨 토탈 2백82타(72-72-68-70)로 우승했다. 5연승의 벽을 뚫으려던 잭·니클라우스는 2백84타로 준우승했다.

왓슨은 全英오픈에서3번、매스터스에서 2번 승리한바 있으나 US오픈챔피언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금은 6만달러。

崔忠日 6회KO勝
세계再挑戰 전초전

프로복싱 WBC주니어라이트급 5위인 崔忠日은 20일 文化체육관에서 벌어진 세계타이틀전초전에서 필리핀 동급1위 펠·살바돌을 6회2분10초만에 KO로제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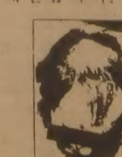
오는 8월중순 동급세계챔피언 라파엘·리몬(멕시코)에 도전예정인 崔忠日은 이날 롱훅일변도의 살바돌을 날카로운 스트레이트로 압도、3회중반 한차례 로프다운을 뺏은뒤 6회 살바돌의 안면에 원투스트레이트를 적중시켜 승리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보십시오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자극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537-3104

공 고

금번 한인회에서는 교민 체력향상을 위해 한인친선야구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 시: 7월31일(토) 오전 8시30분
장 소: 코로네이션 파크 야구장
참가비: 팀당 $60(주장회의때까지 납부)
종 목: O.B.팀 (전원이 30세 이상으로 구성)
대표팀 (중복출전 불가)
주장회의: 7월23일(금) 오후 7시30분 한인회관
시 상: ○.대표팀 1, 2, 3등
최우수선수상, 피처상, 타격상, 미기상, 감투상
○.O.B.팀 1, 2등, 최우수선수상, 미기상, 감투상

●OASA(온타리오 아마추어 소프트볼 어쏘시에이션)룰을 적용하며 상세한 것은 주장회의에서 결정함.

연락처: 하주용 ☎: 769-5956 박재선 ☎: 755-6434 브랜든운동구 ☎: 598-3732
대회장: 박인순, 고문: 김문량, 진행위원장: 박재선
심판위원(무순): 정세용, 조동식, 박세영, 윤호영, 장인택, 최광준, 박재선, 조용더
찬조금 명단: 백이삼 $100 서춘원 $100 이화용 $100 서동헌 $50
이인모 $50 호세환 $50 표봉길 $60 조규혁 $50 윤용탁 $50
장영대 $50 이홍규 $50 박해영 $50

주최: 토론토한인회체육부
후원: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 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조의문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29일 韓美外相회담

李外務、오는 27일 급거向美

한반도情勢·經協증진 논의

太平洋頂上회담 개최문제도

李範錫외무장관은 헤이그 美국무장관의 초청으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하며 29일에는 韓美外相會談을 갖고 국제정세 전반및 양국간의 友好증진및 懸案문제에관해 논의한다。

◇헤이그국무장관

◇李範錫외무장관

외무부는 21일 李장관의 訪美계획을 발표하면서『美국무장관의 초청으로 韓美외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히고『李장관의 公式訪美는 韓美修交1백주년을 맞아 화대일로에 있는 양국간의 협력무드를 한층 증대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李장관과 헤이그국무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의 北傀동향과 韓半島의 정세검토 ▲南北對話재개및 평화적 統一방안추진 ▲韓美상호방위조약의 확고한 실천▲韓美수교 1백주년사업의 後續시행조치▲經濟協力증진▲태평양頂上회담개최문제등에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질 예정이다。

李장관은 헤이그국무장관과의 공식회담이 끝난후 美행정부및 의회지도자들과 일련의 접촉을갖고 韓美간의상호공동관심사를 협의할 예정이다。

외무부의 한관계자는『이번 워싱턴회담은 韓美修交1백주년을맞아 금년중에 헤이그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국제정세등에 따른 미국측사정으로 그의訪韓이 어렵게되자 李範錫장관을 초청하게된것』이라면서『현재 양국간에는 특별한현안이 없기때문에 李장관의訪美는 韓美간의 전통적인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경제문제를 포함한 양국의 일반적인 문제등에관해 긴밀한대화를 갖게되는 계기가될것』이라고 전망했다。

李장관의 이번 訪美는 지난 12일 임시귀국차 외무부에 들른 워커駐韓美대사를 통해 합의된것으로 알려졌는데 李장관은 27일 出國、5泊6日동안 미국에 머문뒤 7월2일 귀국할 예정이다。

韓美 외상회담은 작년10월5일 盧信永前외무장관이 유엔총회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때 헤이그장관과 만나 韓日관계를 포함한 극동지역정세를 협의한후 8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다。

果川 정부廳舍 제2棟완공

保社部 來12일 이전

商工部、綜合廳舍에 남기로

정부는 果川의 정부제2廳舍의 제2棟완공에따라 단계적으로 移轉키로한 당초의정부청사재배치계획을 최종확정、1차로 오는7월12일 保社部를 필두로 移轉작업에착수키로했다。

정부는 최근들어 民願人들의 발길이잦은 상공부를 果川청사로 옮기는案을 검토했으나 경제기획원、재무부등 경제관계부처와의 긴밀한협조필요성에따라 당초 계획대로 상공부는 종합청사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果川청사 제2棟의 완공에 따라 7월안에 保社部에이어 科技處가 果川청사로 이전하고 이들2개 部處가 빠져나간 현綜合廳舍자리에는 오는 8월부터 중앙청의 총리실、총무처、법제처등이 옮겨가게된다。

중앙청에있는 부처들은 내년2월 모두 종합청사로 옮기게된다。

◇全대통령、旱害극복농민들 격려 全南北지방旱害시찰에 나선 全대통령이 揚水機로 물을끌어올리는 농민들을 격려하고있다。

地下水脈圖 80年代안에 完成

地下水·小型댐개발 全力토록

全대통령、休日 全南北시찰

全斗煥 대통령은 일요일인 20일 상하오에 걸쳐 全南北의 旱害지역을 시찰한뒤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旱害대책을 세우도록 하라고 관계관들에게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旱害가 있지만 질병이 없어 다행』이라고 말하고『그러나 여름철을 맞아 도시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질병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오는80년대말까지 전국에 걸쳐 地下水脈圖작성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히고『그때까지는 지하수를 개발할때 한두군데만 파본뒤 포기하지말고 가능한 지역을 꾸준히 굴착、水脈발견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小型댐을 이용한 저수지개발에도 역점을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특히『揚水機를 동원、旱害를최대로 극복하는데 軍官民합동으로 전력을기울여야하며 非使用期의 양수기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하고『지하수개발에 있어서 장비가 부족할 경우 필요한 지역에는軍당국과협조、軍장비를 동원하는 방법도강구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서울을 떠나 全南 光州를 거쳐상오10시 海南郡黃山面 旱害현장에 도착、양수기로 물을 퍼올리는 모습을 살폈다。

全대통령은 이어 헬리콥터로 海南郡門內面與洛里 旱害현장에들러 申鉉雨海南군수로부터 旱害대책추진현황을 보고받은뒤 헬기편으로 여자중고교를 방문、학교현황을 살피고 靈岩邑내 대중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지역기관장들과 함께하며 환담했다。

全대통령은 또 하오에는全北南原에있는 萬人義塚관리사무소를 찾아 관리현황을 알아보고 이어 南原군청에서 尹基鎬부군수로부터 旱害극복대책을 보고받은뒤 南原에서 大邱에 이르는 88고속도로건설현장을 항공시찰하고 大邱에 들러 鄭采鎭慶北지사로부터 道內旱害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全대통령의 旱害지역 시찰에는 盧泰愚내무、朴鐘汶농수산부장관、南在斗民正黨총재비서실장、金文憲농촌진흥청장、金琫植全南지사등이 수행했다。

尹國防、각軍에指示

"가뭄극복에 兵力·裝備지원"

尹誠敏국방장관은 21일 상오 육해공군관계관회의에서 가뭄이 심한 남부지역의군부대는 가뭄이 해소될때까지 가능한 모든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급수및 농수지원을하도록 지시했다。

시아누크、캄에 入國예정

反越 3세력 聯政서명후

【홍콩21日AP＝聯】 前캄보디아국가元首 노로돔·시아누크공은 21일 北京을 떠나 홍콩에 도착、자신은 22일 콸라룸푸르에서 다른 2명의 캄보디아反越세력 지도자들과 오랫동안 고대해온 反베트남연정협정에 서명한후 캄보디아에 입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콸라룸푸르로 떠날 예정인 시아누크공은 홍콩으로 온 비행기안에서 기자들과 회견을갖고 연립정부의 본거지마련을위해 자신이 직접 타이국경에 인접한 캄보디아 영내지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거주하지는않고 수년동안 망명생활을해온 북한과 중공을 계속왕래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聯政軍이 베트남지원하의 캄보디아군에 대항해 싸울수 있도록『중공에 더많은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離任 駐韓泰國대사

全대통령、接見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21일하오 청와대에서 아사·분야프라투양 駐韓泰國대사의 離任예방을받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李範錫 외무장관이 배석했다。

權 民正총장 23·24일全南北지역 道支部·地區黨순시

權翊鉉 民正黨 사무총장은 오는23·24일 이틀간 全南北도지부및 지구당을 巡視하고 당원들에게「6·16」青瓦臺회담의 성과를 인식시키는한편 지구당조직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權총장은이어 이달말에 京畿·江原지역을、7월초에는 慶北·忠南北지역을 각각 순시할 계획이다。

아르헨 새大統領에 라나리 추대가능성

【부에노스아이레스21日路透＝聯】 아르헨티나의 군사지도자들은 차기 대통령에 군부인사를 옹립한는데 합의를보지못할경우 휀·라몬·아키레·라나리 현베네수엘라 주재대사를 차기 대통령으로 지명할 것이라고 노리시아스아르헨티나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3군사령관으로 구성된 군사평의회가레오폴도·갈티에리 대통령이포클랜드 전쟁에서 패배한데대한 책임을 지고 군부의 압력으로 사임한데 따른 국가지도체제의 위기를 세차례에걸쳐 토의한후 나온것이다。 앞서 열린 세차례의 회의가 교착상태에 빠진것이 분명한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군사평의회는 21일에도 회의를계속할 계획이다。

이·PLO、不安한 休戰계속

多角的인 外交노력 전개 사흘째

【뉴욕·베이루트20日UPI·路透＝聯】 레바논의수도 베이루트가 폐허로 화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한 다각적인 외교노력이 전개되고있는가운데 베이루트를 포위하고있는 이스라엘軍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軍사이에는 대체로 불안한 휴전상태가 지속되면서 휴전3일째인 20일밤 서부베이루트의 남쪽외곽지역에서 한때 격렬한 포격전이 벌어졌다고 레바논정부소식통들이 전했다。

필립·하비브 美中東特使의 중재로 이루어진 48시간의 휴전은 이날 상오를기해 만료되었으나 이스라엘측은 PLO측이 공격해오지 않는한 휴전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은『조속한 시일안에』이스라엘과 레바논간 평화가 이룩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침공하거나 야세르·아라파트 PLO의장을 생포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리아가 이스라엘軍의 레바논 철수를 감시하기 위한 국제평화유지군창설안을 수락할것이라고 밝힌가운데 레바논지도자들은 이날처음으로 7人비상위원회를 소집、분쟁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타개책을 찾지못했다。

平和軍 創設등논의 레이건、베긴會談서

메나헴·베긴이스라엘수상은 21일 레이건美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레바논주둔국제평화군의 창설과 미국의 평화군참여문제를 포함、레바논사태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베긴수상은 헤이그美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베이루트市에 포위돼있는 PLO처리문제를 논의했는데 이자리에서 헤이그장관은 이스라엘측에 PLO의 평화적 축출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다고 베긴수상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PLO지도자들이 무장해제에 동의할경우 이스라엘은 이들의 안전탈출을 보장할것 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목표는 폭40km의「안전지대」를 이스라엘 —레바논국경지대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2회 鳳凰大旗고교野球

전국高校팀 總出戰…8월1일開幕

每게임 對陣추첨제… 放學동안 펼치는 白球의 祭典

서울運動場서 熱戰 18일

社告

1·2回추첨 7월2일 하오2시
本社 12층강당서 實施합니다

申請마감 6월29일(火) 하오5시

제12회 鳳凰大旗쟁탈 全國高校野球大會(한국일보·日刊스포츠·대한야구협회共同主催·文敎部후원)가 오는 8월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서울운동장서 열리게 되었읍니다. 국내고교야구팀들이 총출전、파란과 이변의 드라마 처럼 펼쳐지는 盛夏의 祭典、鳳凰大旗고교야구는 금년도 고교야구의 실질적인 최강을 가려내는데 의의가 있읍니다. 더우기 鳳凰大旗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는 매회 대진을 추첨으로 결정하는 독특한 대진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우승후보팀들이 초반에 격돌하는등 게임마다 예측불허의 박진감이 넘쳐흐르고 있읍니다. 대회 1·2회전 대진추첨은 오는 7월2일(金) 하오2시 한국일보社 12층강당에서 갖게됩니다. 해마다 8월방학이면 일어닥치는 鳳凰구장의·한성과 熱風을몰고 초록鳳凰大旗(우승)주홍鳳凰大旗(준우승) 자색鳳凰大旗(3위)를 차지할 주인공이 어느팀이될는지 벌써부터 팬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읍니다.

◇大會요령
- ▲기 간=8월1일(日)~8월18일(水)
- ▲장 소=서울운동장 야구장
- ▲경기방식=매회 對陣추첨 토너먼트
- ▲신청마감=6월29일(화) 하오5시
- ▲대표자회의및 대진추첨=7월2일(金) 하오2시 한국일보 12층강당 (대표자1인)
- ▲입장식연습및 기념품배부=7월 31일(土) 하오2시

한국일보社 大韓野球협회 共同주최·文敎部 후원

社會漫評

〃이거 혹시 言論이 가뭄 만든거 아닌가?!〃

地平線

미국에서의 우스개 한가지。네거리 보행자 신호등에「WALK」라는 푸른글씨가 보인다。「걸으시오」인다。막 건너려는데 글씨가 바뀐다。「DO NOT WALK」얼핏생각에「걷지 마시오」다。그래 보도를 뛰어건너는 순간、고속으로 달려온 승용차가 끼익—하고 옆구리에 와닿을듯 가까스로 선다。사고 半步前이다。▼죄는 어설픈 영어 탓이다。「WALK」는「걷다」로도 문제가 없는데、그 앞에 禁止語(DO NOT)가 붙어서「서다」가 된다。그러나「걷다」의 반대말은「서다」이기보다「뛰다」라는것이 우리말의 語感이다。그만큼 우리가 섣급하다 할지는 모르나、막상 저들 백화점 계단에 써붙인「뛰지마시오」는 분명 조심해서 걸어내려가라는뜻이지、서란는 뜻이 아니다。그에 비하면 우리의「가시오」「서시오」는 얼마나 분명한가。▼이렇게 뚜렷대 보아야「사고 半步前」의 책임은 이쪽에있다。신호등의글씨가 바뀌면서 그색깔도 파랑에서 빨강으로 바뀌었을테니、그뜻을 생각않고 뛰어 나간성급함은 나무랄을 받아 싸다。우리 우리의「가시오」「서시오」가 분명하다 한들、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에게는 아무뜻이 없다。여기서도 교통안전에 요긴한것은 글뜻이 아니라 그 색깔이다。누구에게나 파랑은「안전」、빨강은「위험」이란 뜻이니까。▼이른바 국제화 사회의 교통표지는 그래서「글」을 쓰기보다는 그「그림」을 많이 쓴다。그것이 직관적인 호소력이 강하다。교통표지를 국제간에 통일하면、특정된 언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당황할 것이 없게된다。예컨대 빨강 3각형은 주의 표지、빨강 빗금과 검은색 그림은 금지표지、푸른 바탕의 흰 글씨는 지사표지라는것이 국제적인 약속이다。▼우리나라 교통표지는 대강 이 약속을 지키고 있으나、아직 개선할 여지가있다。올림픽을 앞두고 이들을 국제화함은그때문이다。그런데여기모를일이 있다。내무부의 도안을보면、「멈춤」은「정지」로、「[illegible]」은「주차」로、「[illegible]」은「횡단금지」로 漢字語化한다。한글표기한 漢字語가「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도 없는데 굳이 漢字語로 되돌아가야하는 까닭을 알수가 없다。▼「날틀」「배움집」의 주장이 아니라、「가시오」「서시오」의 걸작을 냈던 한글化의 前功이 아깝다。새 교통표지라고 정부의 用語 순화노력을 등진것은 아닐텐데 말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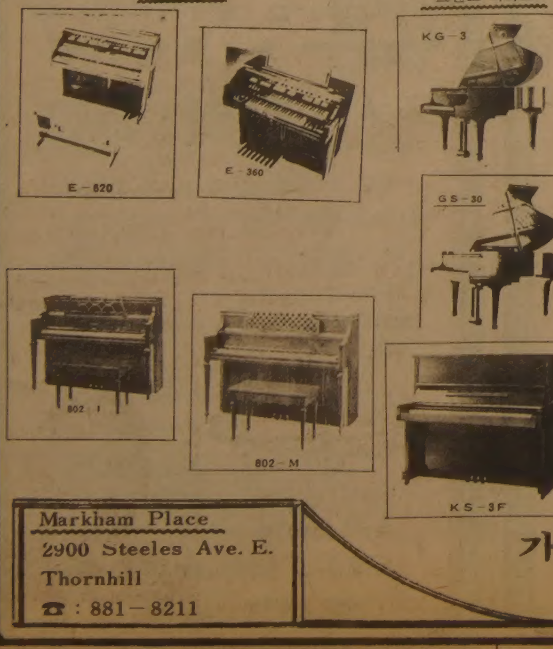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나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가와이피아노및 올갠
여름철특별대매출
BONTEMPI이태리안 올갠


모짜르트 음악원
여름특강생 모집
~~ 기간 : 7월7일~8월25일 ~~
특수과목 : THEORY(GRADE I II)
HARMONY(GRADE III)
HISTORY(GRADE IV)
담당교수 : MILA MULGREW, BARRY SCHONFELD
수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10시~오후12:30
수 업 료 : $250
일반과목 : 피아노, 바이올린, 전자올갠, 기-타(GUITAR), 훌룻, 첼로, 성악
수업시간 : 월~금 오전10~오후8시까지
토요일 오전10~오후4시까지
수 업 료 : $81(9 LESSONS) 등록금 15불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ER (모짜르트 Music Center)
대표 윤 호 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한국일보 (특집판) <2>

한국戰 秘話와 未公開사진

板門店까지

"仁川上陸은 도박"… 백악관 懷疑

맥아더, 처음엔 "내 한팔로 沮止"

事態 심각하자 단독 北爆결정

美, 中共보다 蘇參戰신경

美軍 투입

1950년6월25일새벽 비내리는 일요일。어둠을 뚫고 약9만명의 북괴군은 소련제T34 1백50대를앞세우고 남침을 개시했다。남침발발시각은 워싱턴시간으로는 토요일 저녁。

트루먼 대통령은 워싱턴을떠나 가족들과 휴가중이었다。저녁을 막 먹고난시각에 워싱턴의 딘·애치슨 국무장관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대통령각하, 중대한 소식입니다。북한군이 남한을 침공했읍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첫반응은 워싱턴에 급히 귀환한다는 것이었다。

트루먼 대통령의 딸 마거리트여사는뒷날『아버지는 북괴의 남침소식을 듣는순간 제3차전쟁의 서막이 아닌지 우려했다』고회상했다。

이같은 긴급한 재난사태에도 동요않고있는 유일한 사람은 더글러스·맥아더장군이었다。

6월25일 하오6시께 그는 東京사령관실에서 일본과의 평화조약문제 협의를 위해 방일한 미공화당외교정책대변자 존·포스터·덜레스일행과 만나고 있었다。

방일하기 며칠전 한국을 방문, 38선을 시찰한바있는 덜레스와 그를 수행한 국무성관리 존·앨리슨은 불과 몇시간전에 돌발한 한국전에 무관심한 태도를보이는 맥아더장군과 그들의 한국여행결과를 놓고 논의해보기를 원했다。그러나 한국전선으로부터의 보고는 여전히 단편적인것이었으며 맥아더는 전혀 우려의빛을 보이지않았다。맥아더는 덜레스일행에게『아마도 무력정찰에 지나지않을 것이다。만일 워싱턴이 막지만않는다면 내 한팔을 뒷짐지고도 처리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25일 아침 美합참(JCS)은 딘·애치슨국무장관도 참석한가운데 한국문제에관한 원탁회담을 개최했다。참석자들은 미국의 군사개입문제엔 관심을 보이지않았다。수개월전 합참은침공에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했다。합참이 작성, 국가안보회의(NSC)가 발표한 미국의 對韓정책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을 전략상의 이익이적은 곳으로 간주했다。트루먼 대통령이 승인한 이비상계획은『침공이 있을경우 미국은 가능한한 빨리 필요하면공중엄호대를 사용,군인,외교관, 민간인들을 철수시킨다。미국은 한국전에 말려들지 않아야한다』는 내용이었다。

한국방어를위한 美해공군투입결정은 26일(워싱턴시간)밤11시이후에 내려졌다。그러나 공식발표는 27일아침 의회지도자들에 브리핑을 한후로 연기되었다。

6월27일 한국전선의 상황을 검토한 미합참은 해공군의 지원만으로는 한국을 구할수없다고 판단했다。공군의 폭격으로 북괴탱크를 분쇄할수는 있지만 북괴 4분의1병력으로는 10만명의 북괴군을 저지시킬수는 없었다。

이무렵 맥아더장군은 워싱턴의승낙도 안받고 독자적판단으로 이미 38선이북에 폭격을 명했던것이다。

이날 백악관회의에서는 38선북쪽의 공중작전이 허용됐으며 釜山지역의항구、비행장、통신시설 보호를위해 이지역에 지상군을파견키로 결정했다。

誤判 공습

6월30일 밤9시 일본규우슈(九州)의 美제24보병사단 제21보병연대 제1대대장 찰즈·스미드中領(34)에 긴급출동명령이 떨어졌다。

황급히 연대CP에 도착하자 연대장 스티븐슨대령은『대대휘하 B·C중대를 이끌고 곧 한국전선에출동하라』는 명령을하달했다。

스미드대원4백40명중에는 75명만 전투경험이있었을뿐 나머지대부분은 취사병, 행정병으로 전혀 전투경험이 없는 20세안팎의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은 쏟아지는 폭우를 맞으며 5시간달린끝에 이다즈께공군기지에 도착했다。사단장 윌리엄·딘소장이 마중나와 있었다。딘소장은 한국육군본부의 정확한 위치도 파악하지못한채『아마 서울과 水原사이에 있을것』이라고만전했다。

딘소장도 제24사단병력을 비상소집, 한국전에 투입할 계획으로있었으나 근교 6개항구에는 수송선이 마침 없어 당황하고 있었다。

7월1일아침11시。6대의 C54수송기가 첫미군 전투부대인「스미드특공대」를 金海공항에내려놓았다。징발된 1백대의 트럭에 분승해 부산역으로달렸다。

민간인들은 북쪽의 사태가 심각하다고 전혀 느끼지못하고 있었다。수천명의 시민들이 휴일기분에들떠 거리를 평화롭게 거닐고있었다。

스미드특공대가 大田역에 도착하던날아침 거의같은시간에 李 대통령일행은 임시 수도였던 大田을떠나 다시 釜山으로향했다。

스미드중령은 大田에 와있던 처치장군(맥아더가 파견한 시찰단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水原으로 올라갔다。스미드는 水原비행장남쪽의 한 길목을 매복지점으로 선정했다。

平澤역에는 북행하던 열차 6량이 실탄을 가득 실은채 정차하고 있었다。기관사는 북괴군이 어디까지 진격해 왔는지 몰라 상부로부터 지시를 기다리고있었다。잘못하다간 북괴군 손아귀에 넘어갈 염려가 있었다。

이때 유엔군으로 막 참전한 호주전투기4대가 이 열차를 포착했다。

호주조종사들은 지상과의 통신이 미흡한데다 위치마저 몰라 이 열차를 북괴군 군수물자 수송열차로 착각했다。전투기들은 平澤역을 6번이나 저공비행한후 로키트와 기총소사를 퍼부었다。

순식간에 열차는 박살이 나고 수백명의 민간인이참변을 당했다。이같은 참변은 지상군과 미군및 연합군 전투기간의 교신불량으로 연이어 발생했다。

水原근처에서 미공군기들은 한국군 전차부대를공격했고 화가난 한국군들은 전투기에다 총질을해 전투기1대를 추락시키기도 했다。한美군사고문관은『아군비행기들이 7월3일 하룻동안 5번이상 우리기지를 공격해왔다』고 주장했다。美전투기들은 水原-烏山간 도로에서 한국군트럭30대를 파괴하고 한국군2백여명을 사살하는등 과오를 범했다。

일본을 떠난지 5일만인 7월5일상오8시16분。매복중이던 스미드특공대는 다가오는 8대의 북괴군탱크에 1백5㎜포와 75㎜바주카포를 퍼 부었다。다급한 신병들은 탱크에 M1소총까지 쏘아댔다。북괴군탱크들은 물밀듯 밀려내려왔다。

다시 일제히 사격을가하자 2대의 탱크에 불이붙었다。북괴군탱크병2명이 손을들고 나왔다。세번째 탱크병은 나오면서 사격을 가해 미군1명이 숨졌다。다른탱크에서 2명이 뛰쳐나와 들판으로 도망쳤다。스미드대원들은 이들을 추격 사살했다。

10시15분까지 약2시간에걸친 전투에서 40여대의 북괴군탱크가 이길목을 지나쳤다。스미드 특공대는 그중 4대를파괴하고 3대에 파손을 입혔다。

화력면에서 절대적으로 약세였던 스미드대대는 20명의 사상자를남기고 퇴각해야만 했다。포위망을 뚫고 합류한 美34연대도 후퇴와 후퇴를 거듭했다。

仁川 상륙

한국전이 발발한지 5일이 지난 후 맥아더장군은 한강변의 둑에 서서 20분간 전황을 살폈다。그때이미 2차대전때의 대규모상륙작전을 머리에 떠올리며 仁川상륙작전을 구상했다。

東京에 돌아 온 맥아더는 즉각 참모들에게『서울 가까이』에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계획을 세우라고지시했다。

「블루하트작전」계획이 수립됐다。7월22일, 美제1기갑사단이 仁川에 상륙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장비·병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일단 포기했다。맥아더는 수개월후로 날짜를잡아 다시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참모들은 크로마이트작전을 내놓았다。①仁川상륙과 동시에 美8군이 부산전선에서 일제히 대공세 ②群山상륙 ③注文津근처 상륙案이 제시됐다。

맥아더는 仁川을 선택했다。7월23일 워싱턴에 급전을 쳐 9월중순으로 예정된 상륙작전계획을 알렸다。

그러나 맥아더의 구상은 시련에 부딪쳤다。美합참의장 브래들리장군은 간만의 차가 심한 仁川상륙작전에 부정적인반응을 보였다。백악관에서도「불안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8월23일 하오5시 東京다이이찌빌딩에서 仁川상륙작전을 검토하기위한 軍수뇌회담이 열렸다。콜린즈육군총장과 합참의 셔먼제독등 장성10여명이 자리했다。

群山을 상륙지점으로 하자는 제의도 나왔다。

맥아더는 파이프담배만 문 채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모두의 발언이 끝나자 맥아더는 천천히 일어나 낮은 목소리로 시작해 언성을 높여가며 장장 45분간 仁川상륙작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적군이 낙동강전투에 치중하고 있기때문에 仁川방어에는 소홀하다。간만의 차가 심해 적이 감히 상륙작전을 하지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仁川이 오히려 유리하다』고주장했다。장내분위기는 숙연해졌다。

합참은 仁川상륙작전에 대해 계속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8월28일「크로마이트작전」전문을 맥아더에게 보냈다。

仁川상륙작전은 어느새 東京외신기자들에게 파다하게 전해졌다。

맥아더는 미공군에요청, 9일간 군산지역을 맹폭, 적을 혼란시키는 양동작전을 폈다。

드디어 9월15일 어둠이 깔린 仁川앞바다에는 마운트·매킨리號를 주축으로 순양함·구축함등 19척으로 구성된 仁川상륙함정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느새 북괴군이 함대를 포착하여 포사격을 가해왔다。

새벽5시45분 도일제독은 일제사격명령을 하달했다。천지를 뒤흔드는 함포사격은 적의 포대를 순식간에 박살내고 月尾島는불바다로 변했다。

6척의 구축함에서 1시간동안 5인치포를 9백98발을 쏴댔고 이튿날엔 75분동안에 1천7백32발을 토했다。

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때 오마하해변에퍼부은 화력수준과 맞먹는것이었다。

美해병대의 첫상륙지점은 月尾島의 북쪽능선인「리디오·힐」이었다。

작전첫날 함포사격을시작한지 1시간10분만인 새벽6시55분 알빈·스미드상사는「리디오·힐」꼭대기의 앙상한 나무가지에 성조기를 걸었다。

쌍안경으로 월미도를 주시하고 있던 맥아더는『바로 저거야。코피나 한잔씩 들지』라고 말하면서 일어섰다。

맥아더의 仁川도박이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中共 개입

북한인민군이 패퇴중이던 9월말, 미국은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야 하느냐 넘지말아야 하느냐는 정치적 문제에 직면했다。

전투중인 군대가 국경에 도달하는순간 추격을 멈추고 다시 수비태세로 돌아간다는 것은 군사이론상있을수없는 일이었다。

애치슨과 맥아더는 北進한다는데 의견이 완전히일치했다。

맥아더는 워커장군휘하의 8軍이 서울에서 북서쪽으로 진격、平壤을 점령하고、앨먼드장군의 10군단은 仁川에서 뱃길로 남하, 남해안을 돌아서 元山으로 들이닥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元山서 합류한 8軍과 10군단은 興南에서 定州로이르는 북한의 가장 좁은 지역을 장악하고, 그이상의 지역엔 한국군만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맥아더가 이같은 작전을 세운 것은 元山항같은 보급루트가 없이는 북한에서 작전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같은 맥아더의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된다。

38선을 넘어 동쪽전선을 타고 진격중이던 한국군3사단과 수도사단이 10군단의 미군병력을 태운 전함들이 元山항에 닿기도전에 이미 元山을점령해버렸다。

10월26일 한국군 6사단을 따라 美7연대의 정찰소대가 압록강 유역도시楚山에 첫도착했다。이 정찰소대는 한국전에서 압록강에 도착한 최초의 美8군 부대였다。

10월20일 맥아더의 정보참모였던 찰스·윌로비장군은 극동사령부에 제출한 정보보고서에서 사실상 전쟁의 종말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미 그때 중공군은 한국전에 개입하고있었다。전쟁은 역전극을 맞는 고비에 다다랐다。

중공은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온다면 한국전에 개입하겠다고 계속 경고를 해왔다。

중공은 駐美영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직업외교관 킴·필비와 가이·버게스 그리고 도널드·매클린등 3명의 거물스파이들이 소련에 첩보노릇을 하면서 소련측에넘긴 정보로 북진정책을 알고있었다。

미 CIA나 극동군사령부는 중공개입보다 오히려소련참전에 신경을 세우고있었다。소련이 북한을 조종해 전쟁을 일으킨것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압록강유역을따라 진격하던 한국군6사단의 1개대대는 10월25일 최초로중공군과 부딪쳤다。

한국군에 체포된 중공군포로는 자신들이 한국군을 기습하기위해 10월17일부터 산악지방에 매복했었다고 말했다。서부전선에서 1사단은 중공군과 정면으로 조우하기 시작했다。

10월29일부터 한국군은 중공의 3개 야전군과 맞닥뜨렸다。중공군은 주로 야음을이용, 기습공격을펴 한국군및 유엔군을 괴롭혔다。결국 압록강까지 진격한다는 맥아더의계획은 중공군개입으로 무산됐다。

11월에 들어서면서 중공군이 갑자기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이는 전형적인 중공군의 이른바 毛澤東전략이었다。『적군이 진격하면 아군은 후퇴하고 적군이 멈추면 적군을 괴롭히고、적군이 지치면 아군은 공격하고、적군이 퇴각하면 아군도 추격한다』는 것은 毛澤東이 요약한 비정규전의 승로전이었다。

갑작스런 중공군의 잠적에 대해 미군전략가들간에 논란이 오갔다。

중공군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공격해올 것이라는 분석들도 있었으나 맥아더는 또 이를 무시、중공의 개입은 단순한 접에 불과한 것이었다며 계속 북진을 주장했다。

◇월미도에상륙, 해안에 바리케이드를 쳐놓고있는 美해병대。(50년 9월)

◇포로로잡힌 최초의 중공군。처음조우한미군은 이들을 북괴군으로 알고있었다。

◇1951년봄 인해전술에 동원됐던 중공군병사들이 미해병에의해 대량사살된 장면。중공군은 이때의 중부전선전투에서 불과 1시간만에 4백명이상의 희생자를냈다。

6·25 주요日誌

◇1950년

▲6월25일=북괴군 남침개시。

▲6월27일=유엔安保理, 회원국의 對韓지원요구 미국 결의안채택。정부 大田으로 이동결정。

▲6월28일=漢江인도교와 철교, 공장교폭파。북괴군 서울점령。

▲6월29일=맥아더 한국전선시찰。

▲6월30일=美스미드부대 烏山도착。

▲7월4일=水原실함。육본, 水原서 平澤→大田으로 이동。딘少將파한미24사단장에 임명。

▲7월7일=맥아더원수, 유엔군총사령관에 임명됨。

▲7월12일=한국군 지휘권 유엔군사령관에 이양(大田협정)。

▲7월20일=大田실함。딘소장 포로됨。

▲7월25일=영국, 한국에 지상군파병결정。

▲8월18일=정부기구 大邱서 부산으로 이동。

▲8월19일=한국3사단浦項탈환。

▲8월24일=중공 周恩來수상, 미7함대의 대만해협 철수 요구。

▲9월15일=유엔군 仁川 상륙작전성공。

▲9월24일=韓美해병대서울진입。

▲9월28일=서울탈환。

▲9월29일=정부 서울로 이동。

▲9월30일=워커중장, 38선돌파명령。맥아더원수, 金日成에 항복권유。

▲10월3일=국군 38선 돌파。

▲10월7일=유엔총회, 유엔군에 북괴군을 이북까지 추격토록승인。

▲10월8일=유엔군 38선돌파。

▲10월19일=유엔군 平壤장악。

▲10월20일=맥아더원수, 워커 美8군사령관에 韓滿국경까지 조속진격명령。美10군단, 元山상륙개시。

▲10월21일=북괴 수도를 新義州로 이전。

▲10월25일=중공군, 한국전 개입。

▲10월26일=국군6사단 7연대, 鴨綠江도착。국군과 중공군 첫충돌。

▲11월4일=미해병1사단, 중공군124사단과 접전。

▲11월13일=트루먼 대통령, 맥아더장군에 滿洲폭격금지명령。

▲11월26일=유엔군후퇴시작。

▲12월3일=申性模국방, 유엔에 원폭사용요청。

▲12월23일=국군, 미10군단및 10만피난민, 興南서 철수。

▲12월27일=리지웨이장군, 미8군사령관에 취임。

◇1951년

▲1월15일=유엔군, 공산군진격저지성공。

▲3월14일=유엔군, 서울재탈환。

▲3월24일=李 대통령, 韓滿국경진출까지 정전거부선언。

▲3월31일=유엔군 선발대, 38선도착。

▲4월11일=맥아더원수, 유엔군사령관등 공직서 해임됨。

▲4월23일=중공군, 춘계공세。

▲6월30일=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 휴전회담 제의。

▲7월10일=開城서 휴전회담개막。

▲10월27일=현 군사분계선에서 휴전 합의。

▲10월28일=휴전회담서 포로명단교환。

◇1952년

▲2월18일=巨濟島포로수용소 폭동。

◇1953년

▲4월1일=공산측, 病傷 포로교환 동의。

▲4월11일=李대통령, 한국군의단독북진선언。

▲4월25일=휴전회담 板門店서 재개。

▲5월3일=공산포로 6천7백70명 북송완료。

▲6월4일=한국참전 16개국대표, 美국무성서 휴전에관한 비밀회담개최。

▲6월8일=송환거부 포로문제에 합의。

▲6월9일=휴전회담반대 궐기대회。

▲6월18일=李 대통령지시로 반공포로 2만5천명 석방。

▲6월20일=휴전회담 결렬。

▲6월25일=로버트슨특사및 클라크장군, 李 대통령과 비밀회담。

▲7월27일=휴전회담 板門店서 조인。하오10시기해 전투중지。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41>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응달 ㉑

주인남자는 다시는 오목이에게 눈을 주지않고 주판질을 하면서 말했다。

『유군은 학원에 갔는데』

『학원요? 일환이 오빠가요? 그럴리가…』

오목은 절망스럽고 드높은 소리를 냈다。어쩌면 자기가 찾는 일환이가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공부와 일환이는 그만큼 어울리지 않았다。

주인남자는 오목이가 묻기도 전에 일환이가 저녁이면 나간다는 냉동고압가스학원이란데가 거기서 멀지않은곳에 있다는걸 가르쳐줬다。조금도 친절하지 않으면서 사무적으로 정확하게 오목이를 어서어서 쫓아버리고싶은 눈치였다。

큰 창고에 창구멍만 뚫어놓은 것처럼 멋없는 살벌한 건물에 냉동학원 말고도 부기학원, 기타학원, 기원등의 간판이 붙어있었다。학원이 면한 길은 번화가의 뒷골목인데도 인적이 드물고, 외등조차 없어 한밤중 같았다。

오목이는 어둠속에 숨어서 냉동학원의 희미한 현관 불빛속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이른 봄의 야기(夜氣)가 속살로 파고들어 오목이는 몸을 웅크려 움츠렸다。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혼자서 또는 두셋이 어울려 나오는 사람들은 더러 있었지만 남빛속을 너무 빠르게 통과해서 곧 어둠속에 용해되고 말았다。일환이를 못알아볼까봐 조마조마했다。

번화가의 이십층 빌딩앞에서 인재를 기다릴때 생각이 났다。자신의 그늘진 생애에서 그 부분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처럼 밝고 화려해서 정말 있었던 일 같지가 않았다。흰 와이셔츠 칼러에 대한 동경이 마치 백마를 탄 기사를 그리는 꿈처럼 가당치않았다는게 슬퍼서 눈앞이 흐려졌다。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던것 같았다。밤의 추위는 각별했다。몸보다 마음이 추웠고, 바람도 옷깃을 헤치고 마음갈피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드디어 일환이가 나타났다。우루루 몰려나온 한패거리에서 약간 뒤져서 어깨를 꾸부정하니 굽히고 고개를 뺀 일환이를 알아보자마자 오목이는 맥이처럼 달려갔다。

『일환이 오빠』

일환이는 한발자국쯤 뒤로 물러서면서 오목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했다。낯익은 그의 순박한 표정에도 불안한 도시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오빠, 나야, 목이야。얼마나 오래 기다렸다구』

『여긴 어떻게 알구?』

『여기까지 알아내느라고 혼 났어。』

『배 고프겠다。』

오목이는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일환이가 선뜻 다가왔다。오목이는 비로소 시장기와 안식처를 찾았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나도 출출해』

어두운 뒷골목에서 일환이의 큰 덩치가 거목처럼 미더웠다。오목이는 그가 끼고있는 책을 슬쩍 빼내서 그 부피를 가슴 뿌듯이 껴 안으면서 말했다。

『천신만고 오빠 있는데를 찾았는데 날씨 주인아저씨 말이 오빠가 학교 갔다지 뭐야。난 내가 찾는 일환이 오빠가 아닌줄 알았어』

『학교? 여긴 네가 생각하는 그런 학교하곤 달라』

『그래도』

『대학은 갔니?』

『아니、검정고시 칠 기회도 없었는걸』

『뭐라면 먹을래?』

『암거나』

『그게 그냥 라면보다 든든해』

일환이가 앞장섰다。

流星의 賦 <413>

李炳注 作 / 李友範 畵

壬辰의 해는 저물어 ⑪

『그래 아씨의 시신은 어떻게 하였나』

홍계남이 물었다。

『마을 뒷산에 가묘(假墓)를 만들었읍니다』

늙은 종의 눈엔 아직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

계남은 이제 싸늘한 시신이 되어 꽁꽁 얼어붙은 땅속에 묻혀 있을 숙랑의 모습을 뇌리에 그렸다。

『말을 못하는 그 답답한 마음을 내게 쏟고, 나를의지하고 살았던 쓸쓸한 여인!』

청념 이숙랑은 달빛 아래 피어있는 목련꽃을 닮아있었다。그 유현한 모습, 청초한 기품!

『아아 그처럼 처참하게 죽다니』

하다가 계남이 문득 물었다。

『그 입가라고 하는 놈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아옵니다』

하고 늙은 종이 한 말은―。

『아씨가 돌아가시고 나니 그 마을에 있어야 할까닭이 없어졌읍죠。가묘를 만들어 삼우제를 지내곤 한성의 집으로 돌아왔읍죠。그리고 어느날 거리에서 그 입가놈을 만났읍니다。같은 놈들끼리 서넛이 의기양양 걸어가고 있었읍죠。뒤 따라 가보았읍니다。몸둥 어느 집으로 들어가데요。알고보니 그집은 그 왜놈에게 붙은 놈들이 모이는 곳인던죠。입가놈은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있는 것같습데다。나으리,그놈을 붙들어 아씨의 원수를 갚아 주옵시오』

계남의 감정대로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한성으로 달려가서 그놈을 붙들어 찢어죽이고 싶었다。전신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다。계남은 한성으로 침입할 방도를 생각하기 시작하다가、사분(私憤)과 공분을 혼동해선 안된다고 마음을 진정하고 앉았다。

『이영 나으리로부터 무슨 소식이 있었느냐』

『없었사옵니다。송운으론 평안도에 계신다고 하였읍니다만』

계남은 이영이 누이 동생의 참변을 들었으면 오죽이나 상심할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이영의 근황에 대해 궁금증을 느꼈다。

(살아 계시기만 하면 다행이련만)

밤은 깊어만 갔다。

막사 밖을 지나가는 동초(動哨)가

『눈이 내립니다』

하는 말을 던져놓고 지나갔다。

『영감, 고단하겠다。가서 푹 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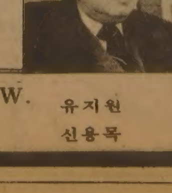
하고 계남이 부하를시켜 늙은 종을 석개동이 묵고있는 막사로 데려다 주도록 했다。김섬멍의 종 석개동은 노독(路毒)을 풀기위해 그때까지도 광교산 진중에 있었던 것이다。

늙은 종을 보내놓고 계남이 다시 생각에 잠겼다。전사한 아버지와 고종사촌,많은 의사들,부하들。그리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할것인가。두보(杜甫)의 시에「신지생남악(信知生男惡)、반시생녀호(反是生女好)、생녀유득가비린(生女猶得嫁比隣)、생남매몰수백초(生男埋沒隨百草)」、즉 여자를 낳으면 이웃에 시집보낼 수도 있지만 남자를 낳으면 전사하게 된다는 뜻이지만、이 전쟁엔 남자도 여자도 없는 셈이다。바깥엔 눈이 내리고 있고。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여권, VISA수속 서비스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제10회
런던한인친선골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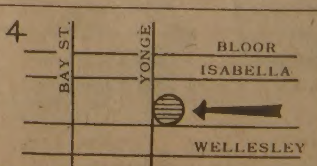
아래와 같이 금년에도 전 교민 친선골프대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많은 골퍼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 7월 3일(토요일) 12시 정각
장 소 : Thames Valley Golf & Country Club
850 Sunninghill Ave, London ☎ : (519) 471-5750
참가비 : $30.00(Steak B.B.Q 디너 포함)
상 품 : GROSS 1, 2. 3등(Annual Trophy) • NET 1, 2, 3등
NEAREST HOLE(CASH $100.00) • LONGEST DRIVER
★트로피 외에도 많은 부상이 준비되어 있음.

연락처(☎) : 김태수 (519) 438-6644 신동삼 (519) 681-7149
서경승 (519) 686-9268 이석범 (519) 433-1631
김동수 (416) 270-5515 이창희 (416) 639-3139
이창복 (416) 624-0511 김현모 (416) 251-6578

주 최 : 런던 한인골프클럽

江戶前 太鼓寿司
어제 오신 분이 — 또 오십니다
쓰시(김밥)전문
일본음식중 김밥만 전문으로 하고 있읍니다.
밤 12시까지 OPEN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십시오.



TAIKO SUSHI
607A YONGE ST.
☎ : 921-6408

한국일보 (특집판)

한국戰 秘話와 未公開사진

「極東司」에서

北進 강행

맥아더가 행동을 개시할 채비를 하고있다는건 비밀이 아니었다.

그해 11월24일자 영국런던 타임즈지는 미국신문보도를 인용, 워싱턴발신으로 다음과같은 기사를 보도했다.

『…미군8개사단, 한국군 4개사단과 영국군1개여단합동으로 이른바「끝내기작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작전목표는 압록강 연안을 서해안쪽에서 밀어붙여 이미 한국군이 도달해놓은 지점에서 합류한다는 것이다』

기사를보낸 특파원은 이 진격작전을 사전에 공보용으로 알린다는것으로 간주하고 참 기이한 전쟁도 있다는투로 주석을 달았다.

그도그럴것이 2차대전중 노르망디상륙 작전에앞서 하찮은 기밀하나를 보도진에 흘려보냈다가 그벌로「장성진급불가」딱지를 맞은 고참대령 한사람이 당시 美8군에 배속되어 전투를 지휘하고 있었으니까. 11월23일 추수감사절은 전쟁을 치르는 한국전선에도 흥청망청이었다.

10군단 사령부에는 앨먼드사령관을 비롯한 장성들이 모여있었는데 그중에는 해병사단장 올리버·스미드장군등 작전수행방식을 못마땅해하는 장성들도 몇사람 끼어있었다.

앨먼드사령관은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있었다. 위하7사단 17연대가 압록강 접경도시 惠山鎭을 바로이틀전에 점령했다는 회보를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7사단장 바르장군은 스미드장군에게 17연대의 진격작전이개운치않고 마음에 걸린다고 귀엣말을했다. 바르사단장은 여느때도 하루이상여분의 보급품이 없는 상태에서 작전을할수밖에 없었는데 험한 지형을 감안할때 이건 위험하기 짝이없는일이라고 우려했다.

앨먼드가 계속 압력을가하는바람에 7사단이 진격은 하지만 측면을 노출하는 위험이 따랐다.

그건 압록강연안 초소하나를 점령해놓고 전쟁에이겼다고 흥겨워 하는거나마찬가지였다.

같은날 맥아더는 청천강변 新安州에있는 8군사령부로 날아와 워커사령관의 브리핑을 듣고 5시간남짓 전선을 지프를 타고 시찰했다.

그뒤 맥아더의 압록강진군재촉이 성화같았지만 8군사령관 워커는 좀체로움직이고 싶어하질 않았다. 전진을 계속하려면 하루에 4천톤의 보급품은 확보해야하는데 사정은 그렇지못했다.

그처럼 신중한 워커를맥아더는 한국전초기부터 달가와하지 않았다. 누가 끄집어서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워커는 맥아더계획대로 공세를 펴야하고 맥아더가 계획한대로 승리를 해야한다는걸 알고 있었다. 그렇지않으면 육군장성으로서 자기장래는 끝장이 날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동부전선 10군단지휘부내에서도 마찰이 있었다. 10군단에 배속된 해병1사단장 스미드장군은 11월초부터 앨먼드군단장과 불편한 사이였다. 스미드가 보기에는 앨먼드는 고집불통이라는 점에서까지 맥아더의 化身이었다. 따라서 10군단장과 다투는것은 최고사령관 맥아더와 다투는거나 마찬가지였다.

묵살된 中共軍 대거投入 情報

워커·스미드등 맥아더와 異見

合參、한때「한국撤收」논의

하지만 스미드는 他軍을 이끌고 있다는점이 앨먼드에게 대들수있는 용기를 주었다. 2차대전중 맥아더가 해병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해병사단장이 맥아더에 반발했다고 해서 스미드의 장래를 망치는일은 없을성 싶었다. 그래서 이따금 자제의 선을 넘는일이 일어났다.

중공군의 대량참전설이 소문으로만 나돌뿐 확실하게 정보망에 잡히지 않는 가운데 제1해병사단은 북진을 계속했다. 때는 11월10일.

이때부터 별난 북방추위는 중공군못지않게 무서운 적이되었다. 해병들은 총기가 얼어서 못쓰는일이 없도록 밤낮 주기적으로 허공에쏘아 총신을 뜨겁게하곤했다.

이렇게 며칠을 버티고있을때 정찰대가 신흥골짜기 어느민가에서 잠을자고있던중공군 한명을붙잡아왔다. 정보대 (G-2)에 불러다 신문을했더니 졸병급 포로가털어놓는 정보치고는 너무엄청나게 흘러나왔다.

중공군 병사는 중공측이 24개사단을 한국전에 투입하기로했다는것이다. 정보대에서는 그럴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런 엄청난 전략정보를 보병병사가 알고있을리가 없다고 묵살해버렸다.

이 대목에서 정보대는 실수를 범했다. 중공군부는 장사병에게 한국전 출동령을 내리면서 어느어느 부대가 투입되며 그들은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하는지를모두알려놓고있었다.

스미드 사단장은 중공측 의도가 무엇인지 가늠을잡지 못한채 11월15일 인명피해를 줄이는 중대한결정을 내렸다. 앨먼드 군단장의 명령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해병사단은 독자적으로 일일목표를 정해놓고 병력을 움직였다. 해병사단이 하루빨리 압록강에닿도록 하라는 10군단 사령부의 명령은 따르되 해병사단 나름의 페이스를 지켜나갔다.

동시에 스미드 사단장은 워싱턴 해병본부로 장문의 편지를써서 해병사단이 작전상 아주 어려운 처지에 날로 빠지고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스미드장군은 케이츠해병사령관에게 해병작전에 대해서 東京을 거쳐 워싱턴에 보고되는것을 덮어놓고 믿지말라는 경고까지 덧붙였다.

당시북한 북단지역 작전은 너무촉박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차질을 많이 빚었다. 작전계획은 1천1백만분의1지도를 놓고 짜고는 실제작전은 5만분의 1지도를 가지고 하다보니 엉뚱한 지형때문에 고심도 많았다.

그로부터 해병1사단은 흥남철수를 할때까지 1백3명전사, 5백6명부상, 실종7명 도합 6백16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하지만 1만명의 해병과 차량 1천량이 무사하게 퇴진할수있었던것은 전선의 상황에대한 깊은이해는없이 승전욕에만 차있던맥아더원수、앨먼드장군의충동질에무조건 따르지않은해병사단장스미드장군의고집때문이었다.

협상·철수

유엔군의 연합전선은급속히 침식되고있었다.

11월30일~12월1일 밤새 워싱턴에들어온 전보들은 戰地 상황이 심히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들이었다.

이날 (월요일) 아침 8시30분합참 (JCS) 회의실에서는 미국이 패배를자인하고 한국으로부터 철수해야 할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암울한 분위기속에논의됐다.

애치슨장관은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우방들의 단합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군사적으로 가능한 방어선을 설정하고 이를바탕으로 종전 협상을열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중공이 이 정지선을수락할것인가하는것도 의문이었고 또만약 미국이 한국을 비우고 중공이滿洲로 철수한다해도 한국은계속 북한과 대처해야 하기때문에 미국이 어디에 남느냐도 문제였다.

한편셔먼제독은 전략적인견지에서 한국을 빠져나가일본으로 후퇴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셔먼해군참모총장은 중공이 유엔에 제공권을 맡긴채 내버려 두는데 몹시 놀랐다.

그는 말은 안하지만 滿洲의 비행장들을 폭격하자는 맥아더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브래들리와 콜린스장군의 의견은 달랐다.

만약 유엔군이 중공기를 격퇴한다면 중공을 크게자극하고 소련의 항공기에잠수함까지 끌어들일 위험도 있겠지만 그렇게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원자탄사용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때 정보대장인 월터·베델·스미드장군은 소련기들이 곧 전투에 참가할 것이라는 종전의 예상을 뒤엎는 새정보를 가져왔다.

스미드는 이어『지금 당장 한국을 빠져 나가야 한다. 소련은 아시아에서 전쟁에 끌려들지 않으려는우리의의도를 확신하고 원하는대로 우리를 밀어붙일 수 있다고 믿고있다. 그들은 유럽의 재무장노력을격파하면서도아시아에서 우리를 쳐부술수있다』고강조했다.

이에 로버트·로베트국방차관은 한국이 결정적인지역은 아니지만 한국을잃는 것은 일본에도 위협이 된다는 것을 설득하려 애를 썼다.

”한국잃으면 日本도위험”

休戰으로 最善의效果를

이때 중공공군의 대량공격시에 대한 대책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브래들리 합참의장과 스미드는 『중공에 대한 소련지원이 증가될 경우 우리는 일단 대피하더라도 새로운 전쟁에 착수하게될것』이라는데 일치를 보았다.

그것은 원자탄사용의 위협 또는 실제사용을 뜻하는 것이었다.

애치슨은 마침내『종전을 수락하고 38선으로 후퇴』하는문제를軍에제시했다.

결국 브래들리、콜린스장군과 셔먼제독이 이에동의했다. 1시간여 계속된 펜타곤회의의 결정사항은 휴전선협상서 최선의 효과를 얻기위해 전쟁서 승리하겠다는 생각은 포기한다는것이었다.

12월4일 애틀리영국수상이 미국에도착했다.

물론 그의방문은 미국의 핵무기사용에 대한 우려때문이었다.

트루먼과 애틀리의 회담은 보좌관도 배석시키지않은채 계속됐다.

트루먼은 이자리서『미국과 영국은 [illegible]반자임을 강조하고『영국과의 협의없이는 절대로원자탄의사용을 고려치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흥분한 애틀리수상은 반사적으로『이 약속을 기록으로 남기자고 물고늘어졌는데 트루먼은『옳지않은 말이라면 기록한다해도 나아질게 없는 것』이라며 기록만은 단호히 거절했다.

애틀리는 트루먼이 한국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트루먼이 자신과의 회담도중 조립되지 않은 핵폭탄의 부속들을 [illegible] 공수토록 허용하고 이를 美항공모함에 차곡차곡 쌓아 놓았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떠났다.

사실 트루먼은 핵폭탄의 사용을 원치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적인 재난을 막기위해서는 언제라도 투하명령을 내릴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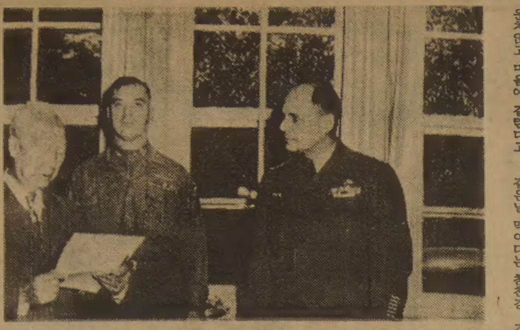
그런데 12월7일、CIA의 긴급보고가 백악관에 날아 들었다.

외국소식통으로 부터 얻어낸 것 같은 이 보고서에 의하면 중공관리들은 유엔군이 원자탄을 사용치 않을것이며 38선으로 밀려날때는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중공과 협상을 벌일것이라는걸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다.

또 최정예군과 장비를滿洲와 중공북부에 배치하고 있었던 중공은 미국과의 전쟁이 벌어질 경우 30만명의 병력과 해·공군지원을 하겠다는 소련의 약속을 받은 후에야 한국전 개입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CIA는 駐美영국대사관서 트루먼-애틀리회담에 관여한 인물이 바로 소련스파이인 필비와 버게스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회담내용을 다시 영국외무성 미국과에서 일하고있는 또다른 소련스파이 매클란에게 직접 보고했던 것이다.



◇李承晩대통령을예방한 한국전후반의주역들。㊧로부터 밴·플리트、리지웨이。휴전을 전후해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대장은 한때휴전반대를 고집한 李대통령 제거계획을 세우기도했다。

◇美해병탱크의 지원을받으며 한국해병들이 공산군포로를 인솔해가고있다。

◇처음피워보는 양담배。 미해병1사단에잡힌 북괴군두병사가철조망안에서 그들이 설명하려던 양키의 담배를피우며 자유를 느끼고있다。

原爆投下 트루먼의 失言 논쟁

記者會見서 ”고려되고있다” 비쳐

”武器사용 現地지휘관에 달린 일”

世界가 경악…英國議會까지 발칵 뒤집혀

한국전개시이래 국방성은 계속 한국내에서의 핵무기사용문제를 검토했다。중공군이 전면전을 개시할 경우 유엔군의 방어거점을 확보하고 滿洲국경까지 진군하기 위해서는 원자탄 사용은 결정적인 요소였다。

11월28일 JCS의 W·G·랭커해군소장은『소련개입을 억제하고 또 유엔군의 한국철수를 돕기위해서는 원자탄사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있다』는 요구서를 참모회의 의장에게 제출했다。

그는 폭탄의 수량과 목표지역、투하시기、수송등은 물론 중공·소련에 사전통고를하고 투하할 것인지의 여부까지 언급해줄것을 요구했다。

이 문제의 연구는 물론 극비로서 진행됐다。그러나 11월30일 트루먼 대통령이 기자회견중 핵무기 논쟁에 끌려들면서 원자탄 투하계획은 노출되기 시작했다。

트루먼의 막연하고 애매한 대답은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기에충분했다。

그때의 트루먼과 기자들간의 일문일답은흥미롭다。

—유엔군의 滿洲폭격문제는 유엔의 결정에 달린 것인가。

▲전적으로 그렇다。

—다른 말로、유엔이 맥아더에게 승인한다면 맥아더는 또다른 작전을 펼것이란말인가。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상황에 대처키위해서는 어떤조치라도취할것이다。

「그 조치에는 원자탄사용도 포함되는가。

▲우리가 보유한 모든무기의 사용이 포함된다。

—그말은원자탄사용문제가활발히고려되고있다는뜻인가。

▲원자탄사용문제는 항상 논의돼왔다。하지만 그것이 사용되길 원치는 않는다。원자탄은 가공한 무기이다。무고한 양민들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한다。

UP의 베테랑 특파원인 메리먼·스미드는 대통령이 자신의 의도보다 강력하게 나오고있다고 생각하고 트루먼이 물러날 기회를 주었다。

—분명히 원자탄의 사용이 고려되고 있다고 믿어도 되는가。

▲그렇다。원자탄은 우리가 보유한 무기중의 하나다。

—원자탄은 군사목표물에 사용되는가、아니면 민간인에…。

▲군인들이 결정할 문제다。

잠시후 이에 관한 질문은 계속됐다。

—유엔의 승인 없이는 원자탄을 사용하지 않을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중공에 대한 조치는 유엔의 결정에 달렸으나 무기사용여부는 언제나와 같이 戰地의 지휘관에 달렸다。

몇시간후 백악관의 공보실이 쩔쩔매며 부인하듯이 트루먼의 발언은 완전히틀린것이었다。

미국의「원자력사용법」은 오직 대통령만이 원자탄의 사용을 허가할수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트루먼의 이러한 失言은 이미 AP、UP등 세계적인 통신망을통해 번져나가 국내는물론 전세계를흥분속으로몰아넣었다。

이에 가장 놀란것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영국관리들。

중공에 대한 원자탄투하권한이 맥아더의 손아귀에 달렸다는것을 느끼게된 영국관리들은 그소식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고 한다。

트루먼은 후에 회고록에서 언론이 자신의 말을 오해했다고 회상하면서 자기의 의도는 단지 중공과 소련에 경고하려했던 것이라고 술회했다。

의도야 어떠했든 당시 트루먼의 코멘트는 미대사관의 표현대로『1945년 노동당이 집권한이래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논쟁』을 영국의회에 불러일으켰다。

약1백명의 영국의원들은 수상에게 원자탄사용을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영국의회의 분노는 대단했으며 미국의 절친한친구라는 윈스턴·처칠경이나 엔터니·이든경도 이에 가담했다。

클레먼트·애틀리영국수상은 즉각 미대사관에 전화를걸어 트루먼과의 회담을요청했고 영국의회를 달랠길을찾던 트루먼도 즉각 이에 응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142>

응달 ㉒

뒷골목의 정적 바로 한결 너머에선 차들이 시끄럽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라면집엔 손님 없이 주인여자 혼자졸고 있었다. 가게방은 열려있었고 이불속에 나란히 누운 아이들의 머리가 보였다. 눈 비비고 일어난 주인여자는 인사대신 하품을 하고 헝크러진 머리를 긁으면서 시렁과 휘장으로 가려진 부엌쪽으로 들어갔다. 단골인듯 무얼 먹겠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계란넣어 둘』

일환이가 부엌쪽으로 손가락 둘을 펴보이며 말했다.

『그 동안 어딨었니?』

『궁금해한 적 있어?』

『학원으로 한번 찾아간적 있어』

『그랬더니?』

『네가 거기서 없어진 뒤였어』

『그럼、그 이상은 안궁금했고?』

『그 후에도 종종 소식은 들었어。좋은 집에 수양딸로 들어갔다는…』

여자가 느릿느릿 탁자를훔치고 젓가락과 김치를 갖다늘어놓았다. 그러나 떡라면은 좀처럼 나오지않았다. 오목이는 일환이의 강한눈길을 느꼈다. 그의눈엔 오목이의 돌연한 방문에 대한 기쁨과 의혹이 엇갈리고 있었다.

『나 거기 그만 뒀어』

『그만 두다니。수양딸이 무슨 직업이니?』

『수양딸은 뭐…。식모 비슷한 거였어』

『너 많이 변했다』

『오빠두』

오목이는 일환이의 눈길을 줄창 피해왔으면서도 그를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다. 과히 깨끗하지못하고 못생긴건 여전했다. 뻐드렁니도 여전했고 뻣뻣하게 곤두선 머리털도 여전했지만 울퉁불퉁한얼굴의 선은 많이 마모되어 지쳐 온건해보였다. 무엇보다 풀은 의문이 군더더기 없이 명료해졌다. 그러나 오목이는 자신이 감당해야할 그의 문을 피하는데까지 피할 작정이었다.

『오빠 참 우습다』

오목이는 짐짓 싹수없이 빙글대며 말했다.

『뭐가?』

『보일러 기술자가 냉동학원에 다니는게 그럼 안우스워?』

일환이는 따라 웃지않고좀더 시무룩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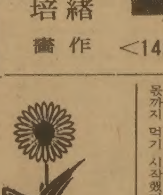
『보일러 기술이라는 게 암만해도 계절을 타서…。또 자본없이 기술만가지고 자립하는데도 냉동기술쪽이 유리할것 같기도 하고』

여자가 떡라면을 한그릇씩 따로따로 들고왔다. 오목이는 시장했던 푼수로는 잘먹히지 않았다. 라면은 느글대고 떡은 끈적였다. 그녀는 조금씩 먹으면서 많이 휘저었다. 얼었다 녹아서인지 콧물과 함께 눈물도 번졌다. 그녀는 그런 지저분한 절멸구지않기위해 허공을 쳐다봤다.

화사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어디 있는 걸까? 그녀는 아직도 헛된 꿈의 한자락을 움켜쥐고있는 자신에게 흠칫 놀라면서 마침 국물까지 들이켜고 빈그릇을 내려놓는 일환이 앞으로 자신의 몫을 밀어놓았다.

『더 먹어』

일환이가 말 없이 오목이 몫까지 먹기 시작했다.



流星의 賦

<414>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壬辰의 해는 저물어 ⑫

그 눈을 밟고 신불과 그가 이끄는 특수대 즉 귀곡대(鬼哭隊)가 광교산을 오르고있었다.

수원、죽산、용인、과천 일대의 부왜반도(附倭叛徒)들을 적발하는대로 징치(懲治)하고、그믐날과설을 사령관 홍계남과 더불어 지내기위해 설야행군(雪夜行軍)을 감행하고있는 터였다.

그런데 그일행 가운데 이색적인 사람이 둘있었다. 둘다 재갈을 물리고 발을 제외하곤 꽁꽁 묶어있는것을 보면 반도를 사로잡아 오는것이라고 알수가 있었다. 신불은 홍장군에게 바치는 선물로 치고 그들을 사로잡아끌고 오는것이다.

본거에 도착했을 땐 자정이 넘어 있었다. 귀대인사(歸隊人事)는 아침으로 미룰까 했는데 홍장군이 아직 자고 있지 않다고 듣고 신불은 부하들을 막사에 돌아가 쉬게 하고 자기만 계남의 거처로 갔다.

『수고가 많았겠소』

기다리고 있던 계남이 일어서서 신불의 손을잡았다.

『뭐 대단한 수고가 아니었읍니다』

하고 신불이 군례(軍禮)를 행하려고 하자 계남이 그것을 만류하고

『몸도 녹여야 할 것이니 우리 술이나 한잔합시다』

며 사동에게 술준비를 시키곤 물었다.

『다친 사람은 없소?』

『없읍니다』

신불의 늠름한 대답이었다.

『그야 말로 귀곡대이군』

『우선 대강의 보고를 하겠읍니다』

이렇게 시작한 신불은 수원에서 17명、죽산에서 9명、용인에서 11명、과천에서 3명의 반역도를 적발하여 처치했다고 하고 반역도들의 명단과 놈들이 행한 반역사실을 일일이 설명했다.

엄숙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계남이

『혹시 억울한 사람은 없었을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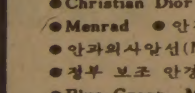
하고 중얼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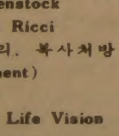
『억울한 놈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곳곳마다에 잠복하여 한 사람 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왜놈과 내통하고 있는 현장을 잡기도 했읍니다. 그런데 그런 놈들을 징치할 때마다 느끼는 일입니다만 어째서 그렇게 되어먹지 않은 연놈들이 이땅에 많은가 하는 한탄입니다.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 의병(義兵)을 일으켜 나라를 위해 죽기도 하는데 어찌 그러한 사갈배(蛇蝎輩)가 횡행할 수 있느냐 하는 한탄입니다. 그런데 왜놈들의 전술은 교묘해요. 하마터면 큰일 날뻔 했읍니다』

하고 신불이 한 얘기는—。

수일전 20명으로 헤아리는 의사(義士)의 일당이 수원성 한쪽에 있는 왜군의 화약고를 습격하여 수십인의 왜병을 죽인 사건이 있었다. 그 소문은 널리 퍼져 이미 그자들의 이름은 행재소에까지 올라갔는지도모를 일이다. 그런데 신불이 탐색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왜놈과 반역도가 짜고 한 연극이었다. 화약고 폭파 때 죽은 사람은 왜놈 군사의 복색을 한 조선인들이었고, 그 화약고엔 굉음과 화염을 내기 위한 소량의 화약밖에 없었다. 왜놈들은 반역도의 이름을 높이 내어 우리 군대에 [illegible]되도록 하기 위해 무고한 양민을 왜병으로 가[illegible]시켜 죽이기로 한 연극을 꾸민셈이다. …신불은 그 사실을 [illegible] 알아낸 것이었다.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수리、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 : 30AM~7P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635 BLOOR ST. W
531-2236 (B) 886-0722(R)

민족상 시상식 연기

6월26일(토)하오4시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있을 예정이던 제2회 한인민족상 시상식은 3명의 지방거주 수상자들이 개인사정으로 이날 시상식에 참가할 수 없어 훗날로 연기합니다.(시상식 날자, 장소 추후 발표)

이날 참석예정으로 계신 내빈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한인민족상위원회 위원장 구상회
토론토 한국일보사

테니스회원모집

테니스를 즐기고자 하시는 분이나 배우고자 하시는 성인남녀 회원을모집합니다.

기 간 : 1982년6월26일부터시작 매주(토)오전10시~12시
장 소 : Dufferin Park(Dufferin mall건너편공원)
회 비 : $30(1인당)
연락처 : 이건영(598-3732)
장북성(964-2990)
이창오(967-6960)

토론토한인
테니스협회

鄭載巴군 無期구형

朴尙恩양사건 "포옹 거절격분 순간犯行" 論告

◇『무기징역』이 구형된순간 鄭載巴군의 얼굴이 창백해 졌다。

삼경여대생 朴尙恩양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된 鄭載巴피고인(21)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1일 서울지법東部지원 형사부(재판장 梁基俊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사건결심공판에서 간여 趙炳吉검사는 『鄭피고인은 미국연수때 朴양과 친해졌으나 朴양이 다른사람과 가까이 지내는것을 시기해오던중 지난해9월18일 하오9시30분께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승용차로 南山까지 드라이브를 했으며 서울江南區三成洞 三井莊여관입구에서 포옹을하려다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 朴양의 얼굴을 때리고 안전벨트로 목을 죄어 숨지게 했다』고 밝히고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논고에서 鄭피고인의 임의성있는 자백과 [illegible] 나타난 [illegible]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등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鄭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공정하고 정당한 수사과정을 통해 진실로 밝혀진 범행사실을 부인, 허구의 사실을들어 수사관을 비난하는 교활성을 드러내 어린 대학생이란 점외에는 아무런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으며 오히려 흉악범보다도더 지능적이고 잔인한 범죄인의 면모를보여 이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킴이 마땅하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鄭피고인이 대학생이며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해자의 가족이 관대한 처벌을 탄원한것을참작,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구형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張모군은 『사건당일 상오9시께 新盤浦자기집에서 朴양을 만났으며하오5시께 학교에서 다시만나 집으로 와서 함께 지내다 하오9시20분께 朴양 오빠집까지 바래다 주었다』고 말하고 『朴양과는 입맞춤정도의 애정표현은 있었으나 치흔을 남긴기억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공판은 상오10시개정, 張군에대한 증인신문과 鄭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를 모두 마친뒤 하오4시 검찰의 논고와구형이 있은뒤 변호인의 변론을끝으로 하오6시께 폐정했다.

이날 검사가 낭독한 논고는 2백자원고지 1백장 분량으로 낭독에만30분이걸렸는데 『무기징역』이라는 구형이 내려지는순간 鄭피고인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보였던 태연한 모습과는 달리 고개를 떨군채 참백한 표정이었고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이로써 鄭피고인은 8회에 걸친 공판끝에 무기징역이구형됐는데 선고공판은 오는7월9일예정.

이날공판장에는 鄭피고인의 부모와 전화를 걸어준것으로 알려진 숙모등 가족들과 1백여명의 방청객이 지켜봤다.

"血痕증거 신빙성 없다"
변호인側, 위협·설득에 허위自白

한편 변호인측은 변론에서 『검찰이 제시한 시트커버의 혈흔은 鄭군가족중 환자가있어 각혈로 인해 생길수도 있는것으로 검찰의 증거물로신빙성이 없으며 자백 또한 여러가지 위협·회유·설득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하게된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검찰이 자백이후에 혈흔검정서를 보면 점등은 이번수사가 과학적이기보다는 추리에입각한 수사였음을 보여주는것』이라고 주장하고 『朴양이 鄭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鄭피고인역시 朴양의 오빠집전화번호를 알수없어 朴양이 사건당일전날 鄭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추리의 출발자체가 납득할수 없는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販賣責 5~6명 더있다

34만弗사건 하야마는 국제적 밀수꾼

金塊 5차례 서울搬入
日~홍콩~臺灣~서울 제집드나들듯
「朴永復다이어」등 2백만弗어치 사들여

미화 34만달러 밀반출기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南部지청은 21일 이사건이 일본인 하야마·다께지오씨(羽山武智雄·51·일본福岡市南區高宮1丁目)를 중심으로한 국제금괴밀수자금이라는 사실을 밝혀낸데이어 이밀수조직의 국내관매책이 이미구속된 하야마씨의 현지처 鄭銀淑(48)과 柳亞馨(38·鄭씨의 조카사위 利寶堂주인)등 외에도 「상철이엄마」「張씨아줌마」등 5~6명이 더있다는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의 연고지에 수사반을 보냈다.

검찰은 또 하야마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5월 초까지만도 5차례나 금괴를밀수하는등 일본 홍콩·臺灣 서울지역을 왕래, 금괴를 비롯한 각종 귀금속을 밀반입처분해온 국제적인 밀수범임을 밝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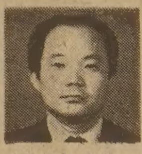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20일 밀수금괴를 사들인 서울鍾路區 鍾路4街 세보양행주인李永珪씨(42)를 관세법위반혐의로, 달아났던 한미 오피스직원 金貞淑양(21)을 여권법위반혐의로 추가구속했다.

검찰에따르면 하야마씨는 지난69년부터 일본에 南西산업이란 무역회사를 차려놓고 한국에와 토산품·공예품등을 사서 홍콩등지에 팔아왔다는것.

검찰은 이에따라 하야마씨가 오래전부터 무역업자로위장, 한국을 드나들며 금괴를 밀반입해온 국제금괴밀수조직의 한국운반책으로 단정, 하야마씨의 수사를 일본경시청에 의뢰하기로했다.

한 검찰관계자는 『법무부등을통해 수사자료를 일본에 보내 협조를 요청할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달아난 환전책金璨變(31)李永鎭(33)등이아직 서울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 뒤를 쫓고있는데 이들브로커들은 환전해주는 댓가로 환전액의 0·25%의 커미션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李承珪

한편 하야마씨는 지난3월 서울세관에서 실시한 압수밀수품 국제공개입찰때 朴永復의 국내최대다이어등이 포함된 귀금속류 20만1백52점을 2백19만1천달러에 일괄낙찰해간 장본인으로 밝혀졌다.

"密輸안했다"발뺌
羽山회견, 日警 자체調査나선듯

【東京21日=宋孝彬특파원】 일본경찰청은 21일 금괴밀수범으로 한국경찰이 지명수배중인 후꾸오까(福岡)시 거주 하야마(羽山武智雄·49)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한관계자는 이날 한국수사기관으로부터 아직 수사의뢰를 받은바는 없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해 협조를의뢰해오면 적극협조할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금을 자유거래할수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경찰청당국은 하야마가 외환관리법위반과 관세법위반 혐의가 있지않는가 보고 이미 자체조사를 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범인 인도협정이 체결돼있지 않기 때문에 하야마의 범행이 확실히 드러난다해도 한국으로의 인도는 불가능하다.

한편 하야마는 19일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회견에서 한국에서 금을 사고 판일은 있으나 금괴를 밀수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부인했다.

회견내용은 다음과같다.

—서울지검으로부터 금괴밀수 용의자로 지명되고 있는데?

▲전연 관계가 없다. 34만달러의 현금이 발견된것은 10일이었는데 나는 8일 후꾸오까에 돌아왔다.

—鄭銀淑과의 관계는?

▲그여자는 한국에서 무역관계일을 했을때 통역을 맡았었다. 그여자의 동생과 내가 서울에서 금 20~30kg을 판일은 있다.

—무슨 무역을 하는가.

▲69년 주식회사를설립, 현재 나혼자말아 일하고있다. 서울에는 남자와 여자 1명씩을 고용하고 있으며 귀금속, 수산물, 미술품등을 구입, 홍콩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에 자주 가는가.

▲1주일에 한번정도 간다. 장사도 목적이지만 카지노에서 논는것도 즐거움의하나다. 한번에 8백만엔을 잃은적도 있다.

—지명수배되고 있는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와서 알았다. 체포될 염려가 있기때문에 당분간 서울에갈 생각은 없다.

主犯 李昌健 자수

"남편볼낯없다"는 情婦 죽이고

銃훔친 동생과 共犯 李斗賢도 검거

M16強盜모의

◇M16소총강도 모의사건의 주범 李昌健(34㊧)과 공범 李斗賢(25).

M16소총강도모의사건으로 공개수배중이던 주범 李昌健(34·전과2범·서울城北區貞陵1洞16의206)과 동생 李昌植(23·서울龍山區漢南洞726의358) 공범 李斗賢(25·서울道峰區上溪3洞172의33)등 3명이 주말인 19·20일 각각 경찰에 붙잡혔다.

주범李는 경찰에 붙잡히기전 함께 달아났던 애인 申明蓮씨(33·서울東大門區徽慶洞110의1)로부터 『사건이 세상에 공개돼 남편과 두딸에게 도저히 돌아갈수없으니 차라리 죽여달라』는 부탁을받고 19일하오7시께 함께 투숙했던 서울道峰區彌阿洞125의11 明信여관에서 목을졸라 숨지게했다고 경찰에서 자백했다.

경찰은 주범 李등으로부터 지난해6월께부터 총을 훔쳐내 은행이나 경마장 張玲子와같은 부잣집을 털기로 모의했다는 자백을받고 주범李는 살인, 절도 강도예비음모,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혐의로 공범 李斗賢은 강도예비음모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총을 훔쳐낸 동생 李昌植은 군수사관에 이첩했다.

지난 17일낮 서울城北區貞陵洞 녹정휴게실에서 경찰수사관을 때려 쓰러뜨리고 달아났던 李는 그날밤11시께 申씨와 동생李昌植 공범李斗賢등과함께 어머니와 처로부터받은 20만원의 도피자금으로 야간열차를타고 부산으로 달아났다가 19일상오 자신들의 사진과 수배기사가 신문에 난것을보고 日本으로의밀항등 도피방법을 논의하다가 자수하기로합의, 20일하오5시께 서울城北경찰서앞 다방에서 만나기로하고 각각 헤어져 상경했다는것.

주범 李는 申씨와함께 19일하오7시께 상경, 평소 자주 다니던 明信여관209호에 투숙, 申씨를 살해한다음 貞陵洞자기집으로 전화를 걸어 부인과 통화하다 잠복근무중이던 형사를 바꾸게해 『여관에서 여자를 죽였다. 더이상 도망다니지 않겠다』고 자수의사를 밝히고 하오10시50분께 집으로 택시를 타고가 경찰에 붙잡혔다.

동생李昌植은 부산에서 일행과 헤어져 19일상오 서울에와 龍山區漢南洞 누나(25)집에 전화를 걸어 자수를 권유받은뒤 하오5시30분께 中區新堂3洞 연다방앞에서 누나를 만나기로하고 나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공범 李斗賢도 부산에서 大田을거쳐 20일 하오 상경, 이날하오6시께 서울江東區鷲室4단지 누나집에 전화로 자수할 뜻을 비쳐, 매부盧모씨(37)가 경찰에 연락했다.

파독광부의 아내인 申은 지난해7월 카바레에서 주범李와 만나 불륜의 관계를 맺어왔는데 지난4월 남편이 귀국한데다 그동안 남편이 송금해온 6백여만원까지 李와의 유흥비에 탕진해 범행모의에 가담했던것으로 밝혀졌다.

막걸리에 毒劇物

淸原 집단變死 怨恨관계등 搜査

【淸州】충북淸原郡江外面五松里 마을주점 옥산집 집단변사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1일 팔다남은 막걸리와 사체가검물에서 치사율이 높은 독극물인 청산염성분이 대량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정결과를 통보받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문제의 막걸리에서 검출된 극약이 시골에서 흔히 쓰는 조류살생용으로 쓰이고있는 속칭 싸이나인 것으로 단정, 옥산집 막걸리한아리에 독극물을 투입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추정하고술집주인 윤영자여인과의 원한관계등을 중심으로 수사를펴고있다.【聯合】

公訴사실 거의是認

文富軾피고 학습내용은 "기억안나"

美文化院방화

【釜山】釜山美문화원방화및 불온유인물 살포사건과관련, 국가보안법등위반혐의로 기소된 金鉉奬·文富軾·崔基植 신부등 관련피고인 16명(구속15 불구속1)에 대한 2회 공판이 21일상오10시7분 부산지법1호법정에서 열렸다.

부산지법형사4부(재판장 安文泰부장판사 주심 申珉澈·洪光植판사)심리로 열린 이날공판은 지난14일의 1회 공판에이어 피고인들의 의식화학습에관한 사실심리에 들어가 文富軾·金恩淑(24·부산高神大3년제적) 柳承烈(20·釜山工大3년) 朴顯植(19·부산高神大의예과2년)피고인등에대한 검찰의 직접신문과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을 들었다.

文피고인은 이날 검찰의직접신문에서 공소사실중 의식화 학습부분에대한 대상학생 및 일시·장소·교육회수등에대해서는 대부분 시인했으나 학습내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을 「기억나지않는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진술했다.

文피고인은 81년3월15일부터 5월말까지 10회에걸쳐 부산西區岩南洞 자신의 자취방에서 金恩淑피고인과 함께 의식화학습을 주도하는등 81년12월초순까지 장소를 옮겨가며 의식화학습을 벌이지않았느냐는 검찰신문에 대해 스터디·세미나등의 명칭으로 책을읽고 발표및 토론회를 가진사실이있다고말했다.

이날 검찰은 文피고인에 대해 좌경화, 反美주장, 폭력혁명지향, 해방신학이론의원용등 문제에대해 중점적으로 신문했다.

이날공판에는 부산지검金斗壽 공안부장과 공안부 崔炳國·高永吉·李昊在 검사등 4명의 검사가 간여하고 金光·李興祿·盧武鉉등9명의 변호사등이 변론에 나섰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성직자등1백여명이 1회공판때처럼 방청했다.【聯合】

脫營兵이 총기亂動

설득하던將校 참변

20일 하오10시10분께 경기高陽郡神道邑花田里159李銀成씨(64)집에서 모부대 柳모일병(21)이 착검을한 M16소총으로 李씨의부인 김현순씨(62)등 부녀자 3명을 안방에 몰아넣고 위협하다 휴가중에 이소식을 듣고 柳일병을 제지하기위해 달려온 李松雨대위(35)를 쏘아 그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柳일병은 이날 M16소총과 실탄90여발을 갖고 부대를이탈, 李씨집 마당에들어와 세들어사는 吳仁淑씨(29·여)와 마주치자 『시키는대로 하지않으면 쏜다』고 위협, 안방으로 몰아넣고 안방에있던 金씨와 며느리 尹仁淑씨(29)등 3명을 모두 꿇어앉게했다.

이때 李대위가 달려와 『왜 그러느냐. 나도 군인인데 얘기를해보자』고 말하자 총격을 가한것.

5行뉴스

◇3母子 自殺기도 딸숨져

【全州】20일 상오8시께 전북完州郡九耳面白如里1087 박현수씨(30)집 안방에서 박씨의 부인 조예숙씨(28)가 장녀 정림양(5) 장남 춘모군(3) 과함께 동반자살을 기도한끝에 정림양은 그자리에서 숨지고 조씨와 춘모군은 전주예수병원으로 옮겼으나 3시간만에 숨졌다.【聯合】

◇물싸움이 끝내 暴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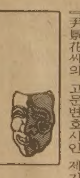
【榮州】경북榮州경찰서는21일 안검혁씨(51·榮豐郡伊山面 靈文里110)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 17일 논에서 양수작업중 자기논에 물을보내주지 않는다고 김사옥씨(62·文殊面萬芳里)와 언쟁을하다 한해대책작업을 지도하러나온 榮豐군청 농산과직원 석경환씨(29)에게 『공무원이 그냥 보고만있다』면서 논둑밑에 넘어뜨리고 얼굴을때려 전치10일의 상해를 입혔다는것.【聯合】

孤獨한 싸움

高淑鍾여인 변론…金炯準변호사

義理없는사나이 비웃음속 "人權"편에



高淑鍾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金炯準변호사(사진·52)。그는 高여인이 3백3일만에 무죄로 풀려나기까지 「고독한 싸움」에서 최선을 다했고 최선의결과를 얻어냈다。

의사가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마지막까지 할일을 다하듯 흉악범의 누명을쓰고 敗訴가능성이 많은 사람의 인권을 위해 힘을 다해 싸우는것이 변호사의 가장 고귀한 직무의 일부분임을 새삼 확인시켜주었다。그러나 그러한 사명감을 다하는 변호사가 별로 많지않은것이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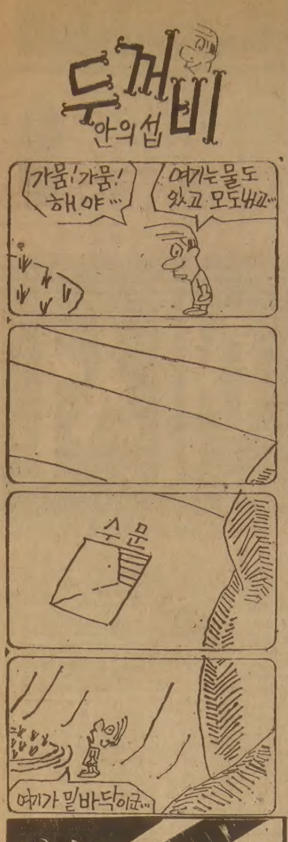
『尹景花씨의 고문변호사인 제가 그녀를 죽였다는 高淑鍾씨의 변호를 맡게된것은 高씨의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그가 이사건의 첫공판에서 맨처음한 말이다。평소 尹씨의 법률자문으로 일하며 高씨를 잘알고있던 그의 입장때문에 세간의 많은 오해를 산것도 사실이고 때문에 외로운싸움을 펴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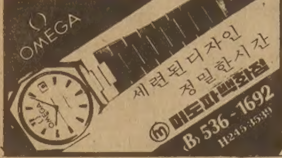
「이사건」의 변론을 맡고부터 수사당국자들로부터『고문변호사였다는 당신이 어떻게 尹씨를 죽인범인을 도와주느냐』며 손을뗄것을 강요해왔고 尹씨의 다른친척들까지『의리없는 사람이다。돈을 받았다면 갚아주겠다』며 원망을했다。심지어는 高씨의 가족들까지 이재판을 불리하게 끌고갈것이라는 우려때문인지 노골적으로 간여하지 말것을 요구해왔다。이런 四面楚歌속에서도 高씨만은 전적으로 자신을 신뢰했다고한다。그는 사건발표후 尹씨와의 친분관계라는 의무감때문에 현장에 달려갔고 나름대로 범인을잡는데도움이될만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노력했다。

그후 高씨가 범인자백을 했다는 발표를 보고 자신의 검사생활 20년의 상식으로보아 너무나 엉뚱한수사 방향이라고 생각했다。이때부터 자신이 수사관의 입장에서 반대증거수집을 하는데 전력을 기울였고 몇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낼수 있었다。

그는 이번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자백만이 증거의 王이고 고문을 가해 얻어낸 자백에 증거를 꿰맞추는 糾問主義의 낡은 수사방식은 지양되어야하며 「고문」이란 낱말은 이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되풀이 강조했다。또 「司法的正義」의 실현을 위해 두차례의 현장검증을 하는등 철저한 증거조사를 통해 의연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林承茂기자】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81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벵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의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Keele / Bathurst / Bayview / Bloor / CHINA HOUSE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동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거구장
신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바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한인연합상사
한국인의 도매상
25－27 Rangemore Rd.
☎ : 251－6578

한국 CLASSIFIED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곽 덕 열
☎ : 691－6768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운동구점

브렌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7－5830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건학

장의사

장 의 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路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준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정장우 회계사 (PAUL C. CHENG)중국인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625 Dufferin St. Ste.407 (B)636－3616 (R)690－7153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한국 CLASSIFIED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 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270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구인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좋은 농장과 골프장 있음.
전화 : 588-1779

경험있는 Shirt 재봉일 하실분 구함.
(Finch & Dufferin 지역)
전화 : 665-8348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매일 현찰 지불함. 전화 : 922-3061
다른차에서 안나가실때 나와 주세요.

지렁이 잡으실분.
Weston & Finch지역
전화 : 741-2557

햄버거식당 동업자 구함.
8월1일부터 확장계획임. 23 Helen St. Missi.
주중 9:00a.m.~18:00p.m. 전화 : 274-7010 (Mr. You)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경험자 요함)
현찰 지불과 동시에 1,000마리당 $18 드립니다.
좋은 지역임. 전화: 534-5149, 537-6345 (Tom)

주방헬퍼(남자)구함
628 Bloor St. W.

여름학생 1명
영문타자에 능숙한 학생을 1개월기한으로 고용함
근무처: 외환은행 본점. 전화: 364-2890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베비시터

두살 이상의 아기를 저의 집에서 성의껏
보아드리겠읍니다. (미시사가 지역)
전화 273-4670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28세된 총각이 신부구함.
신부 연령은 22세에서 30세까지
○ 가게운영을 희망하면 결혼전에 형님이 가게를 사주겠음.

○ 현재 주 $400 집에 갖어옴.
전화: 881-4007 오전9시-오후2시사이에 연락바람(Mr. 윤)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1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일은행	865-0456

매매

Private Sale (Bungalow Type)
타주 이주관계로 가옥 급매
4 Bed Rm. 2개의 차고 (Double Garage)
Asking : $114,900 (모닝싸이드 & 로렌스 지역)
전화 : 281-0963

Variety & Grocery Store with 3 Bedroom Apt.
High Park지역. 정원과 차고와 개인차도 있음.
코너에 위치해 있으며, 매우 깨끗하고 산뜻한 가게로 지하실이 크고 넓어, 다용으로 쓰일 수 있으며, 대단히 많은 수익을 현재 올리고 있음. 주인이 Canada를 떠나는 관계로 급히 팔고자함. 스탁은 꽉 차 있음.
아스킹 : $139,000+스탁(그중 $50,000은 Cash). 몰개지 : 15%
A.E.LEPAGE (ONT.)LTD.
Mrs. Ryerson 전화 : 537-3431

1) Building for Sale
아랫층 세준 곳에서 $900/m. 수입
이층에는 4 Bed Room Apt. 621 Bathurst St.
2) Corner에 위치한 Building & Business for Sale
주매상 : $3,800(일요일은 쉼) 이층은 3 Bed Room
(Landsdown & Queen St.)
3) Danforth 와 Broadview에 있는 남성 양복점 Sale
아스킹 : $15,000
Canada Permanent Real Estate Co.
전화 : (B) 481-3443 (Paul Kim · Soula St. Jean)

다른 사업관계로 매우 성업중이며 대단히 바쁜
지역의 꽃가게(Retail) 매매. 주변에
Free Parking도 가능함.
넓이 : 3,650 Sq.ft.
전화 : 1-634-9679 John
(오후 6시 이후 연락바람)

많은 교통량이 있으며, 특이한 마을의 분위기를 느낄수
있는 곳에 위치한 최고의 Condition을 구비한
2층 벽돌건물에 딸린 Store와 Apt매매.
8월부터 입주가능함.
1st Mortgage at 15%: $120,000
Cholkan & Co. Ltd., Realtor.
전화 : 763-5555 Doris Burda

Private (Landsdown & Wallace)
1. Building & Variety Store 2. Building & Coin Laundary
3. Building & Dry Cleaning Pick Up. 296 Wallace Ave. Ask for Tom.

Donut Shop 매매 .(Downtown지역)
주매상: $5,500~6,000 리스: 2+5+5+5(17년)
전화 : 977-2299 (Mr. 최)

Variety Store 매매 (Hamilton 지역)
1) 주매상 : $7,000 이상. 건물구입 가능.
로타리오 머신 있음(2층에 3 Bed Rm.과 1 Bed Rm.있음)
2) 주매상 : $4,500 (Plaza내에 있음) 전망 좋음.
전화 : 1-528-3986, 1-627-3449

경쟁없는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Tuek Shop)
주매상 : $3,000이상(꼭 관심있으신분 내방 바람)
위치 : 114 Forsythe St.(Oakville) 전화: 842-2917

Variety Store 사정상 급매
주매상 : $4,500 + 로타리오(3 Bed Room포함)
리스 : 8년 전화 : 421-5151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건강상 급매코저 함.
(일요일 문닫음) 주매상: $4,000 리스 4년반+5년옵션
전화 : 757-9410

Convenience Store 매매
주매상 : $5,000 리스 : 5년 + 5년
렌트 : $698 가격 : $45,000 + 스탁
위치 : East of Jane & Bloor 지역
주소 : 361 Windermere Ave.
관심있으신 분의 내방 요망.
주중 9:00a.m.~18:00p.m.

Milk & Variety Store 매매.
건물및 Business (2층에 2Bed Room Apt가 2개)
아스킹: $180,000. 주매상: $5,000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662 Vaughan Rd.

Variety & Cosmetic 급매.
절호의 챤스, Stock간 인수. 또는 Manager를
채용할 의사도 있음. 전화 : 654-4709

Milk & Grocery Store 급매
주매상: $4,500 가격: $43,000+스탁. 렌트: $1,000
936 College St.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r. 손

Sandwich Take Out Business for Sale
토론토대학 맞은편 (656½ Spadina Ave.)
관심있으신 분 오셔서 Bernadine을 찾으세요.

Variety Store Special!
위치: Oshawa Main St. 렌트: $700(3 Bed Rm House포함)
넓이: 1250 sq.ft. 주매상: $4,000. 리스: 6년.
가격: $39,000+스탁. 9 door walk-in cooler포함
Bagot Realty Inc. Realtor Tel: 1-579-4010
after Hours. Call Frank Magnus 683-8154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937 QUEEN ST. W.
364-0984 REMA FURNITURE

Dry Cleaning(Depot)Store for Sale.
◉ 스카브로 지역. 아스킹: $3,500(플라자안에 있음)
7 Chelwood Road. (B)751-7615(오전8시30분~오후4시)

비데오 아케이드 세 일
짧은 시간 적은 자 본
전화 : 266-9770 (낮12시~저녁10시 사이)

Milk & Grocery Store 급매
주매상: $4,500 가격: $43,000+스탁, 렌트: $1,000
936 College St.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r. 손

성업중인 햄버거·레스토랑 급매
렌트 : 2년($358). 3년 남아있음.
아스킹 : $24,500 전화 : 251-1908 Mr. 리

고급 Van.(81년 G.M.C.) 팝니다.(Still Warranty)
내부 완전히 꾸며져 있음(소파, Bed, 탁자, 카페트등)
13,000 Km. 전화 : 862-1623(오전) 694-9399(저녁)

도서판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아파트렌트

Sublet (1 Bed Room: 3개월간 Rent도 가함)
$280 + 하이드로(M.) Oldmill Subway에서 T.T.C로 10분거리
전화 : 231-9701 Mrs. Kim (6시반 이후 연락바람)

집렌트

클링톤하우스 693 Bloor St.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방 Rent 하실분.
Christie Subway옆 아리랑식당 앞.

셋방 있음 (1 Bed Rm + Kitchen)
$200/m. 653A Bloor St. W. 전화 : 533-0168
문의시간 : 오후 1:00~오후 9:00(일요일도 가함)

광 고 접 수
533~2361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명철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소석빈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레이몬드미용실 (주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알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화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퀸스웨이×이슬링톤 전화 : 252-7377 Mr. 안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Peter's Photography.
광고, 결혼식사진 전문. 전화: 270-2709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